

40th Anniversary

Korea Ladies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40년사

since 1978

KLPGA



필드 위에 영원히 남을
열정과 도전의 땀방울을 기억하며

역사적인 KLPGA 창립 40주년을 맞으며, 그동안 국내외 필드 위에서 열정과 도전의 땀방울을 흘린 수많은 여자 프로골퍼들을 생각합니다. 아직 여자골프의 불모지였던 1970년대 말에 시작한 그 도전은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지며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물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선수들을 응원하고 우리 KLPGA를 격려해준 국민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골프와 KLPGA가 있기까지, 그보다 값진 동력은 없었습니다.

KLPGA는 창립 이래 골프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각별한 신뢰와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하며 대한민국 골프의 위상을 드높이고 국위를 선양했으며, 골프가 생활스포츠로 자리 잡는 데도 남다른 기여를 했습니다.

이제 지난 전통과 경험을 바탕으로 KLPGA는 '아시아 골프 허브'로 자리매김해가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스포츠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자 합니다. 지금 KLPGA는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중대한 시기를 맞고 있으며, 창립 40주년을 계기로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KLPGA는 글로벌 투어로 나아가기 위해 동남아 지역을 거점으로 해외에서의 대회 개최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세계 No.1 투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은 KLPGA가 그동안 굳건히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많은 분들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또 1978년 여자 프로골프의 새 역사를 쓴 여덟 명의 선수들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협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전 · 현직 임직원 여러분 및 회원분들의 노고를 더욱 빛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회장 김 상 열



발 간 사

변화를 거듭한 역사,
결코 변하지 않는 정신을 담은 기록

초대 회장이라는 과분하고도 막중한 임무를 맡아 KLPGA 탄생을 함께 한 지 어언 40년, 그동안 변한 것이 너무도 많아, 짧고도 긴 세월을 실감하곤 합니다. 1978년 5월 26일 네 명의 여자 프로골퍼가 탄생할 당시 우리나라 골프무대, 특히 여자 프로무대는 글자 그대로 '우물 안 개구리'였습니다. 하지만 세계로 이어진 부단한 도전이 있었기에, 이제 KLPGA는 명실공히 '아시아 골프의 허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우리 여자 프로골프가 이렇게 큰 변화와 성장을 이어오는 동안에도 결코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땀과 열정으로 스스로 기량을 닦은 선수들의 도전정신이었습니다. 40년 전 KLPGA 제1세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선수들은 열악한 환경을 딛고 일어나 국내외 무대를 누볐으며, 그렇게 4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세계인의 탄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은 그런 선수들을 키워내고 지원하기 위한 KLPGA의 노력이었습니다. KLPGA는 선수들이 대내외의 주목을 받고 큰 박수를 받을 때 항상 묵묵히 협회의 창립 목적을 지키며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이 더욱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밤새 사무실을 지키고 함께 필드를 누볐습니다.

1978년 8월 한국프로골프협회 내에 여자프로부를 신설하여 초대 부장으로 일하던 시절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1988년 12월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취임하여 당시 집행부와 미래를 꿈꾸던 때를 가슴에 새깁니다.

이 역사서는 바로 변화를 거듭한 KLPGA의 역사,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는 KLPGA의 정신을 담은 값진 기록입니다. KLPGA를 아끼고 빛내주신 선수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임직원들과 회원에게 이 책을 헌정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초대 회장 김 성 희



발 간 사

40년 부단한 도전의 이야기,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

KLPGA 창립 40주년을 맞아 지난 역사를 한 권의 책으로 남긴다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필드 위와 필드 밖에서,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협회 내부와 외부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은 수십 권의 역사서로도 다 담아내지 못할 것이란 생각이 드는 까닭입니다.

몸에다 클럽을 맞추는 게 아니라 클럽에 몸을 맞추던 그 시절, 시합 때 스파이크가 없어 빌려서 신고 나가던 그 40년 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래도 KLPGA 선수들은 하루에 연습장에서 1,000개 이상씩 공을 치며 새로운 미래에 도전했고, 그 도전을 후배들이 기꺼이 계속해주었습니다. 이 역사서는 그런 도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KLPGA는 이제 우수한 우리 선수들이 국내외에서 더욱 우수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아시아 등 세계 각국의 선수들을 국내로 오게 하여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우리의 과제입니다.

선수들의 아름다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한국 여자 프로골프가 40년을 넘어 50년, 100년의 아름다운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은 KLPGA는 기존 아시아 지역 진출을 강화하고 세계 각국과의 교류 확대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아시아 골프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No.1 투어'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 사회 전반에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골프 꿈나무와 골프 산업 발전을 이끄는 데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 의지를 이 40년사에 담으며, 그동안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40년 역사 곳곳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은 동료 선수들과 모든 회원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함께 기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 춘 자

축 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의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입니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의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골프 발전을 위해 애쓰신 협회 관계자분들과 대회 후원사 관계자 분들 및 선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978년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의 창립 이후 우리 여자골프는 수많은 세계적인 선수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특히, 20년 전 아이엠에프(IMF) 외환위기로 고통 받던 시절에 박세리 선수는 맨발 투혼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국민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116년 만에 골프종목이 부활한 지난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는 박인비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며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알렸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이 골프를 통해 진한 감동의 눈물과 기쁨의 환희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대회에서의 우승은 선수 개인과 협회의 영광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골프 저변을 확대하고 골프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등 파급효과가 큰 만큼 앞으로의 협회의 활약을 더욱 기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우리나라 골프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창립 40주년을 축하드리며,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가 선수들과 함께 밝은 한국 여자골프의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대한골프협회 회장

허광수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사사(社史)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초 한국 여자 프로골프 선수들의 우승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사사(社史)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김상열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한국 여자 프로골프를 사랑하시는 골프애호가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한국 여자 프로골프는 1978년 4명의 프로선수가 탄생한 이래 초창기 선배들이 개척해 놓은 길을 발판 삼아 미국 LPGA · 일본 JLPGA 투어와 함께 세계 3대 골프 투어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여자 프로골프의 활성화로 이어져 현재 회원 수 2,500여 명의 규모로 성장하였고, 정규 리그를 뒷받침해 주는 3개 투어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국내 골프 대중화에도 일조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협회 창립 40년의 발자취를 집대성한 기념집이 협회의 발전적 이정표가 되고,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확대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대한민국의 골프계를 이끌어갈 주니어골퍼 양성에도 깊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40주년 기념 사사』 발간을 축하드리며, 한국 골프 역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프로골프협회 회장

양휘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탄생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78년, 우리나라에서 여자 프로골프 선수가 처음으로 탄생한 이후 어느덧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KLPGA와 한국프로골프협회(KPGA)는 초창기 동고동락하며 한국 프로골프의 발전을 모색했기에 남다른 감회로 다가옵니다. 지난 40년의 세월 동안 KLPGA는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 속에 세계 골프를 주도하는 최고의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여자골프 세계 랭킹 10위 이내에 절반 이상이 한국 선수일 정도로 한국 여자골프는 세계가 인정하는 골프 강국입니다. USLPGA 투어에서 한국 선수들은 이미 100승을 넘었고, 200승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JLPGA 투어에서도 멋진 실력과 인성으로 일본 열도를 흔들며 골프를 통한 신한류(新韓流)에도 앞장서는 모습입니다. 특히 USLPGA 투어 25승의 박세리 선수가 1998년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할 당시 선보인 '맨발의 투혼 샷'은 외환위기 속에 시름에 빠진 국민에게 새 희망을 안겨준 멋진 장면으로 기억됩니다. 또한 116년 만에 부활한 '2016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골프 종목에서 박인비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며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여자골프의 우수성을 증명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골프를 시작한 '세리키즈'와 '인비키즈'는 골프 강국의 이미지를 지속시킬 것이며 그들의 롤모델을 넘어서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KLPGA는 2015년부터 매년 30개 이상의 대회를 개최하면서 국내 투어 내실 강화에도 힘 쏟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스타 선수를 배출하면서 KLPGA가 '세계 No.1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는 모습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KPGA가 더욱 더 분발해야 하는 자극제가 되고 있습니다. KPGA와 KLPGA는 태생에서부터 같은 뿌리였던 만큼 앞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세계 중심으로 발돋움한 KLPGA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지난 40년을 이끌어 오신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 회장

박정호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전국 회원사 골프장 대표자의 마음을 모아 뜨거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우리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전국 회원사 골프장 대표자의 마음을 모아 뜨거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건대 우리나라 여자골프는 1988년 故 구옥희 프로의 첫 우승을 시작으로 눈부신 발전과 그 명성을 세계에 떨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가 배출한 세계적인 골프선수들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유무형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업그레이드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기업인들이 없을 만큼 여자프로 선수들의 활약은 단연 빛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골프투어를 호령하고 있는 오늘이 있기까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1등이 세계 1등이 되는 기적을 매년 볼 수 있는 것은 큰 즐거움입니다. 이는 그동안 선수 자신이 피나는 노력과 함께 소속회원인 선수들이 활동하는 무대를 넓히는데 열정을 다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의 각고의 노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故 구옥희 프로, 박세리 프로, 김미현 프로, 박인비 프로, 박성현 프로… 빛나는 우승트로피가 없어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불굴의 투혼으로 투어에 나서는 KLPGA 소속 선수 모두의 이름을 불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한국 여자 프로골프 선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 한국골프계가 더욱 풍요로워졌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스포츠로 도약했음을 언제나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노력에 힘입어 한국골프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 40년처럼 앞으로 40년, 오늘처럼 내일도, KLPGA가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KLPGA 창립 4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KLPGA가 세계로 도약하고 항상 승리와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사)한국골프연습장협회 회장

윤홍범

KLPGA 회원 여러분!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0년 전 KLPGA는 그야말로 작은 단체로 출발했지만 회원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이제는 세계를 호령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골프단체로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 성장세는 멈추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KLPGA의 새로운 대회를 유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회 수가 많은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해외에서 대회를 개최하기도 하며 외국선수들이 KLPGA 대회에 참가하러 한국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글로벌 넘버원'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맞는 KLPGA의 행보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을 모두 여러분께서 이뤄내셨고, 큰 축하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KLPGA는 사람으로 따지면 불혹(不惑)의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이를 빗대어 불혹이라고 합니다. KLPGA도 어떠한 난관도 이겨낼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을 거듭해서 세계에서 인정받고 우수한 선수를 많이 배출하는 글로벌 넘버원 KLPGA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내에는 실외 1,400여 개, 실내 약 6,600개 등 전국적으로 약 8,000여 개의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KLPGA와 (사)한국골프연습장협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상생의 관계로 묶여있기도 합니다. 프로골퍼가 되려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훌륭한 선수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KLPGA의 선수들이 투어생활을 마치고 골프연습장에서 근무하는데 있어서 우수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자 프로골프 100년의 앞날을 기약하며 다시 한 번 KLPGA 창립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e R&A 회장

Martin Slumbers

R&A를 대표해 KLPGA가 맞이한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40년간 한국 여자골프가 이룩해 온 발전은 놀랄 만큼 빠르고 컸으며, 한국은 의심할 여지 없는 세계 여자골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렇게 한국 여자골프가 성공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KLPGA가 자국 투어를 성공적으로 성장 및 발전시킨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 번 40주년을 맞은 KLPGA에 진심 어린 축하의 인사를 보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USGA 회장

Mark E. Newell

USGA를 대표하여, KLPGA의 40주년을 축하하고, 그간 KLPGA가 골프라는 스포츠에 미친 큰 영향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영광입니다.

프로골프뿐만 아니라, 대학, 아마추어, 주니어 대회 및 투어의 증가 추세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다시 채택된 점 등을 미루어 봤을 때, 최근 여자골프는 세계적으로 정점에 올라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듯 세계 여자골프가 큰 성장을 이룩하는 데에는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배출해낸 한국과, 한국에서 어린 선수들이 골프를 접하고, 최고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한 KLPGA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USGA 역시 USGA 챔피언십에서 18명의 한국 선수들이 우승하며 KLPGA로부터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1998년 US여자오픈에서 우승을 달성하며 위대한 골퍼로 거듭난 박세리를 통해 영감을 얻은 이른바 '세리 키즈'들이 이후 USGA가 주관하는 대회 우승자 반열에 오른 선수들에 영감을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USGA 123년 역사상 같은 해에 다승을 기록한 3명의 선수가 모두 한국인이라는 것입니다. 펄신, 제니퍼 송을 비롯해 가장 최근인 2016년 US여자 주니어 챔피언십과 US여자 아마추어 오픈에서 우승한 성은정이 바로 그 3명입니다. 이렇게 항상 재능이 넘치는 한국 선수들이 USGA가 주관하는 대회에 출전해 그 명성을 격상시켜준 덕분에 USGA 역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KLPGA의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전 세계의 선수들에게 영감과 훌륭한 골프 서비스를 지속해 나가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PGA 투어 커미셔너

Jay Monahan

PGA 투어를 대표해 KLPGA의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날까지 성취해온 KLPGA의 한결 같은 탁월함은 세계 각지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투어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KLPGA의 모습은 우리 PGA에서도 배우고 공유하고 싶은, 존경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실력을 지니고 여자골프의 많은 메이저대회에서 우승을 기록한 한국 선수들의 명단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1978년, 황무지 같았던 한국 땅에서 골프를 정착시키고 지금까지 발전을 이룩한 것은 더욱 신기할 따름입니다.
"작은 공이 있던 곳에 씨앗을 심고 새싹을 틔워 지금은 큰 나무가 되었다"는 KLPGA의 홈페이지에 있는 역사에 대한 문구를 보고 가슴을 에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KLPGA의 임직원, 스폰서, 선수 및 팬 여러분,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세계적인 선수가 탄생하고 협회가 만들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정성이 있었음을 항상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 번 KLPGA의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PGA와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나가 성공과 명성을 함께 오래도록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USLPGA 커미셔너

Michael Whan

KLPGA의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40년간의 비약적인 성장을 통해 KLPGA는 여성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세계적인 선수들을 배출해낸 점은 매우 경이로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KLPGA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여성들의 삶에 큰 영향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USLPGA가 세계 여자골퍼들을 위해 기회를 확장하며 함께 성장해 온 KLPGA를 파트너이자 친구라고 할 수 있음에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40주년을 맞으며 역사상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KLPGA에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하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사단법인
일본여자프로골프협회 회장

고바야시 히로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의 모든 분들,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78년 4명의 한국 여자 프로골퍼가 탄생해 선대 프로들이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협회의 주춧돌을 만들었고, 시대가 흐르면서 많은 노력과 개혁을 통해 오늘날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본 투어에서는 많은 한국 선수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1983년 처음 일본에 와서 일본여자프로골프협회의 회원이 된 것은 한명현 선수입니다. 그리고 같은 제1기생 구옥희 선수가 일본에 와서 같은 해 9월 프로 테스트에 합격, 84년부터 투어에 참가해 85년에는 기분 레이디스 오픈에서 역전 우승을 일궈내며 한국인 선수로는 처음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5년 후의 2010년. 안선주 선수가 일본 투어에서 처음으로 상금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34년의 시간 동안 JLPGA 투어에 한국인 선수가 적어낸 승수는 206승을 넘어섰습니다. 단지 기술이 뛰어난 것뿐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선수는 일본어를 적극적으로 마스터하는 등 환경에 적응해 열심히 노력해온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본인 선수도 큰 자극을 받아 절차탁마 해왔습니다.

현재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의 대회 수는 30개를 넘었고 골프 팬이 많아져 KLPGA 투어가 인기 있는 국민 스포츠가 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KLPGA가 발전해나갈 것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LET 회장

Mark Lichtenhein

KLPGA의 40주년을 축하합니다.

KLPGA가 창립된 지 40주년을 맞은 것을 여자 유럽피언 투어의 모두를 대표해 진심 어린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KLPGA는 2016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박인비를 필두로 세계를 선도하는 프로골프 투어에서 활약하는 최고의 선수들을 배출하며 그 가치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2018년은 신기하게도 KLPGA뿐만 아니라 여자 유럽피언 투어 역시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선수들이 달성한 환상적인 결과물을 되돌아보며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그동안 공동주관 대회, 메이저대회, 그리고 올림픽 등 여러 기회를 통해 KLPGA와 함께 일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KLPGA와 끈끈한 우호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여자 유럽피언 투어의 모든 선수들과 임직원은 지난 40년 동안, 한국 여자 프로골프를 성장시키고, 한국의 수많은 여성 프로골퍼들의 열정에 생명을 불어 넣은 KLPGA의 정성과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40주년을 맞은 KLPGA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ALPG 회장

Karen Lunn

ALPG를 대표하여 KLPGA의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KLPGA는 지난 40년간 발전해 오며 전 세계 여자골프 투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존중받을 만한 투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KLPGA의 임직원과 회원 모두에게 무한한 영광이 있길 바라며, 다시 한 번 40주년을 맞은 KLPGA에 진심 어린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CONTENTS

기념사 02
발간사 04
축사 08
이미지 화보 16

ROUND I
KLPGA 40 YEARS HISTORY 22

PART 01 창립과 성장(1978~1999) 24
▸ 아름다운 티샷

1. 한국 여자 프로골프의 여명, 그리고 KLPGA의 서막 25
2. 여자 프로골프의 도약을 알리는 이름, KLPGA의 탄생 32
3. 대한민국 여자골프와 KLPGA, 세계를 보다 37

PART 02 세계화와 도약(2000~2007) 42
▸ 선수와 더불어 필드로, 국민과 더불어 세계로

1. 대한민국 여자골퍼들과 함께 여는 글로벌 21세기 43
2. KLPGA, 국민과 선수와 세계를 향하다 50
3.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 선수층 확대와 대회 확충 54

PART 03 새로운 도전과 비상(2008~2018) 60
▸ '글로벌 No.1 투어'와 함께 아시아의 골프 허브로

1. '세계 3대 투어'를 향해 선수들과 함께 뛰다 61
2. 대한민국과 세계에 전하는 KLPGA의 메시지 69
"Do Dream With KLPGA!"
3. 창립 40주년 – 골프 역사를 새로 쓰며 83
'아시아의 골프 허브'로 가는 길

ROUND II
KLPGA 40 ISSUES 92

1.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프로골퍼 탄생 94
2. 제1회 여자프로골프 선수권대회 98
3. 일본 프로무대 진출 100
4. 구옥희, JLPGA와 USLPGA 최초 우승 103
5. 남자프로골프협회 여자프로부에서 분리 106
6. 문화체육부 사단법인 등록 및 체제 정비 108
7. 국내 최초의 국제대회 서울여자오픈 110
8. '별들의 전쟁', 제주 삼성월드 챔피언십 112
9. 데뷔 후 최단 기간 우승의 기록 114
10. 박세리의 US여자오픈 극적 우승 116
11. 한일 여자 프로골프 국가대항전 120
12. 스타급 선수의 산실, 드림투어 124
13. 외국 국적자 대상 특별회원제도 도입과 최초의 외국인 회원 126
14. CNN '세계 골프계의 10대 영웅' 선정 128
15. 구옥희, 고우순과 JLPGA 메이저대회 시즌 3승 합작 달성 130
16. '명예의 전당' 제도 신설과 제1호 헌액 132
17. 최초의 평양오픈 134
18. 새 로고와 CI 136
19. KLPGA 첫 중국 정규대회 138
20. LPGA와 KLPGA '명예의 전당' 동시 헌액 140
21.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 공동 대회 국내 첫 개최 142
22. KLPGA 위너스클럽 신설 144
23. 신지애, 세계 랭킹 1위 등극 146
24. 한국계 통산 USLPGA 투어 100승 달성 148
25. KLPGA 재능기부 프로그램 150
26. 메이저대회 3연승과 한국인 최초 USLPGA '올해의 선수상' 수상 152
27. 로고송 공개와 함께 부르기 캠페인 154
28. 첨단장비 도입과 경기 수준 향상 156
29. 이보미, JLPGA 사상 상금 최고액 달성 158
30. 한국, 일본, 호주, 유럽 4개 투어 대항전 '더퀸즈' 창설 160
31. 베트남 첫 윈터투어 개최 162
32. 인터내셔널 퀄리파잉 토너먼트 개최 164
33. 박인비, 최초의 커리어 그랜드슬램과 세계 최초의 그랜드슬램 달성 166
34. 미국 메이저대회 최소타 기록 경신, 신인상 및 평균 최저타수상 동시 수상 168
35. KLPGA 단일 시즌 최다 상금 기록 경신 및 USLPGA 3관왕 170
36. 한화 클래식, 메이저대회로 승격 172
37. 최혜진, 18년 만에 KLPGA 아마추어 시즌 2승 달성 174
38. 이정은6, 18홀 12언더파 60타로 최저타 기록 경신 176
39. 총상금 10억 원 규모의 드림투어, 그리고 챔피언스투어 178
40. KLPGA 공식 캐릭터 케이와 버디 180

ROUND III
KLPGA 12 STARS INTERVIEW 182

부록 224


Great



우리가 만든 희망

모든 이들이 우러러 보는 높고 푸른 나무. 그 나무도 처음에는 작고 여린 씨앗에 불과했다. 지금은 크고 푸른 나무로 자라나 세계적인 위상을 펼치고 있는 한국 여자골프 역시 처음에는 척박한 땅에 심어진 작은 씨앗이었다. 한국에서 골프라는 스포츠가, 여자골프는 더욱이 대중화 되지 않았던 시절 그 척박한 땅에 씨앗을 심고 싹을 틔운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날 KLPGA라는 나무는 무성히 자라 많은 한국 여자골퍼들을 지켜주고 키워주는 든든한 나무가 되어주고 있다.



Amazing

멈추지 않는 감동

쉽지만은 않은 길이었다. 멋지게 페어웨이를 향해 샷을 날렸건만 해저드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날도 많았다. 그러나 헤어나기 힘든 모래언덕보다도,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보다도 무서운 장애물은 '그냥 이대로 멈춰버릴까?', '또 실패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 나 자신이었다. 두려움을 떨치고 자신감과 용기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 눈 앞의 장애물은 조그마해지고 사방을 둘러싼 장애물 사이로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날개를 달고 푸른 하늘 위로 높이 더 높이, 우리는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





Challenge

끝나지 않은 도전

우리의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겨우 하나의 이야기를 끝냈을 뿐. 우리는 다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시작, 그리고 끝. 두 개의 단어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삶의 단계들이 숨어 있다. 서투른 시작과 뜨거운 열정의 시기를 거쳐 시련의 언덕을 넘어온 마흔 살 KLPGA는 아직 마주쳐야 할 날이 많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우리들의 끝을 향해서... KLPGA는 오늘도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골프 허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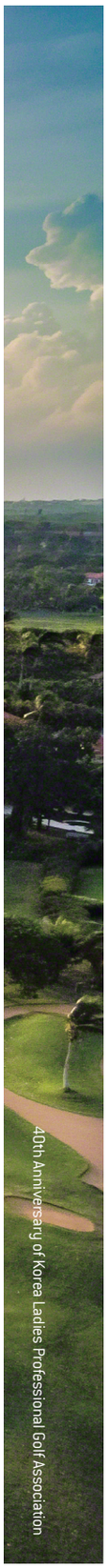
ROUND I

KLPGA 40 Years History

PART 01
창립과 성장 1978~1999
아름다운 티샷

PART 02
세계화와 도약 2000~2007
선수와 더불어 필드로, 국민과 더불어 세계로

PART 03
새로운 도전과 비상 2008~2018
'글로벌 No.1 투어'와 함께 아시아의 골프 허브로



PART 01 창립과 성장

아름다운 티샷

1978~1999



01

한국 여자 프로골프의 여명, 그리고 KLPGA의 서막

골프 역사를 새로 쓰는 도전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프로골퍼 탄생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orea Ladies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 KLPGA)의 아름다운 티샷은 1978년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후 40년 동안 KLPGA는 골프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KLPGA는 4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전 세계 골프팬의 탄성을 이끌어낸 많은 세계적 선수를 배출하며 대한민국 골프의 위상을 드높이고 국위를 선양했다. 그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아시아 골프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KLPGA의 역사는 곧 대한민국 골프의 성장과 도약을 이끄는 여정이었다. 그리고 그 여정의 가슴 설레는 첫걸음은 1978년 5월 25일에 시작되었다.

40년 전 그날, 경기도 양주군 로얄 컨트리클럽에서 여성 골퍼 13명이 프로 테스트를 받기 위해 필드에 섰다. 이틀 동안의 테스트를 마친 1978년 5월 26일, 이 테스트에 참가한 선수 가운데 강춘자, 故 한명현, 故 구옥희, 故 안종현 4명이 마침내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프로골퍼'라는 영예로운 이름을 얻었다.

이 대회는 한국프로골프협회(Korea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 KPGA)가 주관하는 제9회 프로후원경기였다. 여자 프로 테스트는 남자 대회가 펼쳐지는 현장의 한 켠에서 진행되어, 이때까지도 여자골프는 우리나라 골프 역사의 변방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1978년 동기생인 한명현과 구옥희



있었다.

한국 골프가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선 것은 1929년 오늘날 어린이대공원 자리에 있던 군자리골프장이 개장되면서부터였다. 이 골프장은 원래 왕실의 능이 들어설 자리였던 곳을 영친왕이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공사비까지 하사하여 만들게 된 것이었다. 1924년 경성골프구락부가 조직되면서 골프가 일반에 보급되기 시작했으며, 1937년에는 조선골프연맹이 결성되었다. 1941년에는 한국 최초의 프로골퍼 故 연덕춘이 일본에서 열린 전 일본오픈선수권에서 우승하며, 골프를 통해 우리 민족의 기개를 드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광복, 한국전쟁 등 정치사회적 환경과 맞물려 아직 골프의 대중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1958년 6월과 9월 서울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1회 한국프로골프 선수권대회와 한국오픈골프 선수권대회는 한국 골프 역사의 전환점이었다. 이후 1965년 9월 한국골프협회가 창립되었으며, 1968년 11월에는 한국 프로골프 발전을 위해 한국프로골프협회가 창립되어 처음으로 프로 테스트 선발전을 열고 프로후원회를 결성했다.

이 같은 주관 단체가 연이어 결성되면서 1970년대 들어와 서서히 골프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골프장을 찾는 여성들의 수도 하나둘 늘기 시작했다. 1972년 한국골프협회가 서울 컨트리클럽에서 아마추어부녀골프 선수권대회를 처음 개최하고자 한 것도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갈 길은 멀었다. 당시 관련 부처인 문교부의 승인을 얻지 못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골프대회로 기획된 제1회 아마추어부녀골프 선수권대회는 결국 개최가 무산되고 말았다. 문교부의 불승인 사유는 "국내 여건 상 여성 경기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었고, 결국 이 대회는 4년 후인 1976년 10월에야 열릴 수 있었다.

이처럼 먼 길을 거쳐 마침내 우리나라 여자골프 역사는 물론 골프 역사 전체를 새로 쓰는 도전이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프로골퍼'가 탄생한 1978년 5월 26일이 바로 그 도전의 첫 페이지였다. 남자 대회가 펼쳐지는 현장의 한 쪽에서 시작된 첫걸음이었지만, 여자골프가 더 이상 대한민국 골프와 프로골프 역사의 변방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임을 널리 알리는 큰 걸음이었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는 5월 26일 이 날을 창립일로 기념하며 40년 장구한 역사와 부단한 도전의 새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프로골프협회 여자프로부 신설과 최초의 여자 프로골프 선수권대회 개최

제1세대 여자 프로골퍼 그룹이 완성된 것은 1978년 5월 26일로부터 70여 일 후였다. 한국프로골프협회가 8월 9일부터 이틀 동안 오산 컨트리클럽에서 프로 테스트를 열었으며, 이날 김성희, 이귀남, 고용학, 배성순 등 4명이 여자 프로 테스트를 추가로 통과했다. 이로써 한국프로골프협회 회원 80명 중 여자 프로골퍼는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선수 저변 확대를 통해 자신감

제1기 한국 여자프로부 선수들(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안종현, 한명현, 강춘자, 구옥희)



을 확인한 프로골프 관계자들은 1978년 8월 9일 한국프로골프협회 내에 여자프로부를 신설했다. 여자프로부는 같은 해 9월 4일 첫 이사회를 열고 김성희를 초대 여자프로부 부장으로 선출했다.

8명의 선수층 확보는 최초의 독립 골프대회 개최로 이어졌다. 한국프로골프협회는 1978년 9월 20일 남서울 컨트리클럽에서 제21회 프로골프 선수권대회를 겸해 제1회 여자프로골프 선수권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서는 한명현이 우승을, 김성희가 준우승을, 강춘자, 이귀남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여전히 척박한 여자 프로골프 시장에서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는 대회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가뜩이나 열악한 국내 골프 환경 속에서 남자 프로대회에 '셋방살이'하듯이 참가해야 했던 현실은 쉽게 개선되지 않았다. 남자 프로대회의 일부로 치러진 여자부 대회는 상금과 규모 면에서 남자대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그나마 1년에 출전할 수 있는 대회를 모두 합

1978 제1회 여자프로골프 선수권대회, 우승자 한명현



쳐도 10개가 되지 못했다.
이처럼 척박한 현실 속에서 여자 프로골퍼들은 새로운 무대를 갈망하기에 이르렀다. 골프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열정이 너무 컸던 것이다. 대한민국 여자 프로골퍼들은 세계로 눈을 돌렸다.

세계를 향한 열정과 도전
일본, 미국 진출과 한국 골프의 새 역사

1981년 3월, 강춘자, 구옥희, 한명현, 배성순 등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들은 재일동포 홍두창 씨의 도움으로 1981년과 1982년에 걸쳐 초청 선수로 대회에 참가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를 향한 도전이 시작되었다. 구옥희, 강춘자, 안종현, 배성순 등 4명은 1982년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사흘 동안 일본 도쿄 요미우리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10회 세계여자골프 선수권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했다. 우리 선수들은 쟁쟁한 일본 프로골퍼들 틈에서 담대하고 대등한 경기를 펼쳤고, 구옥희가 첫날 공동 6위를 기록하는 등 한국 여자골프의 무한한 가능성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리고 초청선수 자격으로 일본 내 대회에 참가하고 있던 한명현이 기다리던 소식을 들려주었다. 1983년 4월 일본여자프로골프협회(JLPGA) 프로 테스트를 통과한 한명현은 3개월 동안의 현지 적응기간에 두 차례의 월례경기를 통과했으며, 1983년 7월 26일 마침내 일본 프로자격증을 획득했다. 우리 여자 프로골퍼가 최초로 해외 프로선수 자격을 얻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으며 같은 해 가을, 구옥희가 프로 테스트를 통과했다. 뒤이어 1984년에는 강춘자와 정길자가 프로 테스트를 통과하며 본격으로 일본 투어 활동을 시작했다.
일본 무대에서 특히 구옥희의 활약은 눈부셨다. 구옥희는 1984년 3월 7일 비공식대회로 치러진 미즈노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마침내 1985년 JLPGA 투어 기분 레이디스 오픈에서 우승했다. 일본 프로골프대회에서

한국 여자골퍼가 처음으로 우승한 이 기록은, 여자골프를 넘어 우리나라 골프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로 남았다. 이어 구옥희는 토오하토 레이디스 오픈, 토오호쿠 퀸즈오픈 등 JLPGA 투어 3개 대회에서 우승하며 한국과 일본 골프계를 놀라게 했다. 특히 JLPGA 대회 2주 연속 우승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일본 여자 프로골프의 혜성처럼 등장한 뒤 더욱 큰 세계로 눈을 돌렸다.

1984년 일본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USLPGA) 투어 대회에 일본 프로 자격으로 참가하여 3위를 기록하며 더욱 큰 꿈을 가슴에 품은 구옥희는 마침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 1985년 10월 18일 미국 텍사스주 슈가랜드 스위트워터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USLPGA 프로 테스트에서 당당히 합격했다. 동양인으로서는 일본인 오카모토 아야코(岡本 綾子)에 이어 두 번째였다.

1987년 10월 4일 토카이 클래식 우승 등으로 일본 내 입지를 다져가던 구옥희는 1988년 3월 28일, JLPGA에 이어

1982 일본 국제대회 첫 출전 당시 강춘자(왼쪽 첫 번째), 구옥희(오른쪽 두 번째), 한명현(오른쪽 끝)



1983 일본 프로 테스트를 합격한 한명현



1985년 JLPGA 기분 레이디스 오픈에서 우승한 구옥희



USLPGA에서 새로운 역사를 썼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문밸리 골프 코스에서 열린 스탠다드 레지스터 더 콰이즈 클래식에서 한국인 최초로 USLPGA 투어 우승컵을 들어 올린 것이다.

1978년 5월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프로골퍼'가 탄생한 이후 열정과 도전의 무대를 갈망했던 여자 프로골퍼들에게 우리나라 무대는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우리 선수들은 그 무대를 스스로 개척해나갔고, 그곳은 한국을 넘어 일본, 그리고 세계 골프시장의 중심인 미국이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는 일 - 그것이 초창기 KLPGA와 우리 여자 프로골퍼들의 선택이었다.

02

여자 프로골프의 도약을 알리는 이름, KLPGA의 탄생

KPGA로부터의 독립과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창립

1978년 8월 한국프로골프협회 내에 여자프로부가 신설된 이후 협회 내에서는 여자 프로골프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여기에는 반쪽짜리 대회를 감내하고 있는 여자 프로골퍼들의 지속적인 건의가 밑거름되었으며, 특히 김성희 여자프로부장이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해갔다.

1980년대 들어와 여자 프로골프 발전을 위한 시급한 방안으로 논의된 사항은 여자프로부 조직 강화, 선수들의 해외 투어 일정 및 경기 기록을 전담하는 직원 선발 등이었다. 남자 프로대회 위주의 대회 운영 방식 개선, 해외 훈련 지원 강화 등도 중요한 대책이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발전 방안은 여자 프로골프 전담 기구의 독립이었다. 해외 진출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여자 프로골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아울러 여자 프로골프 발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를 논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주체는 바로 여자 프로골프계 자체여야 한다는 인식도 점차 커지고 있었다. 여자 프로골퍼들은 1982년, 총 6개 골프장의 숙녀회와 유대관계를 맺고 총 1,000만 원의 기금을 마련하는 등 여자 프로골프 전담 기구의 독립을 향한 의지를 모아갔다. 여자 프로골퍼들은 1978년 8명으로 시작하여 1988년 10년 만에 약 50명으로 늘어났으며, 증가세가 이어질수록 이 같은 독립의 의지에 다함께 힘을 보탰다.

구옥희가 한국인 최초로 USLPGA에서 우승했다는 소식을 접한 1988년, 한국 여자 프로골프의 오랜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되어갔다.

1988년 2월 2일, 한국프로골프협회 여자프로부는 별도의 독립기구로 분리,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새 사무실을 마련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탄생의 서막을 연 것이다.

이어 창립을 위한 제반 준비 작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1988년 11월 14일 한국프로골프협회는 이사회를 열고 KLPGA 창립을 공식 의결했다. 아울러 창립에 필요한 자금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침내 1988년 12월 5일, 서울타워호텔에서 KLPGA 창립총회가 열렸다. 이날 김성희 초대 회장과 한명현 부회장, 강춘자 전무이사 등 임원진이 선출되어, KLPGA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국내 최초의 국제대회 창설과 협회 성장 기반 강화

KLPGA 창립과 더불어 각종 대회도 활성화되었다. “여자 프로골프 발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를 논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주체는 바로 여자

1989 제1회 서산여자오픈, 우승자 원재숙(당시 아마추어)



1986 동해오픈



프로골프계 자체여야 한다"는 인식이 운영 방식 개선과 대회 활성화로 이어지는 과정이었다.

KLPGA는 특히 조속한 협회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여자프로대회 창설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었다. 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1989년 7월 6일부터 사흘 동안 제1회 서산여자오픈을 신설, 개최하는 데 성공했다. 이 대회는 재일교포 사업가 서휘 씨의 후원으로 창설한 것으로서, 총상금이 당시 단일 경기로는 최대 규모로 열렸다. 이로써 KLPGA는 서산여자오픈, 엘레쎄오픈, 한국여자오픈 등의 대회를 주관 혹은 주최하게 되었다.

여자프로대회 창설을 주요 사업으로 삼은 KLPGA의 노력은 마침내 국내 최초의 국제대회 창설로 이어졌다. 1990년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사흘간 경기도 고양 뉴코리아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1회 서울여자오픈골프대회였다. 이 대회에는 미국에서 활약 중인

1990 제4회 한국여자오픈, 우승자 김미회



1993 제1회 휠라여자오픈, 우승자 송채은(당시 아마추어)



1990 제1회 서울여자오픈골프대회 전야제



구옥희, 일본에서 활약 중인 김애숙, 이영미 등 우리나라를 비롯해 모두 9개국의 여성 프로골퍼가 참가하여 큰 관심을 얻었다. 아울러 총상금 30만 달러의 이 대회는 1993년 동일레나운 클래식과 FILA오픈 등 각종 국내 대회 총상금 1억 원 시대를 열도록 하는 촉매제가 되었으며, 이후 고우순, 이오순, 정길자, 김순미 등 걸출한 KLPGA 스타들의 활약이 이어졌다.

대외적으로 대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독립기구로서 독자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도 주력했다. 1991년 7월 1일에는 창립 3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첫 기록모음집을 제작하고, 같은 해에 경기분과위원회를 신설했으며, 1992년에는 경기 기록 부분 전산화를 시작했다. 특히 1991년 12월 14일에는 문화체육부에 정식으로 사단법인 등록을 마침으로써 '사단법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로 자리매김했으며, 1992년 강남구 논현동에 새로운 사무실을 마련했다.

1994 제2회 동일레나운 클래식, 우승자 이영미



1994 중경하티스트배 한국여자프로골프 선수권대회, 우승자 고우순



1990 제1회 중경배 한국여자프로골프 선수권대회



이처럼 착실하게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가던 KLPGA는 나눔활동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1990년 12월 30일 KLPGA는 경기도 용인 플라자 컨트리 클럽에서 불우이웃돕기 연말 자선골프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 대회에는 여자 프로골퍼 36명과 여자 아마추어골퍼 80명 등 116명이 참가하여 프로와 아마추어가 함께 단체 및 개인전을 벌였으며, 대회 수익금 525만 원 전액을 한국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 이 같은 나눔의 정신은 매년 이어져, 1993년에는 불우이웃돕기 보건사회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995 제1회 크리스찬디올 여자오픈, 우승자 이오순



1992 제3회 KLPGA 초청 여자프로 자선골프대회



03

대한민국 여자골프와 KLPGA, **세계를 보다**

박세리와 김미현, 한국 여자골프의 새 시대를 열다

일본과 미국에서 씨앗을 뿌린 한국 여자 프로골프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먼저 1994년 1월 22일 원재숙이 말레이시아 페낭의 푸켓 잼블골프클럽에서 열린 아시아여자서킷골프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우승하며 '한국 여자골프 신화'의 신호탄을 쏘았다. 1993년 JLPGA 투어 신인왕을 수상한 고우순은 미국과 일본의 공동 주관 대회인 '도레이 재팬퀸스컵'에서 1994년과 1995년 연이어 우승하며 한국 여자 프로골프를 세계에 알렸다. 1995년 10월 12일에는 USLPGA 공식 투어 대회가 사상 처음으로 국내에서 열려, 세계를 향한 우리나라 여자 프로골프의 자신감을 더해주었다. 이 대회는 제주도 안덕면에 위치한 파라다이스 골프클럽에서 삼성월드 챔피언십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가 국제적 골프 무대로 거듭났음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박세리와 김미현이 등장했다. 이 두 선수는 1996년 4월 동시에 KLPGA에 입회한 후 한국 여자 프로골프에 한 획을 그으며 국내무대를 평정해 나갔다. 박세리는 1992년 KLPGA 투어 라일앤스코트 여자오픈 골프선수권에서 아마추어로서 첫 승을 올렸고, 1995년 KLPGA 투어 12개 대회에서 4승을 기록했으며, 1996년 KLPGA 투어 상금왕을 차지했다. 그리고 더 큰 세상을 향한 도전에 나선 박세리는 미국에 진출한 첫 해인 1998년 5월 17일 USLPGA 투어 메이저대회인 맥도날드 LPGA 챔

1995 USLPGA 삼성월드 챔피언십, 우승자 안니카 소렌스탐



피언십에서 첫 승을 올렸다. 또 같은 해 7월 7일, 맥도날드 LPGA 챔피언십 승리의 여세를 몰아 USLPGA 투어 메이저대회 가운데서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US여자오픈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20홀 연장이라는 기록적인 승부가 이어진 US여자오픈 마지막 홀에서 박세리는 맨발로 연못에 들어가 비탈에 걸린 공을 쳐 내는 투혼을 보여주었고, 당시 IMF 외환위기로 고통 받던 국민들은 그 장면을 보며 크나큰 용기를 얻었다. 박세리는 1998년에만 USLPGA 투어 4승을 기록, 같은 해 12월 8일 다른 선수들과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며 우리나라 선수 최초로 USLPGA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어 1년 후인 1999년 11월 15일, 김미현이 USLPGA 신인상을 수상하여 2년 연속 한국 여자골퍼가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무대에 섰다. 김미현은 1994년 아마추어 자격으로 KLPGA 투어 톰보이 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1승을 따내고, 1995년에

1993 제2회 톰보이 여자오픈, 우승자 박세리(당시 아마추어)



1995 크리스찬디올 여자오픈, 우승자 박세리(당시 아마추어)



도 KLPGA 메이저대회인 퍼시스배 제9회 한국여자오픈에서 역시 아마추어 자격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1996년 4월 KLPGA에 입회, 같은 해 6월 미도파오픈에서 우승하며 데뷔 후 최단 기간 우승(2개월 19일)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으며, 1998년까지 9승을 더 기록하여 박세리와 더불어 KLPGA 무대를 휩쓸었다. 그리고 1999년 USLPGA 투어에 진출하여 시즌 총 2승을 기록하고 신인상까지 받음으로써 USLPGA에 파란을 일으켰다. 박세리, 김미현의 활약은 그 자체가 대한민국 골프의 위상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아울러 1978년 최초의 여자 프로골퍼가 이 땅에 등장한지 20년 만에 이룩한 기적이자 신화였으며, 많은 후배들에게 세계무대에서 꿈을 펼치도록 독려하는 극적인 드라마였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골프를 사랑하게 만든 힘이 되었다. 정부에서는 이런 공적을 높이 평가해 1998년 11월 6일 박세리에게, 1999년 10월 25일 김미현에게 각각 대한민국체육훈장 맹호장을 시상했다.

1996 동운레나운 클래식, 우승자 박세리



1994 톰보이 여자오픈, 우승자 김미현(당시 아마추어)



대회 수준 제고와 경기력 향상을 이끌며 도약의 21세기를 마중하다

세계에서 우리 선수들이 맹활약하고 있는 가운데 KLPGA는 정일미, 김영, 박현순, 서아람 등이 이끌고 있는 국내 대회의 수준을 높여 세계적인 투어로 거듭나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회원들을 위한 시스템 혁신을 이어가는 한편 KLPGA의 위상 제고에도 주력했다.

1996년에는 협회 소식지를 창간하여 회원 간 소통 강화에 나섰으며, 1997년 4월 1일에는 국내 골프단체 중 처음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1998년 10월 1일에는 최초로 마케팅 대행사를 선정, 이후 대행사인 ISE로부터 5년간 100억 원의 대회 개최 수입을 보장받았다. 1999년 1월 1일에는 국내 대회의 수준을 제고하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드제를 도입했으며, 이로써 여자 프로골퍼들은 예선을 통과해야만 본 대회 출전 자격을 얻을

1997 제5회 휠라여자오픈, 우승자 김미현



1996 제2회 유공인비테이셔널, 우승자 김미현



수 있었다. 같은 해 2월 11일에는 연 1회 준회원 선발전을 신설, 이론 및 실기 평가를 통과한 선수에게 준회원 자격과 프로 테스트 응시 자격을 부여했다. 1999년 2월 1일 사무실을 서초구 서초동 동아타워로 이전하며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한 KLPGA는 같은 해 12월 4일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 교류 및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한일 여자 프로골프 국가대항전'을 창설했다. 제주 핀크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제1회 한일 대항전에는 김미현을 비롯해 펄신, 구옥희, 한희원, 이영미 등 해외파를 중심으로 12명의 한국 대표단이 꾸려졌다. 일본 측에서도 1999년 USLPGA 투어 2승을 올린 후쿠시마 아키코(福嶋 晃子) 등 상위 랭커들이 대거 참가했다. 대회 결과는 7승 2무 15패로 한국대표팀의 패배였다. 1990년 고우순을 시작으로 매년 최우수선수를 선정해 시상해온 KLPGA는 1999년부터 한국여자프로골프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1999년 12월 20일 서울 리츠칼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한국여자프로골프 대상 시상식에는 국내외 정상의 프로골퍼들과 스폰서, 골프장 관계자, 언론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박세리, 김미현의 활약으로 대변되는 1990년대를 함께 회고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21세기 대한민국 여자 프로골프의 새로운 도약을 마중했다.

1995 삼성카드배 한국여자프로골프 선수권대회, 우승자 박현순



1997 프로 테스트 응시자교육



1996 톰보이 여자오픈, 우승자 서아람



선수와 더불어 필드로, 국민과 더불어 세계로

2000~2007



01

대한민국 여자골퍼들과 **함께 여는 글로벌 21세기**

준회원들의 등용문 '드림투어' 창설과 선수 저변 확대

박세리와 김미현을 포함한 많은 우리나라 여자골퍼들이 국내외에서 멋진 경기를 보이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사이, 이제 골프는 더욱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국민스포츠'의 하나로 부상했다. 이 같은 현상은 선수층 확대 및 지원 강화, 대회 수준 및 경기력 제고, 골프 저변 확대 등에 관한 KLPGA의 사명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KLPGA는 우선 우수 프로골퍼를 발굴해 프로무대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새천년을 맞아 KLPGA는 여자 2부 투어인 '미사일 드림투어'

2000 드림투어 시드전



를 창설하고, 2000년 5월 8일 첫 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즌에 돌입했다. 드림투어는 KLPGA 소속 준회원과 정회원 중 정규투어 시드를 얻지 못한 선수, 당해 연도 프로 테스트 통과자가 참가할 수 있는 준프로대회로서, 총 5개 대회가 열린 2000년 첫해의 총상금은 1억 5,000만 원 규모였다.

이듬해인 2001년부터는 이전까지 연 2회였던 여자 프로골프 테스트를 연 1회로 축소하고, 오픈대회 출전권을 얻기 위한 아마추어들의 시드전을 폐지했다. 준회원들의 등용문인 드림투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이와 함께 준회원들이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정규투어 시드를 받을 수 있는 길도 넓혀 놓았다. 2000년 당시 오픈대회 출전을 원하는 아마추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드전은 골프장을 구하기 어려워 폐지한 형편이었다. 이에 따라 대회당 아마추어 출전 선수 8명 가운데 6명은 대한골프협회의 추천으로, 2명은 주관사 추천으로 출전권을 주도록 했다.

KLPGA는 또 준회원 선발 방식도 변경, 준회원 응시 자격을 만 17세 이상으로 하고, 준회원 선발전을 연 2회 개최하도록 규정했다. 준회원들에게는 드림

2003 드림투어 5차전, 우승자 박햇님



투어에서 평균타수 76타 이내를 기록하거나 상금랭킹 3위에 들면 이듬해 정규투어 시드권을 주도록 했다. 이밖에도 해외 진출 선수 가운데 전년도 국내 상금랭킹이 50위 이내일 경우 연 2회 국내 대회에 출전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듬해인 2002년부터는 국제 아마추어대회 우승자에 대한 프로 테스트 면제 폭을 확대했다. KLPGA는 그동안 우수 아마추어를 조기에 발굴한다는 목적으로 세계아마추어 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KLPGA 공식대회 등에서 우승한 개인에 한해 프로 테스트를 면제했지만 2002년부터는 이를 단체전 우승자 전원에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아마추어들의 오픈대회 출전 방법도 변경하여, 2002년부터는 상 · 하반기에 아마추어 시드전을 치러 성적순으로 시드를 준 뒤 오픈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처럼 여자골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KLPGA는 2001년 2월 사무실을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송석빌딩으로 이전하여 업무 환경을 개선했다.

2000 준회원 선발전



2001 준회원 선발 이론교육



'한국의 10대 일등상품',
'세계 골프계의 10대 영웅'

우리 선수들의 맹활약 속에 골프의 대중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재정경제부는 2000년 7월 1일자로 18홀 이상의 대중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완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각 대중골프장들이 일제히 그린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골프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소식도 있었다. 2001년 8월 삼성경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D램반도체와 초고속인터넷 등과 함께 우리나라 여자골프를 '한국의 10대 일등상품'으로 선정했다. 이 자료에는 한국 여자골프에 대해 '세계 여자골프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한국 낭자군단'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었다. 당시 한국 여자골프는 승수를 기준으로 세계점유율 15%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곧바로 우리 여자골퍼들은 여자골프가 '한국의 10대 일등상품'임을 확실히 입증했다.

2001년 9월 22일 한희원은 USLPGA

2004 아마추어 시드 순위전



투어 신인상을 확정지었으며, 이로써 USLPGA 신인상을 수상한 한국 선수는 1998년 박세리, 1999년 김미현에 이어 모두 3명이 되었다. 8일 후인 2001년 10월 1일에는 박세리가 USLPGA 투어 AFLAC 챔피언스에서 우승하며 시즌 5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이지희가 JLPGA 첫 승을 올리고 상금순위 10위로 시즌을 마쳐 데뷔 첫 해에 JLPGA 신인상을 획득했다.

여자골퍼 1세대의 파워도 여전했다. 구옥희는 2002년 9월 15일 JLPGA 선수권대회를 제패, 2주 연속 우승과 통산 21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일주일 전, 2년 만에 20번째 우승을 거둔 구옥희는 메이저대회인 이 대회 우승으로 JLPGA 메이저대회 3승째를 기록하게 되었다.

한일 여자 프로골프 대항전에서도 우리 선수들은 한층 성숙한 기량을 보이며, 1999년 대회 창설 이후 2년 연속 패배의 기록을 말끔히 설욕했다. 2002년 12월 7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 오사

1999 제1회 핀크스컵 한일전 전야제



카의 한나골프클럽에서 열린 한일 대항전에서 한국 대표팀은 14승 2무 8패로 첫 우승을 차지했다. 박세리, 김미현, 장정, 한희원 등 USLPGA 멤버 4명이 모두 8승을 수확, 미국 무대에서 드높였던 코리안 파워를 일본 그린에서도 재연했으며, 대회 MVP에는 박세리가 선정되었다.

한국 대표팀은 이듬해인 2003년 12월 6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 핀크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제4회 한일 대항전에서도 12승 4무 8패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주장을 맡은 구옥희와 대회 MVP로 선정된 고우순 등 노장들의 투혼이 특히 돋보인 경기였다.

2004년 열린 제5회 대회는 한국 여자골프의 우위를 입증하는 자리였다. 한국 대표팀은 12월 4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 시가현 오츠골프장에서 열린 한일 대항전에서 승리, 2년 연속 패배 뒤 3년 연속 우승의 저력을 과시했다.

한편 우리 여자골프의 수준이 이처럼 세계적인 수준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2002년 12월 미국 CNN과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의 인터넷판인 'cnnsi.com'이 한국 프로골퍼들을 '2002년 세계 골프계의 10대 영웅'으로 선정했다.

2002 마루한컵 한일전 우승 기념촬영



2002 마루한컵 한일전 공동 기자회견



2004 핀크스컵 한일전 우승, 한일 단체 기념촬영



02

KLPGA,
국민과 선수와 세계를 향하다

'명예의 전당' 신설과 '한국 골프의 명예'를 위한 각오

1978년 첫 여자 프로골퍼가 탄생한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상도 이어졌다. 그것은 곧 KLPGA를 밑거름 삼아 대한민국 골프가 매순간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순간이기도 했다.

이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KLPGA는 2004년부터 '한국여자프로골프 명예의 전당' 제도를 시행했다. '명예의 전당' 입회 조건은 10년 이상 국내외 정규투어에서 활동하며 메이저대회 우승, 시즌 최저타수상, 최우수선수상을 한 차례 이상 받아야 하는 등 KLPGA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입회 포인트 100점을 채운 선수였다. '명예의 전당'에 오르면 핸드프린트를 동판으로 제작해 영구 보존하고, KLPGA 명예대사로 임명되며, 동시에 KLPGA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 영구 출전권이 주어진다.

'명예의 전당' 제도 도입 원년인 2004년 입회 기준을 채우고 있는 선수는 JLPGA 투어에서 뛰고 있는 구옥희가 유일했다. 이어 USLPGA의 영웅 박세리가 불과 20포인트를 남기고 있었다.

2004년 12월 8일 KLPGA는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국여자프로골프 대상 시상식을 갖고 구옥희를 '명예의 전당' 초대 입회자로 선정했다. 구옥희는 국내 대회 20승을 달성하고 1988년 한국 선수 최초로 USLPGA 투어에서 우승하는 등 USLPGA와 JLPGA 투어 25승을 포함해 통산 45승을 기록하고 있었다.

두 번째 '명예의 전당' 헌액 선수가 탄생한 것은 3년 후였다. 2007년 12월 3

2004 KLPGA 명예의 전당 입회 1호 구옥희



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 대상 시상식에서 박세리가 제2호 '명예의 전당'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앞서 2007년 11월 13일, 박세리는 'LPGA 명예의 전당'과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에도 이름을 올렸다. 최연소이자 최초의 아시아인 '명예의 전당' 입성이라는 역사를 쓰는 순간이자, 박세리 자신이 '골프계의 살아있는 전설'이 되는 순간이었다. 1950년 '여자골프 명예의 전당'을 전신으로 1967년 설립된 'LPGA 명예의 전당'은 1998년부터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으로 통합되었으며, 이에 따라 'LPGA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면 동시에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구옥희가 최초로 '한국여자프로골프 명예의 전당'에 핸드프린트를 남기고 박세리가 '한국여자프로골프 명예의 전당'과 'LPGA 명예의 전당',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남긴 2000년대 중반, 한국 여자 프로골프의 명예는 날이 갈수록 드높아지고 있었다. 이런 명예를 일구어내고 지켜가기 위해 KLPGA는 다시 한 번 선수와 갤러리, 그리고 국민들을 향해 '골프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KLPGA
– 마케팅 및 홍보 전략 강화

국내외 필드를 누비는 우리 선수들의 활약 속에 골프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연일 커져만 갔으며, KLPGA에 대한 선수들의 관심도 함께 커졌다. 이에 따라 KLPGA는 골프와 협회에 관한 국민들과 선수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대외 서비스와 홍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2004년 12월에는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를 더욱 세련되고 부드러운 느낌의

디자인과 컬러로 새롭게 단장했다. 이 사이트 리뉴얼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엔터테인먼트 요소 강화로서, 특히 프로골퍼들의 홈페이지를 한 곳에서 접속할 수 있는 '스타링크' 코너가 큰 관심을 끌었다. 2006년 9월 26일에는 영문 홈페이지도 오픈하여 외국인이나 외국 선수들도 KLPGA와 한국 골프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했다.

2005년 9월 15일에는 KLPGA라는 대표성을 현대적 감각으로 강화하고 선수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새 로고를 선보였다. 새 KLPGA 로고는 색동색(빨강, 파랑, 노랑)으로 '열정'과 '스포츠맨십'을 상징하는 동시에 '세계로 뻗어나가는 비전'을 지향했다. 새 CI(Corporate Identity)의 표현 주제는 'Silk & Steel'로, 여성과 골프의 공통적 속성이라 할 수 있는 '부드러운 섬세함'과 '힘 있는 역동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또 빨강색을 주색으로 한 영문 워드마크형으로 여성이 주체임을 암시하는 한편, 'Korea'를 나타내는 'K'에 한국의 정체성을 국제적 감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색동색을 적용함으로써 KLPGA만의 독특한 퍼스널리티를 담아냈다.

이 같은 지속적인 마케팅과 적극적인 홍보 전략에 힘입어 2006년 7월에는 KLPGA 등록회원 수가 1,000명을 돌파했다. 1978년 8명으로 KLPGA 역사를 시작한지 28년, 2002년 회원 수 500명을 돌파한지 4년 만이었다.

2005 KLPGA 새 로고

적극적인 홍보 전략은 이후에도 이어져, 2006년 12월 7일에는 KLPGA 홍보대사도 탄생했다. KLPGA는 이날 가수 팀과 개그맨 신동엽을 초대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서울 임페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 대상 시상식에서 홍보대사 위촉패를 전달했다. 이어 2008년 7월 14일에는 가수 이은하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팀과 신동엽을 통해 주로 20~30대를 겨냥했던 홍보 대상층을 40대 이상으로 확대했다.

한편 2000년대 들어와서는 대외 유관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마케팅에도 적극 나섰다.

먼저 2000년 4월 18일에는 (주)코스포엔터프라이즈와 마케팅 제휴 조인식을 갖고 연간 공식대회 운영, 스코어링 시스템 개발, 인터넷 생중계 프로그램 개발과 라이센싱 및 스폰서 사업 등에 관한 공동 마케팅에 들어갔다. 이어 2004년 7월 23일에는 'SBS골프닷컴'을 공식 골프 전문 웹사이트로 선정하고 SBS골프닷컴의 온라인 게임 'Shot Online'을 KLPGA 공식 온라인 골프게임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함께 펼쳐갔다.

2005년 들어와서는 마케팅 파트너도 크게 확대되어, 굿피트코리아, 데카시스템, 우원회원권거래소, 휘닉스파크 등 다수 업체와 파트너 협약을 체결했으며, 특히 화장품 브랜드 '오휘'와 마케팅 파트너십을 맺고 '오휘'가 생산하는 화장품을 KLPGA 공식 화장품으로 지정했다. 2006년 2월 21일에는 미국의 스포츠마케팅 전문 업체인 ASE와 전략적 마케팅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여, 미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KLPGA 소속 회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KLPGA 투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해외 선수들의 한국 진출을 도왔다. 이밖에도 2006년 9월 6일 JDI 스포츠클리닉과, 2008년 4월 21일 IB스포츠와 각각 마케팅 파트너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선수들에 대한 지원을 다양화하고 KLPGA의 위상을 제고해갔다.

03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 선수층 확대와 대회 확충

선수층 확대를 위한 시니어투어, 점프투어 창설

골프 선수층이 두터워지면서 2004년 새롭게 탄생한 대회가 시니어 여자골프 투어였다. KLPGA는 (주)이동수F&G를 타이틀 스폰서로 한 '2004 이동수골프 시니어 여자오픈 골프대회'를 2004년 5월부터 개최하여 더욱 많은 선수들에게 스타 탄생의 문호를 넓혔다. 참가 자격은 만 42세 이상의 프로골퍼와 일반 아마추어, 투어 조직위원회에서 추천한 국내 프로 및 아마추어로서, 예선대회는 영남, 호남, 충청, 서울 등 4개 권역으로

2004 이동수골프 시니어 여자오픈 4차전, 우승자 남정숙



2005 이동수골프 시니어 여자오픈 3차전, 우승자 한명현



나눠 전국적으로 치러졌다.

국내에 시니어 여자골프 투어가 처음 창설됨으로써 여성 골퍼들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도 기여하게 되었다. 그동안에는 40세를 넘긴 장년 여성 프로골퍼들이 일반 프로대회 출전권을 획득하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대회 출전 기회가 없었으며, 20여 년 가깝게 프로골프 선수로 활약해온 이들에게 프로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 대회 창설 취지였다. 2005년부터는 시니어 회원에 대한 복리후생 확대를 위해 연금식 보험 지급을 시작했다. KLPGA 회원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었지만 이 가운데 상금랭킹 상위 2~3%를 제외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심한 양상이었다. 이에 따라 KLPGA는 만 40세 이상, 입회 20년 이상 된 회원에게 연 단위로 일정 금액을 연금식 보험 형태로 지급하여 도움을 주고자 했다.

"1부 대회조차 축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3부 대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매우 용기 있는 결정이다."

2000년 5월, 2부 투어인 드림투어 창설에 이어 2006년 KLPGA가 한국 여자프로골프 사상 최초로 3부 투어인 '점프투어' 창설을 결정하자 골프계와 언론계가 KLPGA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

2006 점프투어 1차전 단체 기념촬영



다. 같은 해 7월 27일부터 충북 청원의 그랜드 컨트리클럽에서 4개 대회 개최에 들어간 점프투어에는 KLPGA 정규투어나 2부 투어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모두 참가가 가능했으며, 이로써 재능 있는 선수 발굴 및 육성 기회가 더욱 확대되었다. 정회원 중 4개 대회에 모두 참가하여 연간 상금랭킹 1위를 차지한 선수에게는 다음 해 정규투어 전 경기 출전권이, 준회원 중 4개 대회에 모두 참가하여 평균타수가 75타 이내이거나 상금랭킹 3위 이내에 랭크된 선수에게는 정회원 자격과 함께 다음해 2부 투어 전 경기 출전권이 각각 주어졌으며, 티칭회원에게도 4개 대회에 모두 참가하여 평균타수가 80타 이내일 경우 3명까지 준회원 자격을 부여했다.

이런 가운데 2005년 4월 29일에는 KLPGA 첫 외국인 회원도 탄생했다.

경기 가평 썬힐골프클럽에서 열린 '제니아-엔조이 골프투어' 시드전 결과 중국의 왕쥐안이 시드권을 확보했으며, 이로써 KLPGA 세부 규정에 따라 첫 외국인 회원으로 입회하게 되었다.

2005 제니아-엔조이 골프투어, KLPGA 첫 외국인 회원 왕쥐안



첫 해외 정규대회 개최와 최초의 투어제도 창설

2005년 8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역사상 최초로 평양골프장에서 KLPGA 공인대회가 열렸다. 이 '평화자동차 KLPGA 평양오픈골프대회'는 송보배, 최나연 등 신예들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남북한 화해 분위기 조성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며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쳤다.

이듬해인 2006년에는 KLPGA 창립 후 처음으로 중국에서 정규투어를 개최했다. 11월 16일부터 나흘 동안 중국 하문의 동방하문골프장에서 열린 '오리엔트 차이나 레이디스 오픈'은 중국골프협회(CGA)와 KLPGA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KLPGA 소속 프로골퍼들과 세계 각국 선수 120여 명이 참가하는 정규투어 공식대회로 치러졌다. 특히 이 대회를 통해 KLPGA와 CGA가 첫 공식만남을 가짐으로써 양국 여자골프계 교류 확대의 계기를 마련했다.

2005년 2월 3일 티오프에 들어간 '삼성

2006 오리엔트 차이나 레이디스 오픈, 우승자 신지애



2006 오리엔트 차이나 레이디스 오픈, 우승자 신지애



레이디스 마스터스'는 KLPGA 개막전으로서는 처음으로 해외에서 개최하는 정규대회였다. 싱가포르 라구나 내셔널골프클럽에서 열린 이 대회는 KLPGA와 유럽여자프로골프(LET), 아시아여자프로골프협회(LAGT)가 공동주관했으며, LET 60명, KLPGA와 LAGT 각 40명이 출전해 우열을 가렸다. 한국에서는 강수연, 문현희, 박희영, 지유진 등이 참가했으며, 우승은 2004년 KLPGA 3관왕을 차지한 10대 유망주 송보배가 차지했다.

첫 해외 정규대회 개최에 이어 국내 프로무대 최초의 투어제도 창설의 역사도 새로 썼다. KLPGA는 2006년 5월 8일 KB국민은행과 'KB국민은행 스타투어' 조인식을 가졌으며, 5월 11일부터 사흘 동안 경기 용인 88 컨트리클럽에서 1차 대회에 들어갔다. 메이저대회로 승격한 'KB국민은행 스타투어'는 연간 4개의 여자프로골프대회와 1개의 여자아마추어대회를 열었으며, KLPGA 최초의 투어제도 도입의 역사적 의미에 부합하며 우수 선수 발굴과 육성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KLPGA가 이처럼 우리나라 여자 프로골프의 역사를 새로 써가는 사이, 또 한 번 KLPGA의 역사를 새로 쓴 선수가 등장했다. 신지애였다.

신지애는 2006년 12월 7일 서울 임페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과 신인상, 상금왕, 다승왕, 최저타수상을 한꺼번에 받았다. 2006년 그해 투어에 데뷔한 신지애는 3승을 획득, 시즌 상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3억 원을 넘었고, 라운드당 평균타수도 69.72타로 여자골프 최초의 60대 타수를 기록했다. 1999년 한국여자프로골프 대상이 제정된 이후 대상, 신인상, 상금왕 부문에서 연속 3관왕이 배출된 적은 있었지만 5관왕 타이틀의 주인공이 된 것은 신지애가 처음이었다. 신지애는 2007년 2년 연속 대상과 상금왕, 다승왕, 최저타수상을, 2008년 KLPGA 3대 메이저대회를 석권하며 3년 연속 대상과 상금왕, 다승왕, 최저타수상을 수상하여 한국여자프로골프 대상 3연패를 기록,

2006 KB국민은행 스타투어 4차전 대회장 모습



2005 삼성레이디스 마스터스, 우승자 송보배





2006년 첫 5관왕 타이틀의 영광을 이어갔다.

2001년 한국 여자골프는 '한국의 10대 일등상품'으로 선정되었다. 그 영광스러운 평가와 응원 속에 21세기를 맞은 여자 프로골프는, 수많은 세계적 스타들은 물론 묵묵히 땀 흘리는 무명선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수들의 힘으로 매순간 앞으로 나아갔다.

그 열정과 도전의 의미를 잘 알기에, KLPGA는 새로운 비전을 준비하며 도약의 미래를 향해 묵묵히 나아갔다.

2006 KB국민은행 스타투어 4차전, 우승자 임은아



2006 KLPGA 대상 시상식에서 최초 5관왕을 차지한 신지애



PART 03 새로운 도전과 비상

‘글로벌 No.1 투어’와 함께 아시아의 골프 허브로

2008~2018



01

‘세계 3대 투어’를 향해 선수들과 함께 뛰다

창립 30주년과 ‘세계 3대 투어’의 비전

2008년 5월 26일 KLPGA가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KLPGA는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1978년 5월 26일 한국프로골프협회 프로 테스트에서 4명의 선수가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프로골퍼’라는 영예로운 이름을 얻은 그 역사적 순간을 기억했다.

KLPGA는 미국, 일본, 유럽에 이어 세계 4대 투어인 KLPGA 투어를 세계 3대 투어로 격상시키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구체적 비전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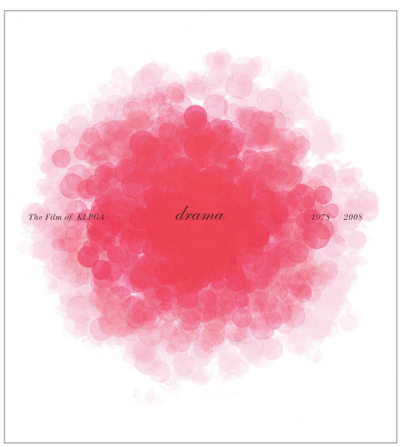
1.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골프 전문가 육성
2. 올림픽과 월드컵축구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마케팅 활동 강화
3. 지속적인 자선골프 개최
4. 유소년 골프 발전을 위한 노력 배가

이날 행사에서 KLPGA는 박명출 한국프로골프협회 전 회장에게 공로패를, KLPGA 역대 회장단에게 감사패를 각각 수여했다. 특히 30년 전 KLPGA와 함께 여자 프로골퍼로서 첫걸음을 내딛은 창립의 주역들인 한명현 수석부회장, 강춘자, 구옥희에게 창립회원 기념패를 수여했다.

한편 KLPGA는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화보집 『Drama』도 발간했다. 약 200여 쪽의 이 책에는 KLPGA 30년 역사와 그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사진들을 담았다.

이에 앞서 2008년 4월 1일에는 KLPGA

KLPGA 창립 30주년 기념 화보집 『Drama』



가 별도 법인인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KLPGT)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KLPGA 홍석규 회장과 한명현 수석부회장을 공동 대표로 추대했다. KLPGT 설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는 사단법인인 KLPGA의 한계를 극복해 협회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향후 KLPGT는 투어를 관리하는 KLPGA와는 별도로 마케팅 파트너 계약, 라이센싱 사업, 중계권 사업 등 협회의 수익사업에 관한 모든 것들을 관장하게 되었다.

이처럼 마케팅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가운데 2009년 6월 24일에는 최초로 'KLPGA 연예홍보단'을 창단했다. KLPGA는 이날 경기도 용인 88 컨트리클럽에서 창단식을 갖고 곽진영, 김병찬, 김수용, 김영배, 김은우, 김지선, 김혜연, 리치, 박선영, 박은영, 안계범, 엄수진, 이경실, 이경심, 이광기, 이세훈, 이은하, 이정용, 이종수, 장세진, 정수라, 최은주, 최홍림, 표영호, 허윤정 등의 연예인들에게 'KLPGA 연예홍보단'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미 2008년 7월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된 바 있는 가수 이은하를 단장으로

2009 연예홍보단 발대식



하는 연예홍보단은 임명장을 받은 첫 날부터 '나눔'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88 컨트리클럽에서 제1회 자선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당일 마련된 기금을 결식아동 돕기 도시락 구매에 사용한 것이다. 이어 KLPGA는 제1대 KLPGA 홍보모델로 김보경, 김하늘, 김혜윤, 나다예, 문현희, 서희경, 유소연, 윤채영, 최혜용, 홍란 등 10명을 선정하고 골프의 대중화와 올바른 골프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성숙한 골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희망의 버디'

마케팅 활동을 넘어 성숙한 골프문화 정착에도 발 벗고 나섰다.

KLPGA 투어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대회장을 찾는 갤러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지만, 관전하는 갤러리의 응원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선수들이 방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었다. 이에 갤러리로서의 품격도 유지하면서 선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것만은 지키자'는 의미로 응원문화 캠페인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2008년 9월 5일 열린 'KB국민은행 스타투어 3차대회'부터는 국내 대표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를 시작했다. 국내 최초로 시도된 골프대회 온라인 생중계라는 점에서 큰 이슈가 되었으며, 특히 직접 골프장을 찾지 못한 많은 골프 팬들과 필드의 열정과 즐거움을 함께 했다.

선수들도 골프문화 의식 확산에 동참했다. KLPGA는 2009년 3월 정기총회에서 도핑테스트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8월에 열린 SBS 채리티 여자오픈 참가자 120명 중 무작위로 일부 선수의 시료를 채취, 한국과학기술원(KIST) 도핑컨트롤센터에 분석을 의뢰했다. 결과는 모두 음성 판정이었지만, KLPGA는 2010년부터 1차 위반 시 1년간 자격 정지, 2차 위반 시 2년간 자격 정지 및 회원 자격 박탈, 3차 위반 시 영구 자격 정지 등으로 처벌을 규정

2009 정기총회



2009 SBS 채리티 여자오픈부터 도입한 도핑테스트



하고 선수 계도 등 불미스러운 결과를 사전에 막기 위해 노력했다.

2000년대 들어와 본격화했던 대외 파트너십 구축에도 더욱 박차를 가했다. 2009년 6월 9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KLPGA 공식 메디컬센터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여, KLPGA 정규투어뿐만 아니라 드림투어, 점프투어, 챔피언스투어(구 시니어투어) 중 연간 8개 대회에 앰뷸런스 및 응급 구조사를 현장에 파견해 선수들의 부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KLPGA 정회원만을 위한 특화된 신체검사 및 기능 평가를 제공하고, KLPGA 회원만을 위한 종합검진프로그램도 별도로 마련해 특화된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어 같은 해 9월 11일에는 스크린골프 기업 골프존과 공식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고, 건전한 골프문화 캠페인, 골프 저변 확대 및 유소년 지원 사업 등을 공동 추진해갔다.

2009년 12월 31일에는 파고다교육그룹과 약정을 맺고 2010년부터 KLPGA 회원들에게 무료 어학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선수들은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해외 투어 등에 대비한 어학 실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되었다.

2009 분당서울대학교병원-KLPGA 공식 메디컬센터 파트너십 조인식



성숙한 골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은 '더불어 사는' 사회 정착을 위한 노력과도 병행되었다. KLPGA는 2009년 8월 25일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과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KLPGA 희망나눔 캠페인' 조인식을 가졌으며, 정규대회를 통해 쌓인 버디 수만큼 기금이 적립되는 '희망의 버디'를 개설, 연말에 기금을 적립해 재단에 전달했다. 2010년 말에는 '희망의 버디'에 참여한 선수가 총 76명에 이르렀으며, 이들이 버디 한 개를 기록할 때마다 적립하여 난치병 환자들에게 전달된 기금은 3,800만 원이었다.

'세계 3대 투어'로 가는 길

창립 30주년을 맞으며 KLPGA는 "KLPGA 투어를 세계 3대 투어로 격상시키겠다"는 의지를 적극 실천으로 옮겨갔다.

먼저 2008년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사상 처음으로 KLPGA 및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 공동 주관 대회인 '세인트포 레이디스 마스터즈'가 제주 세인트포골프클럽에서 3년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당시 LET는 스웨덴의 안니카 소렌스탐과 호주의 카리 웹 등 세계적인 톱스타들을 배출한 투

2010 메이크어위시재단에 자선 기금을 전달한 하이트컵 챔피언십 참가 선수들



어로, 한국에서 개최한다는 자체만으로 KLPGA 투어의 세계적 위상 제고를 상징하고 있었다.

이 대회에 참가하는 프로골퍼 108명은 KLPGA 및 LET 소속 선수 절반씩으로 구성되었다. USLPGA 투어도 2002년부터 한국에서 대회를 개최하고 있었지만 KLPGA 소속 선수가 적어 KLPGA 상금랭킹에도 빠져야했다. 하지만 '세인트포 레이디스 마스터즈'는 정규대회에 포함되어 이 같은 한계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9년 7월 21일에는 KLPGA 투어 하이트컵 챔피언십이 메이저대회로 승격되었다. 이로써 KLPGA 주관 메이저대회는 '한국여자오픈', 'KLPGA 선수권대회', 'KB국민은행 스타투어 그랜드파이널'을 포함해 모두 4개 대회가 되었다.

국내 유소년 여자아마추어골퍼 육성과 골프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은 여자아마골프 선수권대회 개최로 이어졌다. 2011년 7월 30일부터 5일간 전북 군산골프장에서 개최한 이 대회는 초등부와 중고등부, 일반부로 구분했으며, 대한체육회 또는 각 협회나 연맹에 선수로 등록된 전국 초중고 및 대학생이면 모두 참가가 가능했다. 중고등부와 일반부를 통합해 상위 3명까지는 KLPGA 준회원 실기테스트 면제의 특전이 주어졌고, 우승자에게는 2009년 10월에 열린 USLPGA 하나은행 챔피언십 출전의 특전도 함께 주었다.

'박세리 키즈' 박인비, 신지애의 세계무대 평정

"박세리 선수가 우승하는 모습을 보고 골퍼의 꿈을 키워왔다."

2000년대 중후반으로 오면서 이런 소감을 밝히는 여자 프로골퍼들이 크게 늘어났다. 이른바 '박세리 키즈'였고, '박세리 신드롬'이었다.

2008년 6월 30일 한국여자프로골프의 신세대 박인비는 19세 11개월 7일만에 최연소의 기록으로 생애 첫 우승을 USLPGA 메이저대회에서 일궈냈다. 박인비는 미국 미네소타주 에디나

2009 제10회 하이트컵 챔피언십, 우승자 서희경





인터라켄골프장에서 막을 내린 US여자오픈에서 우승, 한국 선수로는 메이저대회 다섯 번째 우승자가 되었으며, 1998년 맨발 투혼을 보여줬던 박세리와 2005년 김주연의 우승 이후 이 대회에서 우리 선수가 거둔 세 번째 우승을 기록했다. 우승 후 박인비는 "10년 전 박세리 선수가 이 대회에서 우승하는 모습을 보고 골퍼의 꿈을 키워왔다"고 말했다.

박인비는 이후 USLPGA 무대에서 연일 선전한 결과 2012년 11월 USLPGA 상금왕과 최저타상을 수상했으며, 마침내 세계 골프계의 '살아있는 전설' 반열에 올랐다. 2013년 시즌 개막 후 열린 나비스코 챔피언십과 USLPGA 챔피언십에 이어 다시 한 번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하며 메이저대회 3개를 잇달아 제패한 것이다. 여자골프에서 시즌 개막 후 열린 메이저대회 3개를 연달아 제패한 것은 1950년 베이브 자하리아스 이후 박인비가 역대 두 번째였다. 이어 박인비는 2013년 11월 한국인 최초로 USLPGA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며 한국 여자골프의 위상을 드높였다.

박인비가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직후인 2008년 8월 4일에는 신지애가 USLPGA 투어 메이저대회로 영국 서닝데일 골프클럽에서 열린 USLPGA 투어 메이저대회 브리티시 여자오픈에서 역시 최연소로 우승했다. 초청 자격으로 참가한 국내 투어 선수로는 사상 최초로 USLPGA 투어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한 신지애는 2001년 박세리와 2005년 장정에 이어 브리티시 여자오픈을 우승한 세 번째 한국 선수로 기록되었다. 국내 무대에서의 선전도 이어져, 신지애는 2008년 10월 26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골프장에서 열린 KB국민은행 스타투어 4차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우승, 한국 여자 프로골프 역사상 최초로 한 시즌 메이저대회 3개를 모두 석권하는 그랜드슬램의 대기록을 세웠다.

2009년부터 USLPGA 투어에만 전념한 신지애는 2009년 11월 USLPGA 상금왕과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신지애는 USLPGA 투어 미즈노 클래식,

2011 여자아마골프 선수권대회, 통합 1위 윤선정



USLPGA 투어 브리티시 여자오픈 및 킹스밀 챔피언십, USLPGA 투어 ISPS 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여자오픈 등에서 우승하며 그 명성을 이어갔다.

구옥희의 USLPGA 첫 승을 기억하며, USLPGA 100승의 기록을 쓰다

박인비와 신지애의 활약 속에 다른 선수들의 도전과 승전보도 이어졌다. 2009년 7월 13일 지은희가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하여 전년 박인비의 계보를 이었으며, 같은 해 10월 4일에는 송보배가 JLPGA 메이저대회인 일본여자오픈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린 데 이어 JLPGA 신인상을 수상했다. 또 2010년 11월에는 안선주가 한국인 최초로 JLPGA 상금왕과 신인상을 동시에 수상하여, 미국과 더불어 일본무대에서 한국 여자골프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이어 2010년 12월 6일에는 최나연이 USLPGA 투어 상금왕을 차지한 데 이어 최저타수를 기록한 선수에게 주는 베어 트로피를 받았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1년 10월 16일, USLPGA 한국계 선수 100승의 역사적인 순간을 바로 최나연이 연출했다. 최나연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골프장에서 열린 USLPGA 사임다비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올라 한국 여자골프의 역사에 'USLPGA 100승'의 기록을 남겼다. 1988년 3월 구옥희가 USLPGA 투어 스탠다드 레지스터 더콰이즈 클래식에서 우승하며 처음으로 세계 여자골프계에 한국 선수의 이름을 올린 후 23년 만이었다.

이후 서희경과 유소연이 2011년과 2012년 연이어 USLPGA 투어 신인상을 수상했다. 또 안선주가 JLPGA 2년 연속 상금왕에 올랐으며, 2012년 8월 전미정이 JLPGA 통산 20승을 달성, KLPGA 소속 선수 가운데 네 번째로 영구 시드권자가 되는 동시에 그해 11월에는 JLPGA 상금왕에 올랐다.

02

대한민국과 세계에 전하는 KLPGA의 메시지

“Do Dream With KLPGA!”

KLPGA 투어의 질적 성장과 정회원 1,000명 시대

KLPGA 투어 대회 위상 자체가 높아지고 선수들의 기량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KLPGA는 외형적 성장과 더불어 투어의 질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특히 선수와 갤러리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투어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섰다.

우선 2014년 시즌부터는 경기시간 단축과 출전 선수 확대를 위해 정규투어 2부 티오프제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경기시간이 약 1시간 30분 앞당겨졌다. 또 2014년에는 세계 최초로 그린 경도측정기와 토양수분측정기를 도입했으며, 여기서 수집된 자료들은 대회장에서 라운드별로 선수들에게 공지되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다. 공정한 판정을 위해 경기위



원 휴대용 블랙박스를 도입한 것도 새로운 변화였다.

2014년 3월 28일에는 카이도골프와 'KLPGA 2014 카이도골프 드림투어' 공동 개최에 대한 조인식을 가졌으며, 이로써 드림투어는 15차전으로 치러진 2013년보다 5개 대회가 늘어났다. KLPGA는 정회원만 대회 출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해 드림투어가 실질적인 투어의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으며, 기존 드림투어 상금순위 상위 3명에게만 주어지던 정규투어 출전자격을 6명으로 확대했다.

2014년 7월 8일 막을 내린 3부 점프투어에서 14명의 준회원이 정회원으로 승격되면서 KLPGA 정회원은 창립 36년 만에 1,000명을 돌파했다. 1989년 50명, 1995년 100명, 1999년 200명, 2002년 300명, 2006년 500명에 이어 마침내 'KLPGA 정회원 1,000명 시대'의 막을 연 것이다. 이날 회원번호 1번 강춘자 KLPGA 수석부회장은 "앞으로도 협회가 더 발전하고 투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선배 골퍼로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으며, 회원번호 1,000번의 주인공이 된 이수진은 "선배들이 이뤄놓은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회원 1,000명 시대에 걸맞게 회원서비스와 대외 홍보 및 마케팅에 대한 KLPGA의 노력도 더욱 배가되었다. 2014년 8월에는 공식 모바일 앱을 출시하여 KLPGA 소식과 뉴스 등 골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는 물론 실시간 경기 현황과 선수, 기록 등 대회 관련 데이터 서비스를 스마트폰에 최적화하여 제공했다.

이와 함께 대외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 아이덴티티 강화, 골프의 대중화 등을 위해 협회 최초로 'KLPGA 로고송'도 공개했다. 로고송은 여자 프로골퍼의 밝고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하여 제작했으며, 세계로 널리 뻗어 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친근한 KLPGA가 되고자 하는 바람을 가사에 담아 표현했다. KLPGA 로고송은 투어 중계방송 엔딩곡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KLPGA

홍보모델이 참여한 홍보 뮤직비디오 촬영, 'KLPGA 로고송 함께 부르기' 캠페인 등으로 이어졌다.

선수들에게 기회를, 소년들에게 희망을

벤치마킹을 통해 투어 환경 개선, 선진 시스템 구축, 영문 홈페이지 제작 등 글로벌 투어로 나아가고자 꾸준히 노력해온 KLPGA는 외국인 선수에게 출전 기회를 제공하여 세계적인 투어로 도약하기 위한 길에 나섰다. KLPGA 선수들이 해외에서 한국을 세계에 알리며 국위 선양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KLPGA 투어 또한 외국 선수에게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투어 경쟁력 향상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2015년 9월 1일부터 나흘 동안 엘리시안 제주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인터내셔널 퀄리파잉 토너먼트에는 만 18세 이상 해외 국적을 소지한 프로 또는 아마추어가 참가할 수 있었으며, 상위 30% 이내의 선수에게는 KLPGA 정규투어 시드 순위전 예선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아울러 상위 60% 이내에 들 경우, KLPGA 투어 등용문으로서 수많은 스타플레이어를 발굴한 드림투어와 점프투어의 시드 순위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KLPGA에서 처

2015 인터내셔널 퀄리파잉 토너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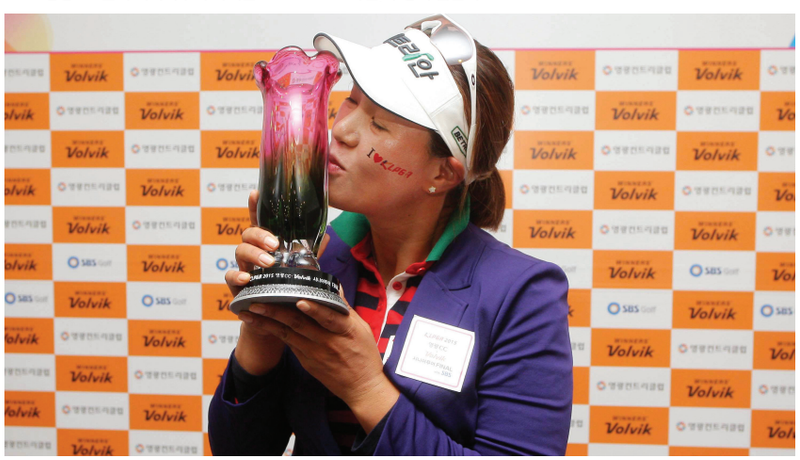
1위를 차지한 일본 출신 나가이 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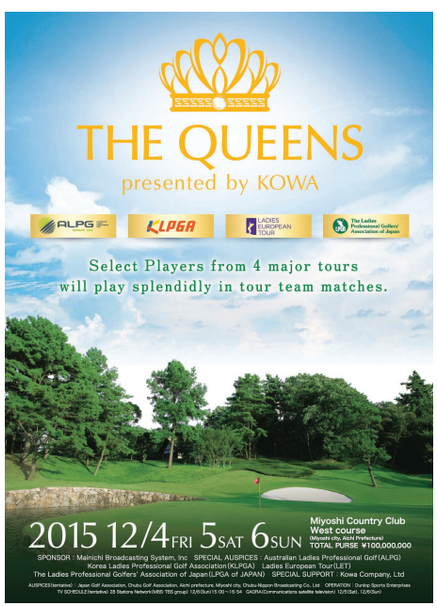
음으로 시도한 인터내셔널 퀄리파잉 토너먼트 제도는 이후 많은 외국인 선수에게 KLPGA 투어 참가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KLPGA 투어가 글로벌 투어로 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반이 되었다. 시니어투어도 더욱 확대되어, 2015년부터는 이전 10개 대회에서 3개가 늘어난 13개 대회로 치러졌다. KLPGA는 2015년 8월 17일 'KLPGA 영광CC 볼빅 시니어투어 파이널 with SBS' 개최 조인식을 갖고 더 많은 선수들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2016년 5월부터는 시니어투어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챔피언스오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기도 했다.

2015년에는 한국, 일본, 호주, 유럽 4개 투어 대항전 형태로 '더퀸즈' 대회를 개최했다. 1999년부터 열려온 한일 대항전을 4개 국가 투어 대항전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12월 4일부터 사흘간 일본 미요시 컨트리클럽에서 열렸다. 이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은 준우승을 차지했고, 2016년 12월 제2회 대회에서는 신지애를 비롯한 8명의 선수들이 탁월한 기량을 보이며 일본 대표팀을 7승 1무로 압도, '더퀸즈' 챔피언에 등극했다. 2017년 12월 3일 미요시 컨트리클럽에서 막을 내린 2017년 제

2015 영광CC 볼빅 시니어투어 파이널 with SBS 12차전, 우승자 김선미



2015 '더퀸즈' 포스터



3회 대회에서는 우리 대표팀이 일본과 벌인 결승전에서 1무 3패를 기록,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2015년 4월 KLPGA 정규대회인 '삼천리 Together Open 2015'를 신설해 개최한 바 있는 KLPGA는 같은 해 10월 13일부터 나흘 동안 전북 군산 컨트리클럽에서 'KLPGA-삼천리 꿈나무대회 2015'를 개최했다. 미래 한국 골프를 이끌어 갈 유망주를 발굴하고 골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한 이 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의 그린피나 카트비 등 대회 라운드 비용을 전액 지원했으며, KLPGA 정규투어 유명 프로 선수들을 초청해 초등부 참가자들이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초의 윈터투어 개최의 새 역사도 썼다. KLPGA는 2016년 2월 21일 베트남 하노이의 스카이레이크리조트 골프클럽에서 비공식 대회인 '한국투자증권챔피언십 with SBS'를 개최했다. KLPGA 윈터투어로는 처음 개최한 이 대회에 앞서 2016년 1월 16일에는 베트남 '더달랏 at 1200 컨트리클럽'에서 '더달랏 at 1200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개최 조인식을 가졌다. 이 대회는 KLPGA의 정규투어로서, 같은 해 3월 25일부터 사흘간 KLPGA 2016년 시즌

2015 삼천리 Together Open 유소년 꿈나무 레슨



2015 KLPGA-삼천리 꿈나무대회 시상식



첫 대회로 치러졌다.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시장을 개척하고 확대시켜온 KLPGA는 베트남으로 그 범위를 넓힘으로써 '아시아의 골프 허브'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날개를 더욱 활짝 펼쳤다.

그랜드슬램에서 커리어 그랜드슬램까지, KLPGA 선수들이 다시 쓰는 골프의 역사

'아시아의 골프 허브'로 성장해 가는 길에는 항상 든든한 우리 선수들이 있었다. 2014년 10월 26일 김효주는 단일 시즌 메이저대회 3관왕에 오르며 최초로 단일 시즌 상금 12억 원을 돌파했다. 이 같은 성과 속에 김효주는 같은 해 12월 한국여자프로골프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 상금왕, 최저타수상, 다승왕 4관왕에 올랐다.

같은 시기인 2014년 11월 안선주가 JLPGA 투어에서 '올해의 선수상'과 더불어 상금왕, 최저타수상, 다승왕을 수상했다. 한국인 최초의 JLPGA 투어 4관왕이었다.

2016 KLPGA 윈터투어, 우승자 조정민



2014 KLPGA 대상 시상식에서 4관왕을 차지한 김효주



KLPGA의 역사를 새로 쓰는 선수는 계속 이어져, 2015년 7월 26일 경기도 여주 블루헤런 골프클럽에서 열린 KLPGA 투어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서 전인지가 우승을 확정함으로써 세계 3대 투어로 통하는 한국, 미국, 일본 무대 메이저대회에서 한 해에 각 한 차례 이상씩 우승하는 사상 최초의 기록을 수립했다. 전인지는 그해 5월 JLPGA 투어 살롱파스컵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과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한 바 있었다.

박인비의 세계무대 평정 소식도 끊이지 않았다. 박인비는 2015년 8월 3일 영국 트럼프리조트 골프클럽에서 끝난 '리코 브리티시 여자오픈'에서 우승하며 4개 메이저대회를 석권, 역사적인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2008년 US여자오픈, 2013년 나비스코 챔피언십과 USLPGA 챔피언십에 이어 마침내 대기록을 달성한 것으로서, '평생에 걸쳐 4개 메이저대회를 석권하는 일'을 뜻하는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은 여자골프 사상 일곱 번째, 아시아인

2015 KLPGA 대상 시상식에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신지애



2015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우승자 전인지



2015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우승자 전인지



으로서는 최초였다.

2015년 12월 7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 대상 시상식에서 박인비는 이보미, 김세영, 전인지와 함께 해외 특별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이날 신지애는 구옥희, 박세리에 이어 세 번째이자 최연소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다. 신지애는 이미 2010년 9월 KLPGA 투어 우승을 통해 '명예의 전당' 입회 자격을 충족하고 있는 상태였다.

2015년 12월 17일 JLPGA 시상식에서는 이보미가 대상, 상금왕, 최저타수상의 3관왕에 올랐으며, 2016년 11월에는 JLPGA 투어 통산 20승을 달성해 한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영구 시드권을 획득했다. 특히 이보미는 2015년 시즌 최다 상금 2억 엔 달성에 이어 2016년에도 상금왕을 차지, JLPGA 투어 2년 연속 상금왕에 오르며 '이보미 신드롬'의 주인공이 되었다. 또 김보경은 2016년 8월 19일 경기 양평 더스타휴 컨트리클럽에서 개막한 '보그너 MBN 여자오픈'에서 기존에 김희정이 보유

2016 보그너 MBN 여자오픈에서 KLPGA 투어 최다 출전 기록을 남긴 김보경



하고 있던 236개 대회 출전을 넘어 237개 대회 출전 기록을 달성, KLPGA 역사상 가장 많은 대회에 출전한 선수가 되었고 그 기록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골프는 사랑이며 나눔이다

KLPGA는 2000년대 후반 이후 갤러리와 선수로서의 품격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통해 '이것만은 지키자'는 정신을 강조해왔다. 그리고 KLPGA가 지켜야 할 '이것' 가운데는 나눔과 봉사의 정신이 있었다.

1990년부터 나눔경영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해온 KLPGA는 2013년 8월 26일 경기도 안산 제일 컨트리클럽에서 삼천리그룹과 함께 '난치병 어린이 돕기 KLPGA 삼천리그룹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가 선수들의 사인이 담긴 골프백과 사인 볼 케이스를 모아 참가자를 대상으로 경매를 진행했으며, 경매 수익금을 포함한 대회 자선기금 5,000만 원과 선수들이 모은 후원금 1,000만 원을 서울대 어린이병원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전달했다.

2013 난치병 어린이 돕기 KLPGA-삼천리그룹 자선골프대회 후원금 전달식



2016 KLPGA-올포유 자선골프대회



이 대회는 이듬해에도 더욱 많은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며, 2015년 'KLPGA-Metlife 자선골프대회', 2016년 'KLPGA-올포유 자선골프대회' 등으로 이어졌다. 이로써 1990년 이후 25년 동안 자선골프대회의 정신을 면면히 이으며, 어린이재단, 양로원, 화상재단, 한국펄벅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대 어린이병원 등 다양한 곳에 희망을 전해주었다.

2013년 10월 21일에는 한국유방암학회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골프팬과 일반인, 선수 등을 대상으로 유방암 예방 메시지를 전하는 데 함께 앞장서 나갔다. 이후 KLPGA 투어 참가 선수들은 매년 10월 '유방암 예방의 달'을 맞아 핑크리본을 가슴에 달고 나와 유방암 극복 메시지를 널리 전하는 '핑크리본 캠페인'을 전개했다.

KLPGA는 2013년 11월 29일 'E1 채리티 오픈'의 주최사인 '주식회사 E1'과 함께 'E1 채리티 오픈'에서 모은 기부금 1억 2,000만 원 중 7,000만 원으로 프로스펙스 운동화와 양말을 마련해 21개 장애인 시설에 전달했다. 이 후원 행사는 이후에도 매년 계속되어 어린이들에게 작지만 큰 꿈을 주었다.

이 같은 나눔의 정신을 매년 이어가면서 KLPGA는 멀리 경남 산청군에 작은 터전을 닦아나갔다. 2016년 10월 13일, KLPGA는 'KLPGA와 SBS가 함께하는 드림위드버디' 기금과 경남 산청군,

2013 KLPGA-한국유방암학회 핑크리본 캠페인 업무제휴 협약식



2013 E1 채리티 오픈 운동화 전달식



2016 산청군 공립지역아동센터 준공식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한건축사협회, 경상남도건축사회의 후원을 통해 건립한 산청군 공립지역아동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KLPGA는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2015년 시즌 국내 개막전인 롯데마트 여자오픈 때부터 KLPGA를 대표하는 선수들과 함께 '드림위드버디' 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해왔다.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KLPGA 선수는 매 대회 각 라운드에서 기록한 버디 개수만큼 일정 금액을 적립했고, KLPGA와 SBS는 각 라운드 두 번째 파 3홀에서 버디 1개당 10만 원의 기부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으로 2015년 11월 산청군 공립지역아동센터 착공식을 가졌고, 약 11개월 만에 준공한 것이다. 이로써 방과 후 보호 및 교육, 놀이 공간이 전무한 산청군 신안면 지역의 아동들에게 안전한 복지 공간을 마련해줄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11월 1일에는 'KLPGA와 SBS가 함께하는 드림위드버디' 기금으로 건립될 경북 청송군 공립지역아동센터 착공식이 열려, 역시 지역사회 내 교육기관 및 아동보호 시설이 부족한 청송군 안덕면 아이들의 소중한 복지 시설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17 청송군 공립지역아동센터 착공식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쓰는 편지 "Do Dream With KLPGA!"

꿈나무들이 KLPGA와 함께 자라고 있다. 2009년부터 선수와 함께하는 '유소년 골프클리닉'을 개최한 바 있는 KLPGA는 2013년부터 재능기부 프로그램 'Do Dream With KLPGA Golf Camp'를 개최하기 시작해, 7월 25일부터 이틀 동안 충북 청원 행정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골프반 학생 18명들을 대상으로 선수들이 직접 레슨에 나섰다. KLPGA 재능기부 프로그램은 골프선수의 꿈을 간직한 꿈나무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유소년 지원 사업으로써, KLPGA를 대표하는 유명 선수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강연부터 필드 레슨까지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처음 시행된 2013년 프로그램에는 KLPGA 투어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김혜윤, 양수진, 장하나, 전인지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골프 꿈나무들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2013 재능기부 프로그램 'Do Dream With KLPGA Golf Camp' 개최



이후 재능기부 프로그램은 2014년 엘리트 유소년 골퍼 멘토링 'KLPGA TO YOU(Talent to Youth)'로 다양하게 확대되며 매년 이어졌다.

2015년 8월 11일에는 유소년 골프 저변 확대와 골프 대중화를 위해 'KLPGA 골프키즈단'을 창단하여 8월 11일 강원도 엘리시안 강촌리조트에서 1차 활동을 진행했다. 선발된 골프키즈단 35명을 대상으로 정상급 선수들의 골프 레슨을 진행했으며, 이후 메이저대회 참관 및 자원봉사, 방송 제작 체험, 프로 선수와의 만남 등 유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2015년 2월 3일과 11월 6일에는 강원 제천 백운초등학교 및 충북 음성 대장초등학교에서, 2016년 11월 24일과 12월 22일에는 경남 거제 지세포중학교 및 전남 신안 압해동초등학교에서, 2017년 7월 26일과 7월 28일에

2014 엘리트 유소년 골퍼 멘토링 'KLPGA TO YOU'



2015 KLPGA 골프키즈단 창단식



는 전북 익산 이리계문초등학교와 충남 천안 미죽초등학교에서 각각 골프 연습장 준공식을 가졌다. 골프에 대한 열의는 있으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접할 기회가 없는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KLPGA TO YOU' 골프 환경조성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KLPGA는 골프연습공, 클럽세트 등 다양한 골프 용품들을 추가로 전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곳에서 지금도 젊은 미래 세대들이 힘차게 티샷을 하고 있다. 그들이 대한민국 골프의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KLPGA가 지켜보고 있다.

2015 KLPGA 골프키즈단 유소년 레슨



2017 'KLPGA TO YOU' 익산 이리계문초등학교 골프연습장 준공식



03

창립 40주년 – 골프 역사를 새로 쓰며 **'아시아의 골프 허브'**로 가는 길

KLPGA 투어, 국내 최고의 콘텐츠 중 하나로

KLPGA는 2016년 4월 6일, 국내외 골프와 함께해온 발렌타인과 KLPGA 투어 대상 부문 후원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밖에도 티업비전, 동국제약, 센트로닉스 등을 공식 스폰서 및 마케팅 파트너로 신규 유치했다. 대내외적으로 스폰서를 확충하면서 KLPGA는 선수 및 파트너와 더불어 공동 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갔다.

2016년에는 몇몇 정규투어 규정을 변경하여 투어의 글로벌화에도 더욱 박차를 가했다. 먼저 정규투어 참가 인원과 별도로 최대 6명의 외국인 선수가 추가로 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마추어의 경우 그 기준을 '소속 국가 국가대표 또는 핸디캡 5 이하'로 하여 KLPGA 정규투어 전 대회에 적용하되, 해외 투어와 공동 주관대회 및 한국여자오픈은 제외했다. 또 해외 투어 참가 제한 규정에 있는 국내 투어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변경하여 그 범위를 '해외 개최 대회 제외'로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선수들의 해외 투어 진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했다. 이밖에 정규투어 신인상 후보자 적용 기간을 기존 '최소 1회 이상 정규투어를 유자격으로 참가한 자'에서 '상금 순위를 인정하는 정규투어의 50% 이상 유자격으로 참가한 자'로 변경함으로써 해당연도 시즌 50% 이상 투어를 뛰지 못한 신인상 후보자도 다음 해에 신인상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글로벌 No.1 투어' 도약의 발판을 구축하는 일은, 필드와 골프 팬들을 연결하는 일에서도 이루어졌다. KLPGA는

2016년 8월 12일, SBS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의 방송중계권 계약을 체결했다. 2014년부터 KLPGA 투어를 단독 생중계해온 SBS는 이 계약 체결로 '국내 최고의 콘텐츠 중 하나'로 꼽히는 KLPGA 투어를 향후 5년간 장기간 확보함으로써 국내 골프방송 선두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게 되었다. KLPGA 투어 또한 2014년 방송중계권 파트너로 SBS를 단독으로 선정하며 동반 성장을 이루어왔다. 2013년 22개의 대회 수가 2014년 27개로, 2015년 29개로 증가했고, 2016년에는 32개 대회에 이르러 KLPGA 투어에 대한 인기가 식을 줄 몰랐다. 총상금 규모도 2013년 131억 원에서 2014년 165억 원으로 증가했고, 2016년 211억 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정규대회 전 라운드를 5시간 이상 생중계하고,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안정적인 편성시간을 운영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고정적인 시청 습관을 형성, 대회 스폰서의 마케팅 효과 만족도를 극대화 시킨 결과였다.

2016년 SBS와의 계약에는 방송권료 외에 메이저대회 18홀 전 홀 생중계 및 지상파 편성 확대, KLPGA 근간인 드림투어와 챔피언스투어의 편성시간 대폭 확대, 최종전인 왕중왕전 생중계가 포함되어 있어 KLPGA 투어 전반에 대한 고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동계시즌 총상금 7억 원 이상의 정규대회를 해외에서 2개 이상 개최해 '글로벌 No.1 투어'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SBS가 중계를 맡고 있는 KLPGA 투어 중계권을 향후 5년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그동안 진행해온 미국, 일본,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등 해외 방송 커버리지 확대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올림픽 금메달의 순간을 함께 하며 세계 정상의 자리에 선 한국 여자골프

KLPGA가 '글로벌 No.1 투어'를 지향하며 새로운 도약의 청사진을 그려가는 그 순간, 대한민국 여자골프가 '글로벌 No.1' 자리에 섰다.

2016년 8월 21일 박인비가 세계 여자 골프 랭킹 1위 리디아 고를 제치고, 116년 만에 올림픽 종목으로 부활한 골프에서 세계 정상에 올랐다. 박인비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골프코스에서 열린 리우 올림픽 골프여자부 최종일 경기에서 5타를 줄여 합계 16언더파 268타를 쳐 한국계 리디아 고를 5타 차로 제치고 우승컵을 안았다. 2015년 8월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이루고 'LPGA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박인비가 진정한 '골프 여제(女帝)'로 우뚝 서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남녀 골프를 통틀어서 올림픽을 제패한 세계 최초의 그랜드슬래머였다.

무려 116년 만에 부활한 올림픽 여자 골프의 금메달이 박인비의 목에 걸리는 순간, 국민들은 열광했다. 1900년 프랑스 파리대회 이후 21세기 들어 첫 올림픽 골프 챔피언의 영광이 바로 대한민국의 몫이었던 까닭이다. 박인비 외에도 김세영, 양희영, 전인지, 그리고 박세리 감독의 노력도 함께 빛나는 순간이었으며, 국민들은 그 KLPGA 스타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었다.

올림픽에서 선전한 전인지도 또 다른 역사를 썼다. 전인지는 2016년 9월 18일 프랑스 에비앙리조트 골프클럽에서 열린 US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에비앙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 결과 21언더파 263타로 최종 우승했다. 남녀 통틀어 메이저대회 최소타 기록은 이전까지 20언더파 264타로서, 전인지는 이 기록을 경신하며 세계 골프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었다. 전인지는 또 1998년 박세리에 이어 개인 1, 2호 우승을 모두 USLPGA 투어 메이저대회에서 올리는 기록도 함께 세웠다. 전인지는 같은 해 11월 21일 USLPGA 투어 신인상과 평균 최저타수상을 동시에 수상, 1978년 이후 한 시즌에서 이 두 상을 받은 USLPGA 역사상 두 번째 선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JLPGA에서도 한국 선수의 선전이 눈부셨다. 2016년 10월 23일 전미정은 일본 마스터스골프클럽에서 열린 JLPGA 투어 '노부타그룹 마스터즈 GC 레이디스'에서 우승을 차지, 역대 한국

인의 JLPGA 투어 최다승인 24승을 달성했다. 종전 기록은 2005년 구옥희가 세운 23승이었다. 이보미 또한 2016년 11월 27일 일본 미야자키골프장에서 열린 JLPGA 리코컵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 JLPGA 투어 최초로 2년 연속 '올해의 선수상'에 올랐으며, 상금왕과 평균타수상도 동시에 수상하여 3관왕을 기록했다.

국내무대에서는 박성현이 2016년 시즌 7승 달성과 함께 13억 3,309만 원의 상금으로 KLPGA 시즌 최다 상금 기록을 경신했다. 2016년 12월 6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 대상 시상식에서 박성현은 다승왕과 상금왕 외에 최저타수상, 인기상을 수상해 4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리우 올림픽 박세리 감독과 금메달리스트 박인비가 특별상, 전인지가 해외특별상을 각각 수상했다.

2016 KLPGA 대상 시상식 5관왕에 오른 박성현



김상열 회장 취임과 KLPGA의 새로운 꿈

2017년 3월 27일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이 KLPGA 제13대 회장에 취임했다. 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KLPGA의 한 가족으로 함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협회의 발전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나날이 발전하는 KLPGA가 전성기를 맞았다는 평이 많지만, 오히려 지금이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도전이 필요한 가장 중대한 시기라고 보고 있다."고 진단한 후 "드림투어와 챔피언스투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상금을 증액하고 특전을 확대하는 등 투어 기반을 탄탄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1989년 설립된 호반건설은 호반건설골프단을 두고 여주 스카이밸리 컨트리클럽과 하와이 와이켈레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며 우리나라 골프산업 발전에도 힘쓰고 있다.

신임 회장 취임 직후인 2017년 3월 30일에는 KLPGA 공식 캐릭터 '케이'를 선보였다. KLPGA를 대표하는 마스코트로 활약할 공식 캐릭터 케이는 밝고 명랑하며 호기심 많은 성격으로, KLPGA 대표 선수이자 대한민국 최고 선수로 활약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열정적인

제13대 김상열 회장 취임식



캐릭터다. 항상 케이 곁을 지키는 서브 캐릭터인 골프공 '버디'는 케이를 따라다니며 도움을 주는 캐릭터로서, 케이의 친구이자 멘토의 역할을 한다. 이어 같은 해 6월 1일에는 공식 캐릭터인 케이를 주인공으로 한 웹툰 '골프요정 케이의 꿈'을 발표했다. 케이가 국내 최고의 골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과 에피소드를 유쾌하게 그려냄으로써 골프를 잘 모르는 일반 대중도 남녀노소 즐겁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아시아 골프 허브'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다

2004년 시니어투어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챔피언스투어가 2017년 5월 23일 100회째를 맞았다. KLPGA는 2017년 3월 13일 'KLPGA 모리턴-원일건설 챔피언스오픈' 개최 조인식을 갖고 4개 대회 중 첫 대회를 5월 23일 전북 고창 컨트리클럽에서 열었으며, 바로 이 대회가 챔피언스투어 100회로 기록되었다. 2017년 6월 22일에는 호반건설과 조인식을 갖고 드림투어인 호반건설 챔피언십을 열기로 했으며, 이 대회는 7월 17일부터 경기도 여주 스카이밸리 컨트리클럽에서 열전에 들어갔다.

이처럼 챔피언스투어의 발전 속에 2017년 들어와 드림투어는 21개로, 챔피언스투어는 13개로, 점프투어는 16개로 각각 늘어났다. 이 같은 성장에는,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투어로 불리는 KLPGA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기반 중 하나가 안정적인 2 · 3부 투어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2017년 8월 1일부터 나흘 동안 이어진 인터내셔널 퀄리파잉 토너먼트는 처음으로 해외에서 열렸다. 2회까지는 제주도에서 열렸으나, KLPGA 글로벌화에 발맞추고 더 많은 외국 선수들의 출전을 독려하기 위해 태국의 '더로얄 젬스 골프 앤 스포츠클럽'에서 개최한 것이다.

한화금융 클래식은 2017년 들어와 메이저대회로 승격되면서 '한화 클래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로써

KLPGA 공식 캐릭터
'케이(Kay)'



KLPGA 공식 캐릭터
'버디(Buddy)'



KLPGA 웹툰 '골프요정 케이의 꿈'



KLPGA 메이저대회는 5개로 늘어났으며, 2018년 KLPGA 정규대회는 총 30개, 총상금은 207억 원으로서 '글로벌 No.1 투어'로 가는 길을 더욱 밝게 열고 있다.

그 길을 함께 하는 선수들의 선전도 이어졌다. 2017년 7월 31일 최혜진이 1999년 임서현 이후 처음 아마추어 신분으로 KLPGA 투어 2승을 달성했다. 같은 해 9월 23일에는 이정은6가 경기도 양주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 2라운드에서 18홀 12언더 60타를 기록, 2003년 전미정이 기록했던 11언더파 61타를 14년 만에 경신하며 최소 스트로크 신기록을 세웠다.

2017년 11월 27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 대상 시상식에서 이정은6는 대상, 상금왕, 다승왕, 최저타수상, 인기상, 위너스클럽의 6관왕에 올랐으며, 정일미가 역대 최초 3년 연속 챔피언스투어 상금왕을 수상했다. 그리고 이날 '올림픽의 영웅' 박인비가 역대 네 번째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다.

창립 40주년의 해를 맞은 2018년, '글로벌 No.1 투어', '아시아의 골프 허브'로 가는 KLPGA의 걸음은 계속되고 있다.

KLPGA는 1월 15일 동남아 브루나이에서 브루나이골프협회(BDGA)와 '브

2017 챔피언스투어 100회를 기록한
KLPGA 모리턴-원일건설 챔피언스오픈 1차전, 우승자 박성자



2017 호반건설 챔피언십 개최 조인식



2017 KLPGA 대상 시상식 6관왕에 오른 이정은6



루나이 레이디스 오픈' 개최 협약식을 가졌으며, 3월 17일부터 사흘간 브루나이 엠파이어 컨트리클럽에서 대회를 개최했다. KLPGA와 브루나이골프협회, 중국여자프로골프협회가 공동주관하는 이 대회는 2018시즌 세 번째 정규대회로서, 동남아시장 개척을 통해 글로벌 투어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기반이 되었다.

2018년에는 새로운 서바이벌 리얼리티 프로그램 '파라다이스시티 프리젠트 신데렐라 스토리 of KLPGA'를 기획해 진행에 들어갔다. 동남아 5개국과 미국 등 총 6개국에서 외국인 참가자를 선발해 서바이벌 방식으로 대회를 진행한 후 최후 2인에게 2018시즌 정규투어 10개 대회 출전권을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만의 지에 퐁과 말레이시아의 제네비브 아이린 링이 2018년 4월 롯데스카이힐 제주트리클럽에서 열린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에 출전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대만,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중국, 브루나이 등 동남아 6개국 7

2018 KLPGA 사무국을 견학한 '파라다이스시티 프리젠트 신데렐라 스토리 of KLPGA' 참가 예정자들



2018 브루나이 레이디스 오픈, 우승자 홍란



개 채널에서 방송하여, KLPGA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릴 기회가 되었다. 한편 1월 19일에는 프로그램 참가 예정자 12명이 KLPGA를 찾아 사무국을 견학하고, KLPGA 투어의 역사와 정보, 2018시즌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박인비가 이들을 응원하는 영상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창립 40주년
KLPGA는 선수였고 갤러리였으며, 모든 국민과 함께였다

1978년 5월 26일, 경기도 양주군 로얄 컨트리클럽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프로골퍼' 4명이 탄생한지 40년이 흘렀다. 남자 대회가 펼쳐지는 현장의 한 켠에서 펼쳐진 이 장면이 오늘날 KLPGA 40년과 대한민국 여자골프의 서막이었다.

한국프로골프협회 내에 여자프로부로 출발한 KLPGA는 최초의 여자프로골프 선수권대회를, 최초의 JLPGA 프로테스트 통과를, JLPGA 투어와 USLPGA 첫 우승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전 세계로 무대를 넓히고 선전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

그 40년 동안 KLPGA는 든든한 후원자였으며, 때로는 필드에 선 선수였으며,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도하는 갤러리였다. 그리고 매순간 골프를 통해 꿈과 희망을 보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였다.

KLPGA는 지금 세계적 투어로 명성을 얻으며 '세계 3대 투어'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골프 허브'가 되는 길을 열고 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는 그 일에, 선수와 국민들이 함께 해주었음을 KLPGA 역시 잘 알고 있다.

선수 및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이 사명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가슴에 새기며, KLPGA는 창립 40년의 성과를 넘어 드넓은 세계에서 50년, 100년의 성취를 이루어가고 있다.


KLPGA가 빚은 시간,
KLPGA를 빚낸 시간



ROUND II

KLPGA 40 Issues



40th Anniversary of Korea Ladies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

Issue 01

8인의 골퍼,
한국 여자 프로골프 역사의 서막을 열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프로골퍼 탄생

40년 전인 1978년 5월 25일 경기도 양주군 로얄 컨트리클럽.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주관하는 제9회 프로후원경기는 우리나라 골프 역사상 처음으로 여자 프로 테스트를 겸하고 있었다. 여자 프로 테스트에 참가한 선수는 모두 13명으로서, 이들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프로골퍼'가 된다는 사명감 아래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다.

테스트 최종일인 5월 26일 마지막 홀을 앞두고 강춘자, 한명현, 구옥희의 스코어는 똑같았고, 안종현이 이들을 추격하는 양상이었다. 결국 마지막 홀에서 강춘자가 버디를 잡으며 최종 155타를 기록했고, 한명현, 구옥희가 156타 동타를, 안종현이 161타를 기록했다. 이 기록은 그대로 여자 프로 테스트 통과 순위가 되었고, 강춘자가 한국 여자 프로골퍼 1번의 영예를 얻었으며, 한명현, 구옥희, 안종현이 2~4번으로 프로골프에 입문했다.

한국 여자 프로골프 역사의 서막을 연 이들의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입회연도는 공히 1978년이다. 그리고 이들의 KLPGA 회원번호는 강춘자 00001번, 한명현 00002번, 구옥희 00003번, 안종현 00004번이다. 안종현은 마지막 날 74타로 프로 테스트의 문턱을 넘은 후 주변을 돌며 "74타 안종현입니다."라고 자기소개를 해서 참가 선수들과 갤러리들을 즐겁게 했다. 40년 전 한명현, 구옥희, 안종현과 한국 여자 프로골퍼 탄생의 그 역사적인 현장을 함께 했던 강춘자 KLPGA 수석부회장은 고인이 된 안종현을 그리며 "이제는 세상에 없는 동료가 남기고 간 아련하고도 그리운 기억 한 편"이라고 추억했다.

지금은 골프대회의 부상으로 고급 승용차가 주어지는 시대다. 하지만 1978년 5월 26일 주위의 많은 축하를 받으며 최초의 여자 프로골퍼가 된 네 명의 선수들에게는 동아제약이 협찬한 화장품 한 세트씩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1978년 8월 9일부터 8월 10일까지 이틀 동안 한원(구 오산)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프로 테스트에서 김성희, 이귀남, 고용학, 배성순이 추가로 여자 프로골퍼가 되었다. 이 대회에는 남자 48명, 여자 15명이 예선을 통과했으며, 결선 결과 156타를 기록한 김성희부터 166타를 기록한 배성순까지 네 명이 순위대로 프로골프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KPGA 소속 프로골퍼는 남자 72명, 여자 8명 등 총 80명이 되었다.











❶ 제1기 한국 여자프로부 선수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안종현, 한명현, 강춘자, 구옥희)
❷ 제 1, 2기 여자프로부 선수들
(왼쪽부터 안종현, 한명현, 강춘자, 구옥희, 배성순, 김성희)
❸ 강춘자, 한명현, 안종현(왼쪽부터)
❹ 강춘자와 한명현





❺ 1980 이경숭, 강춘자, 한명현, 구옥희(왼쪽부터)
❻ 김성희
❼ 1981 오란씨오픈 연장전 중 함께 웃고 있는 한명현, 이귀남



❼

Issue 02

‘셋방살이’ 대회지만
열정만은 집주인이다

제1회 여자프로골프 선수권대회

네 명의 여자 프로골퍼가 탄생한 1978년 8월 9일은 KPGA 내에 여자프로부가 탄생된 날이기도 했다. 9월 4일 첫 이사회를 연 여자프로부는 새로운 프로골퍼이자 그동안 우리나라 골프 발전을 위해 활동해오던 김성희를 초대 여자프로부장으로 선임했다. 이로써 김성희 부장은, 자신이 프로골퍼가 되기 위해 프로 테스트에 나선 날 탄생한 여자 프로골프 전담 부서의 초대 수장이 되었다.

여덟 명의 선수에 여자프로부라는 조직까지 갖추게 되자 KPGA는 1978년 9월 20일부터 이틀 동안 남서울 컨트리클럽에서 제1회 여자프로골프 선수권대회를 개최했다. 비록 제21회 프로골프선수권이라는 남자대회를 겸하고 있었지만, 최초의 여자프로골프대회에 참가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참가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다. 그 결과 한명현이 156타로 우승을 차지했으며, 김성희가 161타로 준우승을, 강춘자, 이귀남이 163타로 공동 3위에 올랐다.

그러나 여자 프로골퍼들이 출전할 수 있는 대회는 여전히 찾아보기 힘들었다. 상금과 규모도 남자대회의 반쪽에 불과했다. 이런 어려움을 딛기 위해 김성희 KPGA 여자프로부장은 각 컨트리클럽에서 여자회원들이 만든 월례회나 숙녀회 같은 모임을 찾아가 후원을 부탁해 간신히 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런 현실적 한계도 선수들의 열정을 가로막지는 못했다. 여자 프로골퍼들은 1978년 프로골프선수권대회 참가를 시작으로 1979년 삼양오픈, 쾌남오픈 등에 연이어 참가해 우수한 기량을 선보였으며, 특히 강춘자, 구옥희 두 선수는 차례로 우승컵을 차지하며 그 가능성을 과시했다.







❶ 한명현
❷ 1978 제1회 여자프로골프 선수권대회, 우승자 한명현
❸ 1981 관악 동해오픈, 우승자 구옥희(오른쪽 두 번째)와 한명현(가운데), 강춘자(오른쪽 끝)

Issue 03

‘저팬 드림’의 꿈,
더욱 큰 꿈을 가슴에 품는 힘이 되다

일본 프로무대 진출

1970년대 말 매년 국내 프로골프대회는 4~5개씩 열렸지만 모든 대회가 남자프로대회의 ‘더부살이’ 형식이었고, 규모 면에서 남자대회의 반쪽도 되지 않은 이벤트성 대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 여자 프로골퍼 수가 적고 대중적인 저변 확대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쩌면 불가피한 현실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환경에 순응한 채 대회 참가에 만족하기에는, 골프에 대한 여자 프로골퍼들의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이 너무나 컸다.

여자 프로골퍼들은 스스로 더 큰 무대를 찾아 나섰다. 프로골퍼 도전에 이어 다시 한 번 고독한 모험을 시작한 것이다. 1981년 3월, 강춘자, 구옥희, 한명현, 배성순 등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들은 재일동포 홍두창 씨의 도움으로 1981년과 1982년에 걸쳐 초청 선수로 대회에 참가했다.



1982년 5월 14일부터 사흘 동안 일본 도쿄 요미우리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10회 세계여자골프 선수권대회에는 구옥희, 강춘자, 안종현, 배성순 등 네 명의 선수가 한국 대표로 참가했다. 구옥희가 첫날 76타로 대만 선수와 공동 6위를 기록하며 일본에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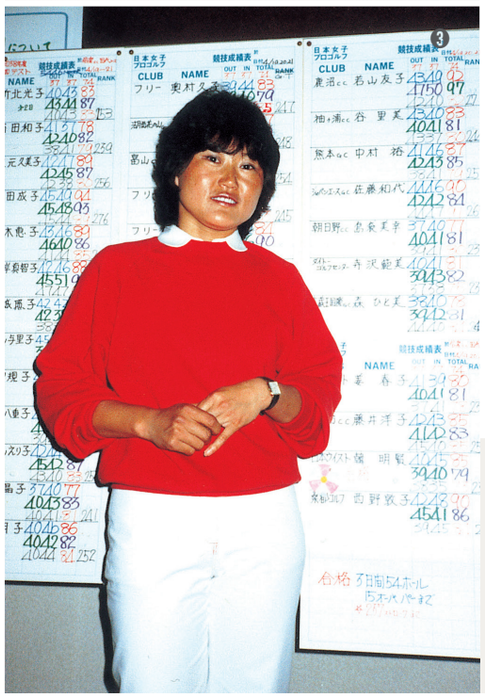
초청선수 자격으로 일본 내 대회에 참가하고 있던 한명현은 우리 여자 프로골퍼 최초로 1983년 7월 26일 일본 프로자격증을 획득했다. 이어 같은 해 연말 구옥희가, 1984년 강춘자와 정길자가 프로 테스트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일본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일본 내 인사들의 도움으로 일본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우리 선수들에게 ‘저팬 드림’은 말 그대로 꿈과 같은 일이었다. 일본어 실력도 부족한 데다 낯설고 물 선 일본 땅에서 컨디션 조절하기도 쉽지 않았다. 김치냄새, 마늘냄새가 난다고 자신들을 피하는 다른 일본 선수들의 시선도 이겨내야 했다. 하지만 가장 참기 힘들었던 것은 외국인 선수라는 이유로 시합 중에 불합리한 판정을 받는 일이었다.

우리 선수들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 그것은 한국 여자골프의 힘이자 대한민국의 힘이었다. 그 힘이 있었기에, 우리 선수들은 더욱 큰 세계로 나가는 도전을 시작할 수 있었다.









❶ 1982 일본 국제대회 첫 출전 당시 강춘자(왼쪽 첫 번째), 구옥희(오른쪽 두 번째), 한명현(오른쪽 끝)
❷ 1983 일본 프로 테스트에 응시한 선수들 (왼쪽부터 정길자, 강춘자, 한명현)
❸ 1983 일본 프로 테스트에 합격한 한명현
❹ 1983 한명현과 구옥희



❺



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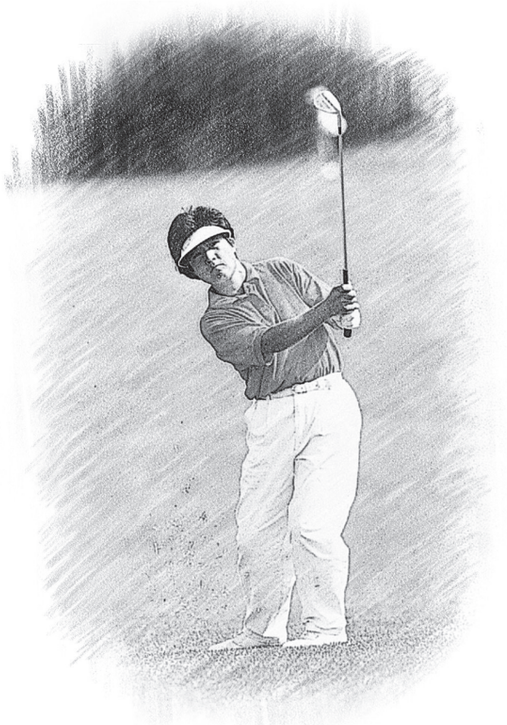


❼

❺ 1983 일본 프로 테스트에 응시한 강춘자, 구옥희, 한명현 (왼쪽부터)
❻ 1978년 동기생인 한명현과 구옥희
❼ 1983 일본 프로 테스트에 합격한 한명현 (왼쪽 두 번째)

Issue 04

‘예견된 기적’ 속에
꿈을 현실로 바꾸다



구옥희, JLPGA와 USLPGA 최초 우승

구옥희는 목수 일을 하던 부친을 따라 경기도 연천에서 고양으로 이사를 한 후 1975년 퍼블릭코스인 123골프장에서 캐디 일을 하며 골프와 첫 인연을 맺었다. 곁눈질로 스윙을 익히는 등 어깨 너머로 골프를 배운 그 인연이 한국 골프의 새 길을 개척하는 역사가 되었다.

구옥희는 1978년 국내에서 처음 실시된 여자 프로 테스트를 통과한 후 같은 해 9월 열린 KLPGA 선수권에서 2위를 차지했으며, 1979년 쾌남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하며 주목을 받았다. 1980년 5승, 1981년 4승을 거두는 등 국내 무대 통산 20승을 올린 후 구옥희는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4년 3월 7일, 일본 TV에서는 다소 의외라는 듯한 목소리의 리포트가 흘러나왔다. 일본 프로무대에 진출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한 한국 선수가 일본여자프로골프협회(JLPGA) 투어 미즈노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비록 비공식대회였지만, 당시 한국의 골프 수준으로서는 의미가 큰 일이었다.

당시 한국과 일본의 골프 실력은 비교조차 하는 게 부끄러울 정도였다. 선수 수도 그렇고, 경기장인 골프장 개수도 너무나 큰 차이가 났다. 프로골프 선수가 수십 명, 골프장 수가 30여 개 남짓한 한국에 비해 일본은 프로골퍼가 수천 명이고 골프장이 1,000여 개를 넘었다. 양국의 골프 경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즈노오픈에서 일본인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 162cm의 가녀린 체격으로 활짝 웃는 얼굴이 인상적인 28세의 한 한국인 여자 골퍼가,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쟁쟁한 일본의 세계적인 선수들을 제치고 한국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하자 일본인들은 다소 충격을 받았다. 한국 관련 스포츠 보도에 인색했던 일본 매스컴은 그 우승 사실을 스포츠 면에 대서특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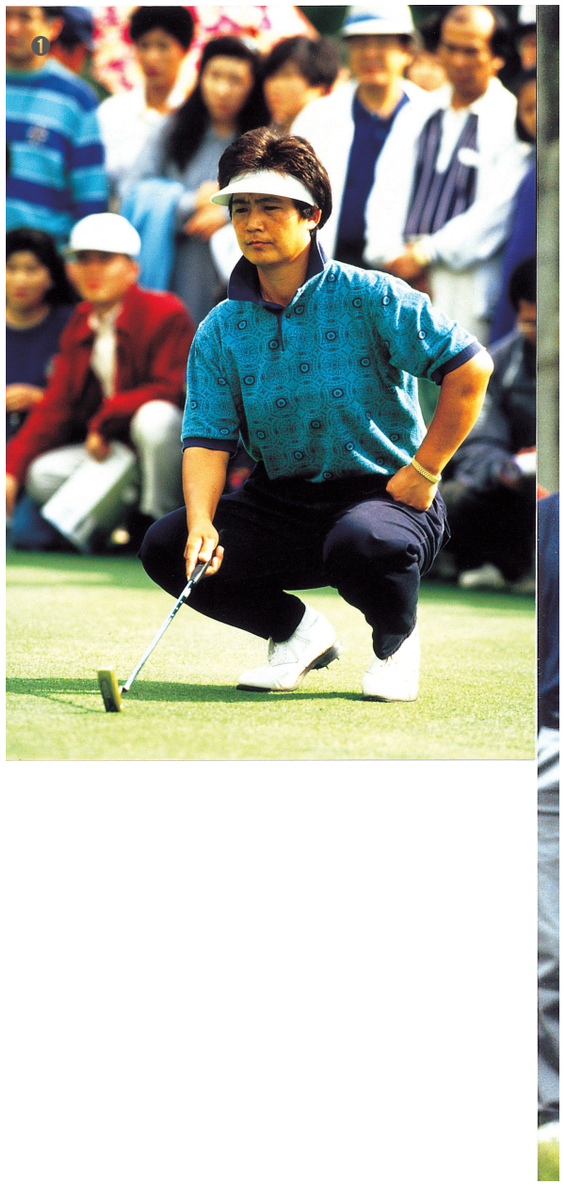
그러나 이 JLPGA 투어 미즈노오픈 우승은 시작에 불과했다. 한국 골프 역사상

최초로 일본 프로골프대회에서 우승하며 자신감을 얻은 구옥희는 1985년 기분 레이디스 오픈, 토오하토 레이디스 오픈, 토오호쿠 퀸즈오픈 등 JLPGA 투어 3개 대회에서 연이어 우승했으며, 특히 JLPGA 대회 2주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도 함께 달성했다. 'JLPGA의 지존(至尊)'을 향한 거침없는 질주가 시작된 것이다.

구옥희는 1987년 10월 토카이 클래식에서 USLPGA 4관왕 타이틀을 가진 미국 선수를 누르고 우승하는 등 일약 JLPGA 강자로 부상했다. 그리고 세계를 향한 꿈도 키웠다. 구옥희는 1984년 일본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USLPGA) 투어 대회에 일본 프로 자격으로 참가하여 3위를 기록하며 JLPGA에 이어 USLPGA에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리고 1985년 10월 미국 텍사스주 슈가랜드 스위트워터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USLPGA 프로 테스트에서 10위로 합격하여 동양인으로서는 두 번째로 미국 프로무대에 진출했다.

USLPGA에서 한국 골프의 역사가 새로 쓰이기까지는 그로부터 불과 3년이 걸리지 않았다. 국내 대회 우승 후 협찬사인 제과회사로부터 아이스크림 1년 무상 교환권을 받고 활짝 웃던 구옥희의 웃음이 미국의 드넓은 필드로 다시 번져갔다. 구옥희는 프로골퍼가 된 지 10년 만인 1988년 3월 28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문밸리 골프 코스에서 열린 스탠다드 레지스터 더콰이즈 오픈에서 한국인 최초로 USLPGA 투어 대회 우승의 기적을 일구어냈다.

일본과 미국에서 이룬 우리 선수들의 성과는 기적이 아니었다. 1978년 여자 프로골퍼가 탄생한 이후 이들이 열악한 여건을 이겨내고 더욱 큰 무대를 향해 당당히 도전해갔기에, 일본과 미국에서 이룬 대한민국 여자 프로골퍼들의 성취는 이미 예견된 미래였다.


1

구옥희는 1987년 10월 토카이 클래식에서 USLPGA 4관왕 타이틀을 가진 미국 선수를 누르고 우승하는 등 일약 JLPGA 강자로 부상했다.
프로골퍼가 된 지 10년 만인 1988년 3월 28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문밸리 골프 코스에서 열린 스탠다드 레지스터 더콰이즈 오픈에서
한국인 최초로 USLPGA 투어 대회 우승의 기적을 일구어냈다.







❶❷❸❹ 1985년 JLPGA 기분 레이디스 우승,
1988년 스탠다드 레지스터 더콰이즈 클래식에서 최초로 우승을
차지하며 해외 투어 활동의 선구자 역할을 한 구옥희

Issue 05

1988년 12월 5일,
KLPGA 독립 만세

남자프로골프협회 여자프로부에서 분리

1978년 5월은 최초의 여자 프로골퍼 탄생을 통해 KLPGA 40년 역사를 시작한 창립의 달이다. 그리고 1988년 12월 5일은 'KPGA'의 그늘을 벗어나 그 사이에 'Ladies'의 이름을 붙여,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orea Ladies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로 재탄생한 독립기념일이다. 이날 반얀트리클럽 앤 스타서울(구 타워호텔)에서 KLPGA 창립총회가 열려, 회장 김성희, 부회장 한명현, 전무이사 강춘자, 이사 구옥희, 최희숙, 이화순 등 초대 임원진이 구성되었다. 이들 임원 가운데 김성희, 한명현, 구옥희 3명이 여자 프로골프 제1세대 선수들이었다.

KLPGA가 독립적인 새 역사를 쓰기까지, 1978년 8월 한국프로골프협회 내 여자프로부 설립 이후 부장직을 맡은 김성희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자 프로골프 발전을 위한 근원적인 방안이 여자 프로골프 전담 기구의 독립에 있다는 약 50명 여자 프로골퍼 전체의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 1982년부터 여러 골프장의 숙녀회와 유대관계를 맺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독립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1988년 2월 2일, 한국프로골프협회 여자프로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새 사무실을 마련, KLPGA 탄생의 서막을 열었다. 이 때 한국프로골프협회는 여자프로부를 단체로 독립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유사단체 난무를 막고자 하는 관계기관의 등록 문제 때문에 당분간 임의단체로 둘 수밖에 없었다.

1988년 11월 14일 한국프로골프협회는 이사회를 열고 KLPGA 창립을 공식 의결하고, 창립에 필요한 자금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창립 기금 지원을 두고 여자 프로골프 1세대들은 "딸 시집보내는 마음으로 지원해준 돈"이라고 회고했다.



❶❷KLPGA 초대 회장 김성희



Issue 06

든든한 독립기구,
당당한 사단법인

문화체육부 사단법인 등록 및 체제 정비

마침내 1988년 12월 5일 창립총회를 거쳐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로 거듭 태어난 KLPGA는 독립기구로서의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갔다.

1991년 7월 1일에는 창립 3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첫 기록모음집을 제작하여 호평을 받았다. 모두 170페이지 분량의 이 기록모음집에는 여자 프로골프가 탄생한 1978년 이후 선수들의 개인별 성적과 대회 성적을 일목요연하게 수록했다. 이후 이 기록집은 매년 발간되어 여자 프로골프 발전과 골프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1991년 12월 14일에는 문화체육부에 정식으로 사단법인 등록을 마침으로써 '사단법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로 자리매김했으며, 이듬해인 1992년 강남구 논현동에 새로운 사무실을 마련했다. 그리고 1991년 경기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1992년부터 경기 기록을 부분적으로 전산화하기 시작하는 등 든든한 독립기구, 당당한 사단법인으로 성장해나갔다.















❶ 1990 한국 여자 프로골퍼 소양교육
❷ 1991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정기총회
❸ 1992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정기총회
❹ 1994 제1차 한국 여자 프로골퍼 세미나

Issue 07

세계적 수준의 메이저대회, KLPGA의 위상을 드높이다

국내 최초의 국제대회 서울여자오픈

1990년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사흘간 경기도 고양 뉴코리아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1회 서울여자오픈골프대회는 국내 최초의 국제대회였다. 1988년 창립 후 여자프로대회 창설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던 KLPGA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대회이자 이벤트였다.

이 대회에는 9개국 프로골퍼들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는 미국에서 활약 중인 구옥희, 일본에서 활약 중인 김애숙, 이영미도 있었다. 특히 미국의 코린 워커는 1989년 LPGA 상금랭킹 7위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였으며, JLPGA 투어 통산 72승으로 '명예의 전당'에 오른 히구치 히사코(樋口 久子)도 출전했다.

제1회 서울여자오픈은 상금에 있어서도 단연 메이저급이었다. 총상금 30만 달러(한화 2억 1,000만 원)에 우승상금 6만 달러는 국내에서 개최된 골프대회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을 뿐 아니라 당시 어느 국제대회 규모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고액이었다.

이전까지 단일 경기 최대 상금 규모에 속하는 대회로는 1989년 7월의 제1회 서산여자오픈골프대회였으며, 이 대회 역시 KLPGA의 노력으로 창설된 것이었다. 대회를 후원한 재일교포 사업가 서휘 씨는 전 WBC 플라이급 챔피언 박찬희 등 유명 프로복서를 길러낸 세기프로모션 서순종 대표의 친동생이기도 했다.

한편 1990년 처음 열린 서울여자오픈골프대회는 2017년 메이저대회로 승격한 KLPGA 한화 클래식으로 이어지면서 오늘날까지 대표적인 국제대회로 자리 잡고 있다. 제1회 때 약 3억 원이었던 총상금은 2017년 14억 원, 약 4,200만 원이었던 우승상금은 3억 5,000만 원이 되었다.





❶



❷



❸



❹



❺

❶ 1990 제1회 서울여자오픈 전야제
❷❸ 1990 제1회 서울여자오픈 대회장 모습
❹ 1992 제3회 서울여자오픈
❺ 1996 제7회 한화컵 서울여자오픈, 우승자 박세리

Issue 08

최초의 USLPGA 투어 국내 대회,
최초의 전 경기 TV 생중계

'별들의 전쟁', 제주 삼성월드 챔피언십

이름만 들어도 골프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선수들이 제주로 모였다. 언론들은 대회 오래 전부터 '별들의 전쟁', '여자골프의 마스터스대회'라는 이름으로 이 대회 개최 사실을 보도했으며,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골프 팬의 이목이 벌써 제주도에 가있었다.

1995년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흘간 제주 파라다이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삼성월드 챔피언십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열린 USLPGA 투어 대회였다. 1995년 USLPGA 투어 4대 메이저대회 우승자 등 15명의 톱랭커들만이 참가, '별들의 전쟁', '여자골프의 마스터스대회'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들 가운데는 1994년 USLPGA 상금랭킹 1위 로라 데이비스, 1994년 USLPGA 챔피언 베스 대니얼 등이 있었고, 1995년 US 오픈 우승자이자 우리에게도 낯익은 안니카 소렌스탐이 있었다. 여기에 주최국 선수 1명에게 자격이 주어져 총 16명이 기량을 겨루었는데, 우리나라 대표로는 1994년과 1995년 2년 연속 KLPGA 상금랭킹 1위 이오순이 추천되었다.



1995년 10월 15일 최종 라운드는 연장 접전이었다. 소렌스탐은 4라운드 연장 첫 홀에서 꿈같은 버디를 잡아 로라 데이비스를 제치고 극적인 역전 우승을 거두며 11만 7,500달러의 상금을 차지했다. 이오순은 선전했으나 16명 중 14위에 그쳤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열린 이 USLPGA 투어 대회는 SBS가 전 경기를 생중계했다. 국내 TV 방송사상 4라운드 전 경기를 생중계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❶❷ 1995 삼성월드 챔피언십, 우승자 안니카 소렌스탐

Issue 09

김미현,
KLPGA의 새로운 역사를 쓰다

데뷔 후 최단 기간 우승의 기록

김미현이 KLPGA에 입회한 것은 1996년 4월이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미도파 여자오픈에서 당시 '데뷔 후 최단 기간 우승'이라는 KLPGA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프로 데뷔 2개월 19일 만이었다. 작은 키에 야무지고 정교한 플레이로 '땅콩'이라 불린 김미현은 이후 필드를 누비며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국민 골퍼'라는 새로운 별명도 얻었다.

1988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골프를 시작한 김미현은 아마추어 시절 국가대표를 거치면서 1994년 톰보이 여자오픈, 1995년 한국여자오픈 등 2개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며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6년 프로무대에 등장, 한국여자오픈 등 모두 3승을 거두었으며, 이 저력은 1997년과 1998년 2년 연속 KLPGA 상금왕, 1997년 3개 대회 우승과 KLPGA 최우수선수 선정 등의 명성으로 이어졌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 9승을 기록하며 KLPGA 무대를 평정한 김미현이지만, 1999년 미국 진출 당시 후원사도 없이 USLPGA 대회에 참가했다. 당시 아버지가 모는 차에 동행한 가족들이 해주는 밥을 먹으며 투어를 도는 모습이 국내에 알려지게 되면서 '헝그리 골퍼'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남기기도 했다. 이런 힘겨운 노력을 기반으로 1999년 USLPGA 투어 스테이트팜레일 클래식과 벳시킹 클래식에서 단숨에 2승을 거두고 같은 해 USLPGA 신인상을 수상하여 '대한민국의 땅콩'에서 '세계의 땅콩'으로 거듭났다.

김미현은 1995년 경기 도중 맹장이 터졌지만 수술을 연기하면서까지 우승을 했다. 그런 정신이 이듬해인 1996년 '데뷔 후 최단 기간 우승'이라는 기록을 가능하게 했으며, 오래도록 남을 김미현만의 골프 역사를 이어가게 했는지도 모른다.











❶ 1994 톰보이 여자오픈, 우승자 김미현
❷ 1997 제5회 휠라여자오픈, 우승자 김미현
❸ 1997 제2회 유공인비테이셔널, 우승자 김미현
❹ '데뷔 후 최단 기간 우승'의 기록을 남긴 김미현
❺ 2000 현대증권 여자오픈, 우승자 김미현

Issu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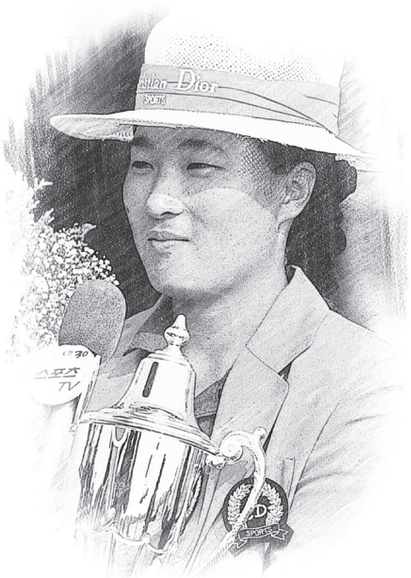
맨발의 투혼,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다

박세리의 US여자오픈 극적 우승

박세리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골프채를 처음 잡았다. 육상선수였던 박세리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골프선수 생활을 시작했으며, 뛰어난 체력에다 남다른 감각으로 아마추어 시절 '프로 잡는 아마추어'로 명성을 떨쳤다. 중학교 3학년이던 1992년 KLPGA 투어에서 첫 승을 올렸고, 여고 졸업반이던 1995년에는 KLPGA 투어 12개 대회에서 4승을 올렸다.

1996년 KLPGA 투어 상금왕에 오른 박세리는 '한국 최고를 넘어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당찬 꿈을 안고 미국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리고 신화를 쓰기 시작했다.

박세리는 1998년 5월 17일 USLPGA 투어 맥도날드 LPGA 챔피언십에서 첫 승을 올렸다. 미국에 진출한 첫 해였다. 이 대회 우승 전, 박세리는 미국 투어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성적은 중하위권에 맴돌았고, 스폰서 측이나 주위 사람들은 조바심을 내고 있었다. 심지어 '국내로 돌아오라'는 조롱 섞인 비난도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거둔 승리이기에 맥도날드 LPGA 챔피언십 우승은 더욱 의미가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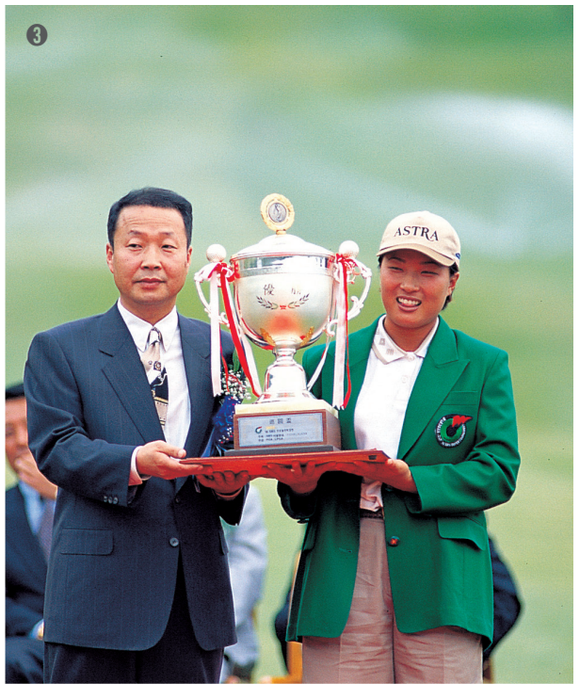


박세리는 이 승리의 여세를 몰아 USLPGA 투어 메이저대회 가운데서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US여자오픈에 도전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 4라운드 72홀을 마치고 6오버파로 1위를 기록, 당시 듀크대에 재학 중이던 태국계 미국인 제니 추아시리폰을 한 타 차로 제치고 우승을 거두는 듯 했다.

하지만 추아시리폰이 마지막 18번 홀에서 극적인 12m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는 바람에 경기는 결국 18홀 연장전으로 이어졌다. 이튿날 치러진 20번째 연장 홀에서 감동의 드라마가 쓰였다. 이 홀에서 전 국민의 탄식을 자아낸 장면이 나왔다. 박세리가 티샷한 공이 워터해저드 턱에 걸리고 만 것이다. 그것으로 승부는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박세리는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었다. 양말을 벗고 연못에 들어갔을 때, 까맣게 탄 종아리와 대비되는 그녀의 하얀 발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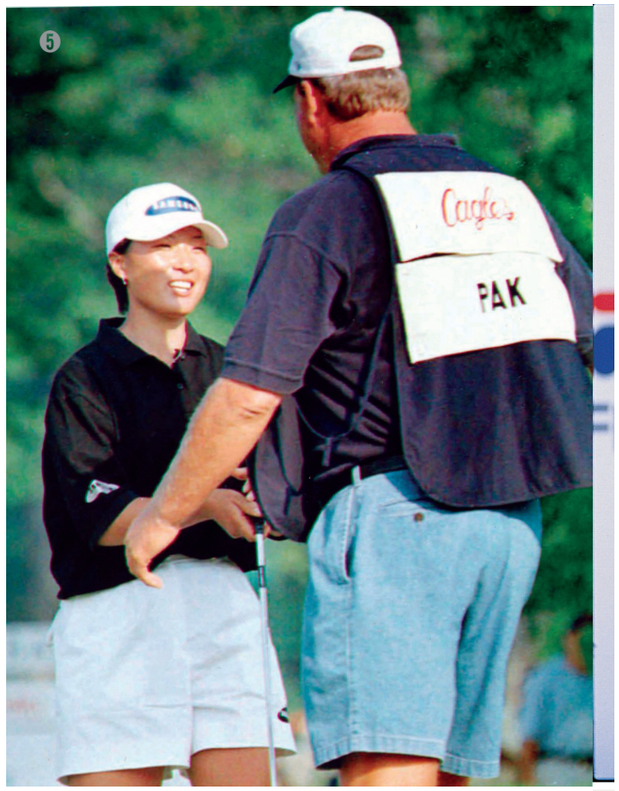




❶ 1993 제2회 톰보이 여자오픈, 우승자 박세리(당시 아마추어)
❷ 1995 크리스찬디올 여자오픈, 우승자 박세리(당시 아마추어)
❸ 1996 휠라여자오픈, 우승자 박세리
❹ 1997 제8회 한화컵 서울여자오픈, 우승자 박세리
❺ 1998 US여자오픈, 우승자 박세리

결국 박세리는 2오버파로 동타를 기록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데 성공했고, 두 선수는 서든데스 방식의 재연장전에 들어갔다. 재연장전 10번 홀에서 두 선수는 나란히 파를 기록했지만 11번 홀에서 추아시리폰이 6m 길이의 버디 퍼트를 놓쳐 파를 기록한 반면 박세리는 5.5m짜리 버디 퍼트를 극적으로 성공시켜 장장 5일에 걸친 기나긴 92홀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은 IMF 외환위기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때 악전고투 끝에 우승하는 모습이 전 국민들에게 생중계되면서, 박세리는 '할 수 있다'는 용기,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며 메이저리거 박찬호와 함께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올랐다.



이튿날 치러진 20번째 연장 홀에서 감동의 드라마가 쓰였다. 이 홀에서 전 국민의 탄식을 자아낸 장면이 나왔다. 박세리가 티샷한 공이 워터해저드 턱에 걸리고 만 것이다. 그것으로 승부는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박세리는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었다. 양말을 벗고 연못에 들어갔을 때, 까맣게 탄 종아리와 대비되는 그녀의 하얀 발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❺ 1998 맥도날드 LPGA 챔피언십 우승,
US여자오픈 우승으로 IMF 외환위기 당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박세리
❻❼ 1996 제4회 휠라여자오픈, 우승자 박세리
❽ 1996 동일레나운 우승자 박세리





Issue 11

2연속 패배 뒤 3연승

"여자골프는 한국이 한수 위다"

한일 여자 프로골프 국가대항전

한국과 일본 양국의 스포츠 교류와 우호 증진을 위해 KLPGA와 JLPGA가 매년 정기 대항전을 갖기로 논의를 시작한 것은 1999년 들어서였다. 그리고 제반 준비를 거쳐 같은 해 12월 4일 '한일 여자 프로골프 국가대항전' 제1회 대회가 열렸다. KLPGA는 김미현을 비롯해 구옥희, 펄신, 한희원, 이영미 등 해외파와 정일미, 이정연, 서아람, 이지희, 홍희선, 박금숙, 강수연 등으로 12명의 한국 대표단을 결성했으며, 주장은 구옥희가 맡았다. 일본 측에서도 1999년 USLPGA 투어 2승을 올린 후쿠시마 아키코, 48세의 백전노장 오카모토 아야코 등 쟁쟁한 선수들이 대거 대표단에 이름을 올렸다. 제주 핀크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제1회 한일 대항전에서 우리 팀은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지만 결국 종합 7승 2무 15패로 아쉬운 첫 대회 패배를 기록했다.

2000년 12월 2일부터 이틀 동안 역시 제주 핀크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제2회 한일 대항전에는 미국 USLPGA 투어를 누비고 있는 김미현, 박세리, 장정, 펄신 등이 선봉에 나선 가운데 JLPGA에서 활약 중인 구옥희, 고우순, 김애숙이 가세했다. 여기에 국내파 중에서는 2000년 시즌 상금랭킹 1위 정일미를 비롯한 정상급 선수들이 합류했다. 첫 날 홀매치로, 다음날 스트로크 플레이로 각각 승부를 가리는 이 대회에서 14명의 한국 대표팀은 원년 대회의 패배를 깨끗이 설욕하고 한국 여자골프의 우수성을 입증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지만 2연패를 기록하고 말았다.

마침내 2002년 설욕의 순간이 왔다. 그것도 한국이 아닌, 적지 일본에서였다.

한국 대표팀은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일본 오사카의 한나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한일 대항전'에서 종합전적 14승 2무 8패, 승점 30점으로 승점 18점에 그친 일본을 12점 차로 완파했다. 대회 MVP에는 첫날 싱글 매치플레이에서 4홀을 남기고 5홀을 이기는 승리를 거두고 둘째 날도 1승을 따낸 박세리가 선정되었으며, 박세리와 김미현, 장정, 한희원 등 USLPGA 멤버 4명은 이 대회에서 모두 8승을 수확, 미국 무대에서 드높였던 코리안 파워를 일본인들에게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❶ 1999 제1회 핀크스컵 한일전 전야제
❷ 2002 마루한컵 한일전 한국 우승 기념촬영
❸ 2002 마루한컵 한일전 MVP 박세리
❹ 2004 한일전 박세리
❺ 2004 핀크스컵 한일전에서 우승 확정 후 환호하는 한국팀

한편 우리 선수들은 패션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2001년 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은 노랑, 파랑, 빨강색을 주조로 한 유니폼을 입고 나왔으며, 특히 생중계된 최종일 경기에서는 빨간색 바탕인 소매 부분에 '건곤감리(乾坤坎離)' 라인을 도입하는 등 태극기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채택해 눈길을 끌었다.

2003년 12월 6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 핀크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한일 대항전에서 우리 대표팀은 총점 28점(12승 4무 8패)을 획득, 일본(20점, 8승 4무 12패)을 8점 차로 여유있게 따돌리며 2002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주장을 맡은 40대의 구옥희와 대회 MVP로 선정된 30대의 고우순의 변하지 않는 열정이 빛난 경기였다. 그리고 한국 대표팀은 이어진 2004년 12월 5일부터 일본 시가현 오츠 컨트리클럽에서 막을 내린 한일 대항전에서도 승리, 3년 연속 우승의 저력을 보였다. "한국 여자골프가 일본에 비해 한수 위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한국 대표팀은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일본 오사카의 한나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한일 대항전에서 종합전적 14승 2무 8패, 승점 30점으로 승점 18점에 그친 일본을 12점 차로 완파했다. 대회 MVP에는 첫날 싱글 매치플레이에서 4홀을 남기고 5홀을 이기는 승리를 거두고 둘째 날도 1승을 따낸 박세리가 선정되었으며, 박세리와 김미현, 장정, 한희원 등 USLPGA 멤버 4명은 이 대회에서 모두 8승을 수확, 미국 무대에서 드높였던 코리안 파워를 일본인들에게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❻ 2006 한일전 한국선수와 임원
❼ 2006 한일전 한일 양팀 주장들
❽ 2009 한일전 양팀 단체 기념촬영
❾ 2006 한일전 신지애
❿ 2009 한일전에서 응원하는 한국팀
⓫ 2009 한일전 최나연

Issue 12

드림투어 창설, 꿈은 이루어진다

스타급 선수의 산실, 드림투어

KLPGA는 2000년대 들어와 세계적인 투어로 도약을 거듭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더 높은 꿈을 이루기 위한 선수들의 열정과 도전이 밑거름되어 있었고, 그 '꿈'을 키워가는 산실이 드림투어였다.

1990년대 말부터 더욱 많은 우수 프로골퍼를 발굴해 프로무대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 KLPGA는 2000년 여자 2부 투어인 '미사일 드림투어'를 창설했다. 같은 해 5월 8일 첫 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즌에 돌입한 드림투어는 KLPGA 소속 준회원과 정회원 중 정규투어 시드를 얻지 못한 선수, 당해 연도 프로 테스트 통과자가 참가할 수 있는 2부 투어였다.

드림투어 창설 이후 초대 상금왕 조경희가 탄생했고, 이후 수많은 스타플레이어들이 드림투어를 통해 꿈을 현실로 바꾸어갔다. 후일 미국에서 활동한 이선화를 비롯해 배경은, 안시현, 홍진주, 김나리, 지은희 등이 드림투어를 통해 프로무대에 섰다. 이밖에도 2000년대 중반 KLPGA 무대를 호령한 안선주, 홍란, 김하늘 등도 드림투어를 거쳤다.

드림투어가 스타급 선수들의 산실로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2004년에는 국내 골프 역사상 최초로 시니어투어가 출범해 과거 스타플레이어들의 모습을 필드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아마추어선수들도 함께 출전할 수 있도록 해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또 2006년에는 역시 골프 역사상 최초로 3부 투어인 점프투어를 창설해, 더욱 많은 선수들에게 '꿈은 이루어진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주었다.







❶ 2003 드림투어 1차전 단체 기념촬영
❷ 2003 드림투어 1차전, 우승자 김나리
❸ 2003 드림투어 2차전, 우승자 박햇님
❹ 2003 드림투어 3차전, 우승자 공은정





Issue 13

‘코리안 드림’의 무대가 된 드림투어

외국 국적자 대상 특별회원제도 도입과 최초의 외국인 회원

‘꿈은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는 외국인 선수들에게도 보내졌다.

KLPGA는 2001년 2월 5일 정기총회에서 외국 선수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교포는 일반회원으로, 외국인은 특별회원으로 분류해 참가시키기로 했다.

이처럼 문호 개방을 위한 규정 개정은 2005년 2월 17일 정기총회에서도 추가 의결되었다. KLPGA 입회를 원하는 외국 국적 선수들을 위해 세부 규정을 마련, 드림투어 및 정규투어 시드권이 있는 자에 한해 회원 자격을 유지시키기로 했다.

이 규정에 따라 2005년 3월 21일 KLPGA 최초로 외국인 회원을 꿈꾸며 3명의 중국 여자골퍼들이 서울에 왔다. 모두 6년 전에 캐디 생활을 시작했고, 2000년부터 골프를 치기 시작해 구력이 만 4년 정도인 선수들이었다.

KLPGA 역사상 첫 외국인 회원은 왕쥐안이었다. 그녀는 2005년 4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경기도 가평의 썬힐골프클럽에서 열린 ‘제니아-엔조이 골프투어’ 시드 순위전에서 2라운드 합계 153타로 25위에 올라 KLPGA 역사상 첫 외국인 회원으로서 5월부터 시작된 드림투어 1~5차전에 참가했다.









❶ 2005 제니아-엔조이 골프투어 1차전 본선진출자 기념촬영
❷ 2005 제니아-엔조이 골프투어, 1차전에 참가한 왕쥐안
❸ 2005 제니아-엔조이 골프투어 5차전,
2006년도 시드면제 자격 획득(왼쪽부터 조영란, 안선주, 박아름)

Issue 14

한국 여자골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으로

CNN '세계 골프계의 10대 영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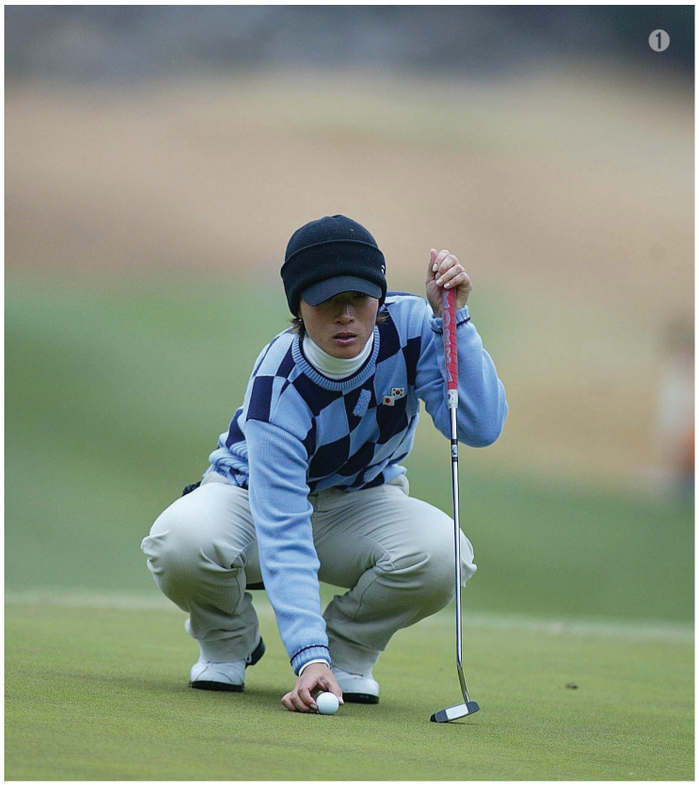
2000년대 들어와 한국 여자골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이자 세계인이 주목하는 특별한 가치로 자리매김했다. 국내는 물론 미국과 일본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여자 프로골퍼들의 도전과 열정 덕분이었다.

2001년 8월 삼성경제연구소는 '세계 여자골프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한국 낭자군단'이라는 부제가 붙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10대 일등상품'을 선정, 발표했다. 세계를 대표하는 우리나라 일등상품으로는 D램 TFT-LCD, CDMA 단말기, 셋톱박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LNG선 냉연강판, 폴리에스터 섬유, 인삼 등이 있었으며, 여기에는 '여자골프'의 이름이 당당히 올랐다.

2002년 12월에는 미국 CNN과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의 인터넷판인 'cnnsi.com'이 '2002년 세계 골프계의 10대 영웅'을 선정해 발표했다. 타이거 우즈, 안니카 소렌스탐, 어니 엘스, 리치 빔, 데이비드 톰스 등 톱 골퍼들과 우즈의 당시 애인 엘린 노르드그렌, USLPGA 커미셔너 타이 보타우 등이 세계 골프계에서 빛을 발한 10대 영웅으로 꼽혔으며, 여기에는 개인 이름이 아닌, '한국 프로골프'의 이름이 올랐다. 우리 여자 프로골퍼들을 포함해 대한민국 골프 전체의 위상을 고려한 결과였다.



이런 명성은 최근까지도 이어져, 2014년 9월 미국 CNN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것 10가지'라는 기사에서 '세계 톱 100 여자골프 선수 중 38명이 한국 여성'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그리고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한국 여자골프 선수들의 활약상을 특별히 언급하며 "한국의 골프 선수는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갖고 있다. 전 세계 10위권에 드는 훌륭한 선수다. 세계 4대 골프선수들이 모두 한국 출신이다.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극찬하기도 했다.











❶❷❸❹❺ 2000년대 초반 해외 투어 스타 박세리, 김미현, 박지은, 한희원, 안시현

Issue 15

데뷔 24년,
마흔여섯의 꺼지지 않는 열정

구옥희, 고우순과 JLPGA 메이저대회 시즌 3승 합작 달성

1984년 최초로 일본 무대 비공식대회에서 우승한 구옥희가 프로 데뷔 24년을 맞은 2002년, 마흔여섯의 나이에 다시 우리 프로골프의 역사를 썼다.

구옥희는 9월 15일 일본 다이헤이요 골프장에서 열린 JLPGA 투어 최종 라운드에서 1오버파 73타를 쳐 합계 5언더파 283타로 1타 차 정상에 올랐다. 일주일 전 후지산케이 레이디스 클래식에서 2년 만에 스무 번째 우승을 거둔 후 2연승이었다. 메이저대회인 JLPGA 선수권 우승으로 구옥희는 통산 21승을 거두었으며, 향후 3년간 전 경기출전권을 확보했다.

2002년 JLPGA 메이저대회는 3개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인 JLPGA 선수권대회에서 구옥희가, JLPGA 투어 챔피언십과 일본여자오픈에서 고우순이 우승했다. 2002년 JLPGA 메이저대회 3개를 모두 한국 여자 프로골퍼가 석권한 것이다.











❶❷❸❹ 2002년 고우순과 함께 JLPGA 메이저대회 시즌 3승을 합작 달성한 구옥희

Issue 16

구옥희,
'명예의 전당'에 오르다

'명예의 전당' 제도 신설과 제1호 헌액

KLPGA가 '명예의 전당' 제도를 도입한 것은 2004년 3월이었다. KLPGA는 정기 대의원총회 승인을 받아 '명예의 전당' 입회 기준을 마련했으며, 모두가 인정할 수 있고 '명예의 전당'이라는 위상에 부합하는 입회 조건을 마련했다. 그 기준은 '10년 이상 국내외 정규투어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것과 '메이저대회 우승, 시즌 최저타수상, 최우수선수상 한 차례 이상 수상', 그리고 '입회 포인트 100점 충족'으로 요약된다.

'명예의 전당' 첫 주인공은 약 7개월 후에 탄생했다. 12월 8일 한국여자프로골프 대상 시상식에서 JLPGA 투어의 주역 구옥희가 KLPGA '명예의 전당' 1호 입회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 여자 프로골퍼들의 해외 진출에 물꼬를 튼 주인공이, 우리나라 여자골프가 세계적인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시점에 바로 '명예의 전당' 1호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1978년 탄생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프로골퍼 중 한 사람인 구옥희는 국내 대회 20승과 1988년 스탠다드 레지스터 더콰이즈 클래식을 제패,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USLPGA 투어에서 우승하는 등 미국과 일본 대회에서 25승 등 총 45승을 올려 입회 포인트 112점을 획득, 헌액 자격 포인트를 초과했다.







❶❷❸❹2004 KLPGA 명예의 전당 입회 1호 구옥희





Issue 17

KLPGA,
분단의 아픔을 넘어 금단의 땅으로

최초의 평양오픈

평양골프장은 1928년 11월 28일 경성과 대구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문을 연 골프장이다. 대동강변 명승지를 낀 시내 의암리에 전장 2,550야드 9홀 코스로 탄생한 곳이지만, 분단의 아픔과 함께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곳이 되고 말았다.

그 금기의 땅을 KLPGA가 열었다. KLPGA는 2005년 4월 18일 정기이사회에서 KLPGA 투어 평양대회를 공인했다. 대한민국 최초로 평양골프장에서 열리는 '2005년 평화자동차 KLPGA 평양오픈골프대회'를 통해 남북한 화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로 한 것이다.

8월 27일 프로암대회, 8월 28일과 29일 2라운드 경기가 열린 이 대회에는 KLPGA 소속 프로 30명이 참가하여 열전을 벌였으며, 참가 프로들은 2라운드 대회를 치른 뒤 29일에는 일반 아마추어 참가자들과 함께 라운드를 가졌다. KLPGA가 주관하고 남북 합작회사인 평화자동차와 세계일보가 후원한 이 대회에는 2004년 KLPGA 3관왕 송보배와 최나연 등 신예들과 상금랭킹 상위 30명 이내의 선수들이 모두 참여해 대회의 의미를 더했다.

북한에서 처음 열린 공식 프로골프대회 우승자는 송보배였다. 송보배는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1개로 2언더파 70타를 쳐 최종합계 7언더파 137타로 정상에 올랐다. 우승상금 1,800만 원과 함께 평양에서의 KLPGA 투어 우승이라는 더욱 큰 영예를 안은 것이다.





2005 KLPGA 평양오픈골프대회, 우승자 송보배(사진 출처: 세계일보)

Issue 18

색동옷을 차려입은 KLPGA

새 로고와 CI

골프로 새로운 세상을 열며 KLPGA가 새 얼굴을 선보였다.

2005년 9월 15일, KLPGA가 발표한 새 로고는 '현대적 감각'이라는 말로 평가되었다. 빨강, 파랑, 노랑의 색동색을 활용해 '현대적 감각'을 살림으로써 한국의 전통과 글로벌 감각을 더한 것이라 할 수 있었다. '색동(色動, Stripes of Many Colors)'은 '색색으로 이어 만든 것'을 의미하며, 한자어에서 '색(色)'은 색깔을, '동(動)'은 '한 칸'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오색 빛깔의 헝겊을 층이 지게 차례로 잇대어 만든 저고리나 두루마기의 소맷감을 말하며, 색동은 삼국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사용되어 왔다. 특히 명절과 같은 경사스러운 날 색동 복식을 착용함으로써 다채로운 이미지가 이루어 내는 화려함으로 즐거운 기분을 나타낸다.

여성스러움과 전통미, 세계적 감각을 고려하여 KLPGA는 이 색동을 활용, '열정'과 '스포츠맨십'을 상징하는 동시에 '세계로 뻗어나가는 비전'을 나타냈다. '저고리나 두루마기의 소맷감'이라는 의미에 맞게 새 CI의 표현 주제는 'Silk & Steel'이었다. 여성과 골프가 공통적으로 '부드러운 섬세함'과 '힘 있는 역동성'이란 속성을 갖고 있는 까닭이다. 빨강색을 주색(主色)으로 한 영문 워드마크형 또한 여성이 주체임을 암시하며, 'Korea'를 나타내는 'K'에도 색동색을 적용함으로써 한국의 정체성을 국제적 감각으로 표현했다.

2005년 KLPGA의 새 로고는 이처럼 독특한 퍼스널리티를 담고 우리나라, 여성, 골프, 그리고 세계를 지향하고 있었다.

KLPGA

사단법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KLPGA
Korea Ladies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

Korea Ladies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KLPGA



2005 KLPGA 새 로고와 CI 및 전용색상

Issue 19

중국 골프계와
교류 확대를 위한 전기

KLPGA 첫 중국 정규대회

2005년 평양에서 첫 투어를 가진 KLPGA는 2006년에는 중국으로 무대를 옮겼다. KLPGA는 11월 16일부터 나흘 동안 중국 하문의 동방하문골프장에서 '2006 오리엔트 차이나 레이디스 오픈'을 개최, 첫 중국 정규투어 대회 개최 기록을 썼다. 동방하문골프장이 주최하고 KLPGA가 중국골프협회(CGA)와 공동으로 주관한 이 대회에는 KLPGA 소속 프로골퍼 40여 명을 포함해 중국, 미국, 홍콩, 유럽 등지의 120여 명 선수들이 참가하여 4라운드 72홀 스트로크플레이로 우승을 다투었다.

대회 최종일, 신지애가 3타를 줄여 4라운드 최종합계 17언더파 271타로 우승했다.



이미 다승왕과 상금왕, 신인왕을 확정지은 신지애는 KLPGA 사상 처음으로 중국에서 열린 대회에서 우승하며 '2006년 최고의 선수'임을 다시 입증했다. 2위는 최나연, 공동 3위는 안선주, 서보미였다. 우승이 확정된 후 신지애는 "멀리 중국까지 와서 우승을 차지해 특히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회를 통해 KLPGA와 CGA가 처음으로 공식 만남을 가졌으며, 그 결과 중국 골프계와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현지 광둥스타 TV 골프채널을 통해 아시아 전 지역으로 중계방송되어 우리나라 골프를 알리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한편 KLPGA는 2007년 시즌 개막전을 상하이 빈하이골프장에서 개최함으로써 곧바로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해갔다.









❶❷❸❹ 2006 오리엔트 차이나 레이디스 오픈, 우승자 신지애

Issue 20

박세리,
'골프계의 살아있는 전설'이 되다



LPGA와 KLPGA '명예의 전당' 동시 헌액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명예의 전당'은 지난 1950년 창설된 '여자골프 명예의 전당'을 기반으로 1967년 정식 설립되었다. '여자골프 명예의 전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1951년에 처음으로 선수들이 헌액되었고, 이후 세계의 내로라하는 여자골퍼들이 뒤를 이었다.

그리고 2005년 LPGA '명예의 전당'에는 새로운 주인공이 이름을 올렸다. 최연소이자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이름을 올린 선수는 바로 박세리였다.

2007년 11월 13일 박세리는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오거스틴에 있는 월드골프빌리지에서 미국 여자골퍼 낸시 로페즈로부터 '명예의 전당' 입회 트로피를 받았다. 로페즈는 이미 '명예의 전당' 회원이었으며, 박세리로부터 '정신적인 어머니'로 불리던 선수였다.

'여자골프 명예의 전당'을 전신으로 1967년 설립된 'LPGA 명예의 전당'은 1998년부터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The World Golf of Fame)'으로 통합되었으며, 이에 따라 'LPGA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면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따라서 박세리는 'LPGA 명예의 전당'과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에도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이어 2007년 12월 3일에는 박세리가 한국여자프로골프 대상 시상식에서 'KLPGA 명예의 전당'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3년 전 구옥희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였다.

미국 진출 10년 동안 USLPGA 메이저대회 5승 등 통산 24승을 거둔 박세리는 'LPGA 명예의 전당'과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 'KLPGA 명예의 전당'에 동시에 이름을 올리며 '골프계의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❶ 2002 KLPGA 대상 시상식, 대상 박세리
❷❸❹ 2006 한일전에 참가한 박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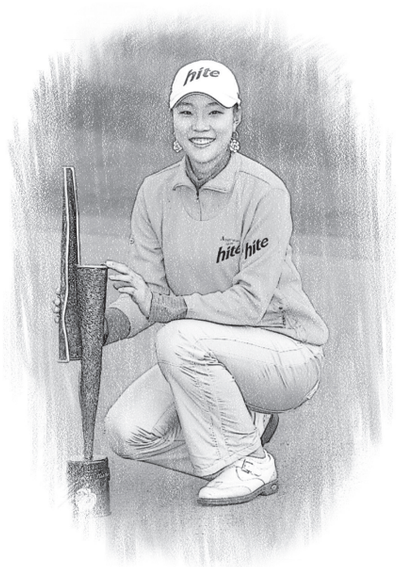
Issue 21

유럽과 한국,
제주에서 만나다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 공동 대회 국내 첫 개최

KLPGA가 세계 속으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던 2008년,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 대회가 사상 처음으로 국내에서 열렸다. KLPGA와 LET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세인트포 레이디스 마스터즈'가 그것이었다. 당시 LET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명예의전당'에 오른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 로라 데이비스(잉글랜드),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 등을 배출한 명문 투어로서, 세계화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한국에서의 대회 개최를 결정한 것이다.

KLPGA로서도 또 다른 기회였다. 한국 여자 프로골프의 새로운 장을 여는 대회로 삼아 향후 LET와의 활발한 교류와 양 투어 소속 프로선수들에게 훌륭한 대회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회는 2008년 11월 14일부터 사흘간 제주도 세인트포골프장에서 열렸으며, 총상금 30만 달러를 두고 KLPGA 및 LET 소속 프로골퍼 108명이 참여했다. 이들 출전 선수 108명은 KLPGA 및 LET 투어 소속 선수가 절반씩 나누는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했다. USLPGA 투어도 2002년부터 한국에서 대회를 개최하고 있었지만 '세인트포 레이디스 마스터즈'는 정규대회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선수 참여의 동기부여로서 의미가 컸다.

11월 16일 최종 라운드에서 서희경이 후반 9홀에만 6타를 줄이는 대역전극을 펼치며 시즌 5승을 달성했다. LET 투어를 겸한 이 대회 제패로 서희경은 3년간 LET 투어 출전권을 손에 넣었다.









❶❷❸❹ 2008 세인트포 레이디스 마스터즈, 우승자 서희경

Issue 22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안겨지는 영예로움

KLPGA 위너스클럽 신설

KLPGA는 2009년 위너스클럽 제도를 신설해 같은 해 12월 9일 한국여자프로골프 대상 시상식에서부터 수상자를 배출했다. 'KLPGA 위너스클럽'은 생애 최초로 우승을 거둔 선수들에게 돌아가는 상으로서, 그 해 첫 우승의 기쁨이 채 가시지 않은 선수들에게는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안겨지는 영예로움이었다.

2009년 위너스클럽 제1회 수상자는 김현지, 이보미, 이정은5, 이현주였으며, 2017년에는 이정은6를 비롯한 총 10명의 생애 첫 우승자가 위너스클럽에 가입함으로써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위너스클럽 주인공이 된 선수들은 다음과 같다.



▶ **역대 위너스클럽 수상자 명단**

2009 김현지, 이보미, 이정은5, 이현주

2010 김보배, 안신애, 양수진, 이정민, 장수화, 조윤지, 편애리, 함영애

2011 박유나, 변현민, 심현화, 양희영, 윤슬아, 이미림, 이승현, 정연주

2012 김자영2, 김지현2, 김효주, 양지승, 이예정, 장하나, 정혜진, 정희원

2013 김다나, 김세영, 배희경, 이민영2, 전인지, 최유림, 허윤경

2014 고진영, 김민선5, 백규정, 윤채영

2015 박성현, 오지현, 최혜정2, 하민송, Haru Nomura

2016 김예진, 김해림, 박성원, 박지영, 배선우, 양채린, 이소영, 장수연, 조정민

2017 김지영2, 김지현, 김혜선2, 박민지, 박보미2, 박신영, 이다연, 이정은6, 이지현2, 지한솔, 최혜진











❶ 2009 KLPGA 위너스클럽 수상자들
❷ 2009 위너스클럽 수상자 이보미
❸ 2010 KLPGA 위너스클럽 수상자들
❹ 2011 KLPGA 위너스클럽 수상자들
❺ 2017 KLPGA 위너스클럽 수상자들

Issue 23

‘세계 1위’는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다

신지애, 세계 랭킹 1위 등극

신지애의 비상은 놀라웠다. 그녀는 ‘신인’을 뜻하는 ‘루키(Rookie)’임에 분명했지만 그 앞에 ‘슈퍼’라는 수식어가 붙은 ‘슈퍼 루키’였다.

2006년 12월 7일 한국여자프로골프 대상 시상식에서 18세의 신지애는 대상과 신인상, 상금왕, 다승왕, 최저타수상을 한꺼번에 받았다. 데뷔 첫 해인 2006년 3승을 획득, 시즌 상금 3억 7,405만 원으로 KLPGA 사상 처음 3억 원을 넘었고, 라운드당 평균타수도 69.72타로 여자골프 최초로 60대 타수를 기록했다. 따라서 신지애의 5관왕은 놀라우면서도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2년 후인 2008년 10월, 20세를 맞은 신지애는 또 다른 금자탑을 쌓았다. 사실상 한국여자프로골프 고별무대였던 KB국민은행 스타투어 4차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연장접전 끝에 우승컵을 안았으며, 이로써 그랜드슬램이라는 대기록과 상금 7억 원 돌파, 상금왕과 대상 확정 등 뜻깊은 이정표를 세웠다. KLPGA에서 한 시즌 메이저대회 3개를 모두 우승하는 그랜드슬램은 처음이었다.



다시 2년 후인 2010년 5월, 신지애는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여자골프 세계 랭킹 1위에 올라 7주 동안 자리를 지켰다. 당시 나이는 22세 5일로, 최연소 세계 랭킹 1위 등극이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11월 다시 정상에 올라 총 25주간 정상의 자리를 지키며 한국 여자골프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신지애의 세계 랭킹 1위 등극은 2013년 박인비, 2017년 유소연, 박성현으로 승계되었다. 2017년까지 전 세계에서 랭킹 1위에 오른 선수는 모두 12명이었고, 그 가운데 우리나라 선수가 4명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2018년 4월에는 박인비가 다시 세계 랭킹 1위를 되찾았다.









❶❷❸ 2006 KLPGA 대상 시상식에서 5관왕을 차지한 신지애
❹ 2008 KB국민은행 스타투어, 4차전 우승자 신지애

Issue 24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값진
아름다운 100걸음

한국계 통산 USLPGA 투어 100승 달성

최나연은 2011년 10월 1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골프장에서 열린 USLPGA 사임다비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올랐다. 최나연의 시즌 첫 USLPGA 우승이었지만 그보다 더욱 큰 의미가 있는 승리였다는 걸 최나연 본인은 경기 이후에야 확인했다. 이 우승 기록으로 USLPGA 한국계 선수 100승이 드디어 수립된 것이다.

미국무대 통산 100승의 길은 멀고도 험했다. 1988년 구옥희가 스탠다드 레지스터 더콰이즈 클래식에서 처음 우승한 이후 23년을 걸어온 길이었다. 이후 역시 일본에서 뛴 고우순이 1994년과 1995년 일본에서 열린 도레이 재팬 퀸스컵에서 2년 연속 정상에 올라 USLPGA 챔피언의 계보를 이었다. 본격적인 USLPGA 정복 역사는 박세리가 1998년 메이저대회인 USL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서 시작되었으며, USLPGA 통산 25승을 기록하며 100승의 금자탑에 든든한 받침대를 세웠다. 그리고 김미현, 박지은, 한희원, 장정 등이 100승 고지를 향해 큰 힘을 보탰고, 이후 이른바 '박세리 키즈'가 등장해 한국 골프의 매서운 맛을 이어갔다.

2011년 마침내 한국계 선수 통산 100승을 기록한 이후 200승, 300승까지의 길은 다소 빨라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100승까지의 그 길은 KLPGA의 탄생과 여자골프의 불모지 개척, 낯선 해외에서의 고난으로 이어진 과정이었다. 따라서 200승, 300승의 의미와는 다른, 한 승 한 승 그 걸음이 다 값진 아름다운 100걸음이었다.













❶ USLPGA 투어 한국계 선수 통산 100승을 기록한
최나연(사진은 2010 USLPGA 하나은행 챔피언십 우승 당시)
❷ 김미현
❸ 박지은
❹ 한희원
❺ 장정

Issue 25

Do Dream
With KLPGA Golf Camp!

KLPGA 재능기부 프로그램

KLPGA 재능기부 프로그램은 골프선수의 꿈을 간직한 꿈나무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유소년 지원 사업이다. KLPGA를 대표하는 유명 선수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강연부터 필드 레슨까지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2013년 처음 시작한 KLPGA 재능기부 프로그램 'Do Dream With KLPGA Golf Camp'는 7월 25일부터 이틀 동안 충북 청원에 위치한 청원행정초등학교에서 열렸다. 방과 후 골프반 학생 18명과 함께 한 이 프로그램에는 2013년 시즌 KLPGA 투어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김혜윤, 양수진, 장하나, 전인지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골프 꿈나무들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프로그램 첫째 날에는 김혜윤이 '골프, 그리고 나의 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으며, 이어 장소를 청원행정초등학교 내 골프연습장으로 옮겨 골프 레슨을 진행했다. 4명의 선수들은 각각 자신에게 배정된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기술들에 대해 설명하고 시범을 보이는 등 '원 포인트 레슨'을 통해 살아있는 생생한 강의를 진행했다.

프로그램 둘째 날에는 장하나, 전인지가 학생들과 함께 실전 연습을 위해 충북 청원 실크리버 컨트리클럽을 찾았다. 2시간 동안 9개 홀을 돌며 진행한 실전을 대비한 필드 레슨을 통해 골프 꿈나무들의 꿈은 더욱 커져갔다.

학생들과 아쉬운 이별을 하고 돌아서는 선수들은 '기부'를 할 수 있는 '재능'이 있음에 감사했다. 그리고 'Do Dream With KLPGA Golf Camp'가 더 많은 아이들에게 더 오래도록 꿈을 주기를 기원했다.





2013 KLPGA 재능기부 프로그램 'Do Dream With KLPGA Golf Camp'

Issue 26

63년 만에
박인비가 새로 쓴 USLPGA 역사

메이저대회 3연승과
한국인 최초 USLPGA '올해의 선수상' 수상

박인비가 2013년 7월 1일 미국 뉴욕주 서보낵골프장에서 열린 제68회 US여자오픈 마지막 날 2오버파 74타를 쳐 최종합계 8언더파 280타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1950년 베이브 자하리아스가 세운 시즌 개막 후 메이저대회 3연승을 기록한지 63년, 비로소 USLPGA 메이저대회 3연승의 타이기록이 세워지는 순간이었다. 박인비는 2008년 US여자오픈 우승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메이저대회 4승을 포함해 개인 통산 9승을 쌓았으며, 2013년에만 시즌 6승을 거두며 2001년과 2002년 박세리가 세운 한국 선수 시즌 최다승 기록(5승)도 넘어섰다.

박인비는 이 대회 우승으로 상금 58만 5,000달러를 추가해 USLPGA 무대에서 2년 연속 상금왕 수상의 기록을 달성했다. 그리고 한국인 최초의 '올해의 선수상' 수상이라는 값진 역사도 새로 썼다.







❶❷한국인 최초 USLPGA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한 박인비
(사진은 2017 박인비 인비테이셔널 포볼매치 플레이 당시)

Issue 27

팬들과 함께
호흡하는 KLPGA

로고송 공개와 함께 부르기 캠페인

골프 팬들이 KLPGA를 노래하기 시작했다.

KLPGA는 2014년 8월 8일 국내 골프협회 최초로 로고송을 공개했다. 로고송은 여자 프로골퍼의 밝고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하여 제작했으며, 세계로 널리 뻗어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친근한 KLPGA가 되고자 하는 바람을 가사에 담아 표현했다.

KLPGA는 8월 8일 열린 '제1회 교촌허니 레이디스 오픈' 중계방송 엔딩곡으로 로고송을 처음 선보였으며, 추후 KLPGA 주관 방송사인 SBS 골프채널 및 각종 KLPGA 행사, 제작 영상 등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KLPGA는 새로운 공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IOS 버전 서비스도 출시하여 스마트폰 전 기종에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KLPGA 공식 애플리케이션은 KLPGA 소식과 뉴스 등 골프 관련 다양한 정보는 물론 실시간 경기 현황과 선수, 기록 등 대회 관련 데이터서비스를 스마트폰에 최적화하여 제공함으로써 골프산업 관계자들은 물론 일반 갤러리도 쉽고 빠르게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2014년 9월 3일부터 장하나, 김효주 등 제6대 KLPGA 홍보모델들이 KLPGA 전속 걸그룹으로 변신, '로고송 함께 부르기 캠페인' 영상을 촬영해 관심을 모았다.



골프 대중화와 올바른 골프문화 형성을 위한 이 캠페인 영상은 모두 3편으로서, 먼저 공개한 1편 'YOU ARE THE BEST GALLERY'와 2편 '팬들과 함께 호흡하는 KLPGA'는 많은 골프 애호가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 아울러 2015년 6월 공개한 캠페인 영상 3편 '필드로 떠나는 행복나들이, 함께 해요 KLPGA' 또한 대회 현장에서 선수와 함께 호흡하며 경기를 즐기는 행복한 가족의 영상을 화면에 담아 폭넓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❶ KLPGA 로고송 함께 부르기 캠페인 영상
❷ 'YOU ARE THE BEST GALLERY' 캠페인 영상
❸❹ '팬들과 함께 호흡하는 KLPGA' 캠페인 영상
❺ '필드로 떠나는 행복나들이, 함께 해요 KLPGA' 캠페인 영상



Issue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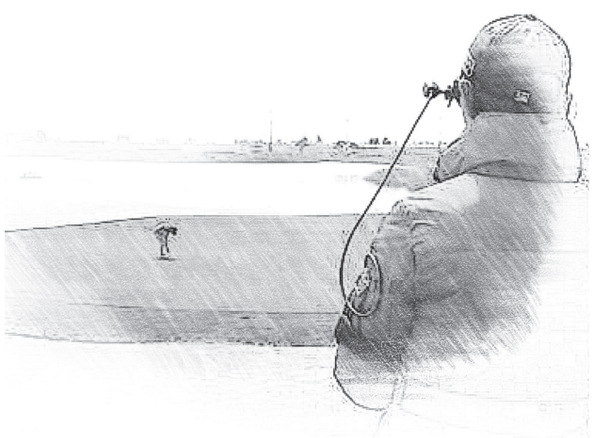
골프장 위의 **블랙박스**

첨단장비 도입과 경기 수준 향상

"어, 저게 뭐지?"

2015년 4월 롯데마트 여자오픈에는 평소 골프장에서 보기 힘든 낯선 장비가 갤러리들의 눈길을 끌었다. KLPGA 경기위원들이 착용한 카메라 모양의 블랙박스였다. KLPGA는 원활한 경기 진행과 공정한 규칙 판정을 위해 심판 역할을 하는 경기위원들에게 휴대용 블랙박스를 지급했으며, 이날부터 7명의 경기위원이 모자에 달린 블랙박스를 착용하고 대회장을 분주하게 누볐다.

경기 운영에 블랙박스를 적용한 사례는 KLPGA가 세계 최초였다. 미국과 일본 등 세계 주요 프로골프 투어도 TV 중계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에 의존하거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뿐이다. 블랙박스 도입 후 더욱 정확한 판정을 할 수 있었으며, 분쟁이나 혼선이 생길 가능성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KLPGA는 역시 세계 최초로 그린경도측정기와 토양수분측정기도 2015년 시즌부터 처음 도입했다. 특히 토양수분측정기는 그린, 티잉 그라운드 및 페어웨이의 토양 습도를 현장에서 측정해 최적의 코스 상태를 유지하는 첨단 장비였으며, 이 장비들이 측정한 현장 자료들은 대회장에서 라운드별로 선수들에게 공지되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다.

역시 2015년 4월 롯데마트 여자오픈부터는 KLPGA 투어 기간의 기상정보를 날씨 정보 전문 채널인 'YTN 웨더'를 통해 제공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유일의 날씨 전문 채널인 'YTN 웨더'의 신규 프로그램인 '렛츠GO! KLPGA 2015'는 KLPGA 투어 기간의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온과 날씨, 기상 상태에 따른 유의사항을 비롯해 대회 관전 팁, 골프장 코스 정보 등에 이르기까지 대회장을 찾는 갤러리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❶❷❸ 'YTN 웨더'의 '렛츠 GO! KLPGA 2015' 프로그램 화면
❹❺ 2015년부터 도입된 블랙박스와 이를 착용하고 있는 KLPGA 경기위원

Issue 29

한국 선수가 일본 여자골프 투어의 **융성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이보미, JLPGA 사상 상금 최고액 달성

2015년 11월, 일본 언론들이 한 한국 여자 프로골퍼에게 집중했다. JLPGA 투어 시즌 상금 최고 기록인 2억 엔을 돌파한 이보미가 주인공이었다.

이보미는 11월 15일 일본 지바현 그레이트 아일랜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JLPGA 투어 이토엔 레이디스 골프 토너먼트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3개로 3언더파 69타(최종합계 14언더파 202타)를 기록, 시즌 6승, 통산 14승을 거두며 JLPGA 투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우승 상금 1,800만 엔을 받은 이보미는 남은 2개 대회 성적과 상관없이 '상금퀸' 타이틀을 확정했으며, 시즌 상금 2억 781만 7,057엔으로 JLPGA 투어 사상 최고액을 경신하는 동시에 JLPGA 투어 최초로 2억 엔을 돌파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보미가 노력한 결과인 동시에 일본 여자골프 투어의 융성을 상징한다"고 평가했으며 "일본 투어에 진출한지 5년 만에 상금퀸에 등극한 이보미가 지금도 이동 중에는 일본어 교재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또 마이니치신문은 "이보미가 상금퀸에 오르면서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보미는 일본 내 '골프 한류(韓流)'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2015, 2016년 2년 연속 상금왕을 차지한 이후 이보미는 한국판 '짱구는 못 말려'이자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인 '크레용 신짱'에 캐릭터로 등장할 만큼 대단한 인기를 누렸다. 한국 아이돌그룹 수준의 팬덤을 보유해 경기 때마다 구름 관객을 몰고 다니는 그녀는, 유창한 일본어로 현지 팬들과 소통하며 2017년 10만 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❶



❷



❸



❹

❶❷❸❹ JLPGA 투어 사상 상금 최고액을 경신한 이보미
(사진은 2017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당시)

Issue 30

진정한 퀸을 찾아

한국, 일본, 호주, 유럽 4개 투어 대항전 '더퀸즈' 창설

2015년 12월 4일부터 사흘간 일본 미요시 컨트리클럽에서 4개 투어 대항전 '더퀸즈' 대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한국과 일본, 호주, 유럽 등 4개 여자 프로골프 투어의 최정상급 선수들이 샷 대결을 벌이는 이 대회는 1999년부터 열려온 한일 대항전이 4개 협회의 투어 대항전으로 확대된 것이었다. 2014년 한일 대항전에서 25대 11로 크게 이기는 등 한국은 역대 전적 7승 2무 3패로 일본을 크게 앞섰고, 특히 2012년 이후 3회 연속 10점 차 이상의 완승을 거둬 무용론이 대두한 가운데 유럽과 호주의 가세로 새로운 흥밋거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각 투어별 9명씩 총 36명의 선수가 참가해 각 투어의 자존심을 걸고 기량을 겨룬 이 대회는 투어 대항전이지만 해당 협회 국적 선수만 출전할 수 있어 국가 대항전 성격도 띠고 있었다.

첫 대회에서는 KLPGA 대표팀이 JLPGA팀에 초대 챔피언 자리를 내주고 준우승에 그쳤지만 1년 만인 2016년 12월 4일 곧바로 패배를 설욕했다. 미요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더퀸즈' 최종일, 신지애를 비롯한 8명으로 구성된 KLPGA 대표팀은 일본과의 1~2위 결정전에서 7승 1무의 완승을 거뒀다. 유럽여자프로골프(LET)와 호주여자프로골프(ALPG)가 맞붙은 3~4위전에서는 LET가 4승 1무 3패로 근소하게 승리를 거두고 3위를 차지했다.

2017년 12월 3일 미요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더퀸즈 마지막 날에는, 우리 대표팀이 일본과 벌인 결승전에서 1무 3패를 기록,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❶ 2015 더퀸즈, 준우승 후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는 주장 이보미
❷ 2015 더퀸즈, 참가 선수들
❸ 2016 더퀸즈, KLPGA 우승기념 단체사진
❹ 2017 더퀸즈, 4대 투어 선수들 기념촬영
❺ 2016 더퀸즈, 주장 신지애와 김민선

Issue 31

‘아시아의 골프 허브’로서
날개를 펴다

베트남 첫 윈터투어 개최

KLPGA는 2016년 2월 21일 베트남 하노이의 스카이레이크리조트 골프 클럽에서 비공식 이벤트대회로 ‘한국투자증권 챔피언십 with SBS’를 개최했다. KLPGA 윈터투어로서 처음 개최한 이 대회에서는 정예나가 3언더파 141타로 우승했다.

이에 앞서 KLPGA는 2016년 1월 16일 베트남 달랏에 위치한 더달랏 at 1200 컨트리클럽에서 ‘더달랏 at 1200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개최 조인식을 가졌다. 이 대회는 KLPGA의 공식 기록으로 인정되는 정규투어이며, 계약기간은 3년, 대회 총상금액은 5억 원이었다.

3월 25일부터 사흘간 2016년 시즌 첫 정규투어이자 윈터투어로는 두 번째로 열린 ‘더달랏 at 1200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선수들은 새로운 골프 환경을 만끽했다. 더달랏 at 1200 컨트리클럽은 해발 1,200~1,600m의 고지대에 조성된 골프장으로서, 해발 고도가 높아 덥고 습한 베트남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사계절 모두가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달랏의 고지대 특성상 비거리가 평지보다 더 늘어난다. 대회 우승은 최종합계 5언더파 211타를 기록한 조정민이 차지했다.

이 대회를 통해 KLPGA 투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점차 많은 대회를 개최하며 글로벌 투어로서의 위상을 과시했다. 또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시장을 개척하고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그 범위를 베트남으로 넓혀 ‘아시아의 골프 허브’로서 성장해 나가기 위한 날개를 더욱 활짝 펼쳤다. 이처럼 투어 무대 확대뿐 아니라 처음으로 윈터투어를 개최해 투어 개최 시기와 운영 등에 탄력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❶❷ 2016 제1회 윈터투어 한국투자증권 챔피언십 with SBS, 우승자 정예나
❸❹❺ 2016 제2회 윈터투어 더달랏 at 1200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조정민



Issue 32

KLPGA 투어의 외국 선수들, 고국으로 승전보를 전하다

인터내셔널 퀄리파잉 토너먼트 개최

KLPGA는 2015년 외국인 선수에 대한 문호도 적극 개방하여 글로벌 투어의 면모를 거듭 확인했다. '세계 No.1' 투어로서 다양한 시도를 해온 KLPGA는 9월 1일부터 나흘간 외국인 선수에게 투어 활동 기회를 주는 인터내셔널 퀄리파잉 토너먼트를 처음으로 개최하고, 세계적인 투어로 도약하기 위해 다시 큰 걸음을 내딛었다.

인터내셔널 퀄리파잉 토너먼트는 만 18세 이상 해외 국적을 소지한 프로 또는 아마추어가 참가할 수 있으며, 상위 30% 이내의 선수는 KLPGA 정규투어 시드 순위전 예선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아 세계 수준의 KLPGA 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첫 단계를 밟게 되었다.

2017년 8월 1일에는 인터내셔널 퀄리파잉 토너먼트를 태국에서 열어 첫 해외 개최 기록을 세웠다. 2016년 2회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이 대회를 태국의 더로얄젬스 골프 앤 스포츠클럽에서 개최함으로써 KLPGA의 글로벌화에 발맞추고 더 많은 외국 선수들의 출전을 독려하고자 한 것이다. 매년 규모가 확대되어, 첫 해에 6명이 출전했던 데 비해 2016년 20명이, 2017년 54명이 도전장을 내밀었으며, 국적도 태국은 물론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총 13개국으로 늘어났다.

KLPGA의 선수들이 매주 해외에서 반가운 우승 소식으로 한국을 세계에 알리며 국위 선양을 하고 있듯이, KLPGA 투어에서 많은 외국 선수들이 고국으로 승전보를 전하고 있다.









❶ 2015 인터내셔널 퀄리파잉 토너먼트, 우승자 나가이 가나
❷ 2016 인터내셔널 퀄리파잉 토너먼트
❸ 2017 인터내셔널 퀄리파잉 토너먼트, 우승자 첸 유주

Issue 33

리우 올림픽
필드의 태극기

박인비, 최초의 커리어 그랜드슬램과 세계 최초의 그랜드슬램 달성

2015년 8월 3일, 출생한지 27년 21일이 되는 날 박인비가 여자골프 사상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최연소 기록은 캐리 웹의 26세 6개월 3일이었지만, 박인비의 기록은 아시아 선수로는 남녀 최초의 위업이었다. 이날 영국 트럼프리조트 골프클럽에서 끝난 '리코 브리티시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박인비는 4개 메이저대회를 석권하며 역사적인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커리어 그랜드슬램은 '평생에 걸쳐 4개 메이저대회를 석권하는 일'을 뜻하는 것으로서, 박인비는 2008년 US여자오픈, 2013년 나비스코 챔피언십과 USLPGA 챔피언십에 이어 여자골프 사상 일곱 번째,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의 대기록을 달성했다.

그로부터 1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박인비는 자신의 대기록이자 대한민국 골프의 대기록을 다시 세웠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골프코스에서 열린 여자부 최종일 경기에서 합계 16언더파 268타로 한국계 리디아 고를 5타 차로 제치고 우승컵을 안은 것이다. 2015년 8월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이루고 LPGA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박인비는 남녀 골프를 통틀어서 올림픽을 제패한 세계 최초의 그랜드슬래머가 되었다.

올림픽에 골프가 부활한 것은 1900년 프랑스 파리대회 이후 무려 116년 만이었다. 그리고 21세기 첫 올림픽 골프 챔피언 단상에는 박인비가 올랐고, 애국가가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2016 리우 올림픽 여자골프 금메달 수상자 박인비

Issue 34

전인지,
그 자체가 기록이 되다

미국 메이저대회 최소타 기록 경신,
신인상 및 평균 최저타수상 동시 수상



전인지는 2015년 5월 JLPGA 투어 '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 살롱파스컵'과 USLPGA 투어인 US여자오픈, 같은 해 7월 KLPGA 투어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서 연이어 우승하며 세계 3대 투어로 통하는 한국, 미국, 일본 무대 메이저대회에서 한 해에 각 한 차례 이상씩 우승하는 사상 최초의 기록을 수립했다. 이때 전인지는 이미 USLPGA 투어에서의 기적을 예고했다.

2016년 9월 18일 프랑스 에비앙리조트 골프클럽에서 열린 US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전인지의 기록은 최종합계 21언더파 263타였다. 우승이었다. 그러나 우승이 끝이 아니었다. 이전까지 남녀 통틀어 메이저대회 최소타 기록은 20언더파 264타로서, 그 오랜 기록을 마침내 1타 차로 무너뜨린 것이다.

전인지는 이 대기록을 달성하는 동시에 1998년 박세리에 이어 개인 1, 2호 우승을 모두 USLPGA 투어 메이저대회에서 올리는 기록도 함께 세웠다.

전인지는 같은 해 11월 21일 USLPGA 투어 신인상과 평균 최저타수상을 동시에 수상, 1978년 이후 한 시즌에서 이 두 상을 받은 USLPGA 역사상 두 번째 선수로 기록되었다. 전인지, 그 자체가 기록이 된 것이다.









❶❷❸❹ 2015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우승자 전인지

Issue 35

‘슈퍼 루키’의 찬사를
스스로 더욱 빛낸 박성현

KLPGA 단일 시즌 최다 상금 기록 경신 및 USLPGA 3관왕

2016년 9월, KLPGA 시즌 최다 상금 신기록이 수립되었다. 이전 기록은 2014년 김효주가 기록한 12억 897만 원이었다.

박성현은 2016년 9월 4일 충남 태안 골든베이골프장에서 열린 KLPGA 투어 한화금융 클래식 최종 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5개, 더블보기 1개로 5언더파 67타를 쳐 최종합계 6언더파 282타로 정상에 올랐다. 이 승리는 1승 그 이상의 의미였다. 박성현은 시즌 7승째를 달성하여 우승 상금 3억 원을 받아 시즌 상금 12억 591만 원을 기록, KLPGA 투어 사상 두 번째로 상금 12억 원 고지를 밟으며 한 시즌 최다 상금 기록을 가시권에 두게 되었다.

그리고 2016년 9월 11일 박성현은 인천 영종도 스카이72골프장에서 끝난 KLPGA 챔피언십에서 상금 762만 원을 추가하며 시즌 상금을 12억 1,353만 원으로 늘렸다. 단일 시즌 최다 상금 기록이었다.

이어 USLPGA 무대에 뛰어든 박성현은 2017년 11월 ‘올해의 선수상’과 ‘상금왕’, ‘신인왕’을 차지하며 3관왕에 올랐다. ‘골프계의 전설’로 여겨지던 미국의 낸시 로페즈 이후 39년 만의 USLPGA 투어 3관왕 수상이었다.











❶❷❸❹ 2016 한화금융 클래식, 우승자 박성현

Issue 36

KLPGA 투어,
5개 메이저대회 체제로

한화 클래식, 메이저대회로 승격

2016년까지 KLPGA 투어 메이저대회는 기아자동차 한국여자오픈, 이수그룹 KLPGA 챔피언십, KB금융 스타 챔피언십,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의 4개였다. 여기에 2017년 한화 클래식이 더해지면서 5개 메이저대회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한화 클래식은 지난 1988년 구옥희가 USLPGA 투어 스탠다드 레지스터 더콰이즈 클래식에서 거둔 한국 선수 첫 우승을 기념해 1990년부터 개최한 한화컵 서울여자오픈에 뿌리를 둔 대회다. 이후 한화금융 클래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1년 총상금을 10억 원으로 늘렸으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투어 최대 수준인 총상금 12억 원 규모로 개최했다.

KLPGA는 2017년 한화금융 클래식을 메이저대회로 공식 승격시켰다. 투어 최대 상금 규모로 열리는 이 대회가 2011년부터 해외 유명 선수를 초청한 점, 장기 계약으로 국내 투어 발전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한화금융 클래식은 한화 클래식으로 대회명을 변경하며 KLPGA 투어 5번째 메이저대회로 승격했다. 14억 원의 총상금은 물론 우승 상금 3억 5,000만 원도 KLPGA 투어 사상 최고 금액이었다.

메이저대회 승격 이후 처음으로 2017년 8월 31일부터 나흘 동안 강원도 춘천 제이드팰리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한화 클래식은 명칭과 상금액뿐 아니라 대회 코스 등에도 변화를 준 가운데 치러졌다. 오지현이 이 대회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시즌 2승 달성과 생애 첫 메이저대회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❶ 1997 제8회 한화컵 서울여자오픈, 우승자 박세리
❷❸❹❺ 2017 한화 클래식, 우승자 오지현



Issue 37

트럼프 대통령을 놀라게 한
한국의 아마추어 선수

최혜진, 18년 만에 KLPGA 아마추어 시즌 2승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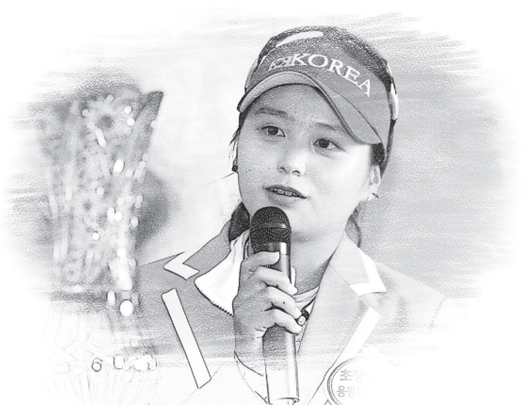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7월 US여자오픈 당시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다.

"US여자오픈 현장에 와 있다. 아마추어 선수가 몇십 년 만에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다. 무척 흥미롭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그 아마추어 선수는 바로 최혜진이었다. 최혜진은 15번 홀까지 박성현과 함께 공동 선두로 우승 경쟁을 벌이다가 16번 홀에서 티샷 실수로 더블보기를 기록하며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만약 최혜진이 우승했더라면 1967년 프랑스의 캐서린 라코스테 이후 무려 50년 만에 US여자오픈을 제패하는 아마추어 선수가 될 수도 있었다.

비록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전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알린 최혜진은 고교생이자 아마추어 신분으로 2017년 KLPGA 투어 초정탄산수 용평리조트오픈과 보그너 MBN 여자오픈 정상에 오르며 화려한 미래를 예고했다. 아마추어가 프로대회에서 우승을 한 건 2012년 김효주 이후 5년 만이었으며, 더욱이 시즌 2승을 달성한 건 1999년 임서현 이후 18년 만이었다.

2017년 8월 프로로 전향한 최혜진은 2017년 12월 베트남에서 열린 2018시즌 개막전 '효성 챔피언십 with SBS'에서 프로 데뷔 후 첫 우승을 거뒀다.













❶❷❸ 2017 보그너 MBN 여자오픈, 우승자 최혜진
❹ 2017 초정탄산수 용평리조트오픈, 우승자 최혜진
❺ 2017 효성 챔피언십 with SBS, 우승자 최혜진

Issue 38

14년 만에 새로 쓰인

18홀 최소 스트로크 기록

이정은6, 18홀 12언더파 60타로 최저타 기록 경신

KLPGA에 '이정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수가 유독 여러 명이다. 그래서 부득이 '이정은1', '이정은2', 등으로 호명하여 혼돈을 막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핫식스'라는 별명처럼 2017시즌을 뜨겁게 보낸 선수가 '이정은6'였다.

2016시즌 KLPGA 투어 신인상 수상자인 이정은6는 '2년차 징크스'라는 관용어구를 비웃듯 2017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그리고 마침내 9월 23일 경기도 양주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에서 18홀 12언더파 60타를 기록하며 또 한 번 KLPGA 신기록을 세웠다. 2003년 파라다이스 인비테이셔널에서 전미정이 기록했던 11언더파 61타를 14년 만에 경신하는 KLPGA 최소 스트로크 기록이었다.

2017년 이정은6는 한국여자프로골프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 상금왕, 다승왕, 최저타수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과 결실을 향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❶❷❸❹ 2016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 우승자 이정은6

Issue 39

드림투어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드리머(Dreamer)'

총상금 10억 원 규모의 드림투어, 그리고 챔피언스투어

KLPGA는 2017년 6월 21일 호반건설과 함께 드림투어 '호반건설 챔피언십 2017'과 챔피언스투어 '호반건설 챔피언스 클래식 2017'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드림투어는 7월과 8월 경기도 여주 스카이밸리 컨트리클럽에서 개최했다. 스카이밸리 컨트리클럽은 KLPGA 투어의 발전과 골프 저변 확대를 위해 드림투어 2개 대회와 챔피언스투어 4개 대회를 운영하고 있는 호반건설 소유의 골프장이다.

특히 '호반건설 챔피언십 2017'은 1차전과 2차전 각 3라운드, 상금 각 5억 원, 2개 대회 총상금 10억 원으로 치러져 드림투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또 갤러리도 허용된 가운데 KLPGA 주관 방송사인 SBS골프를 통해 전 라운드 생중계도 이루어졌다.

매력적인 것은 증액된 상금뿐만이 아니었다. 정규투어와 겹치지 않는 일정으로 진행한 만큼 드림투어를 뛰는 선수뿐만 아니라 정규투어와 드림투어를 병행하는 선수 등 더 많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으며, 정규투어 입성을 목표로 하는 모든 선수들이 더욱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KLPGA는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투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성장하고 발전해왔다. 그리고 그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가 KLPGA의 끊임없는 유망주 발굴 정책이었으며, 특히 세계적인 실력을 가진 선수들을 배출해 내는 안정적인 2 · 3부 투어가 그 든든한 성장동력이었다. 집을 지을 때도 기초공사가 중요하듯이, KLPGA는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글로벌 No.1 투어'를 지향하며 드림투어와 챔피언스투어를 개최하고 있다.

따라서 드림투어와 함께 하는 선수 모두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드리머(Dreamer)'이며, 챔피언스투어와 함께 하는 선수 모두가 이미 '챔피언(Champion)'이다.













❶ 2017 드림투어 호반건설 챔피언십 2차전, 우승자 이솔라
❷ 2017 드림투어 호반건설 챔피언십 1차전, 우승자 인주연
❸ 2017 챔피언스투어 호반건설 챔피언스 클래식 골드부, 우승자 이영미
❹ 2017 드림투어 호반건설 챔피언십 1차전, 우승자 인주연
❺ 2017 챔피언스투어 호반건설 챔피언스 클래식 그린부, 우승자 김서윤

Issue 40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골프를 사랑하는 KLPGA와 '케이'의 한마음

KLPGA 공식 캐릭터 케이와 버디

호기심이 많은 요정 '케이(Kay)'의 나이는 7살이다. 요정의 세계에는, 처음 자신의 몸에 닿는 물건이 매우 중요하다. 닿는 순간, 그 물건의 요정이 되는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케이는 자신의 임무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던 중 우연히 날아온 골프공에 맞고, 요정의 규칙에 의해 골프의 요정으로 탄생한다.

케이는 밝은 성격에 명랑하며 호기심이 많다. 골프 요정이 된 후로는, 골프 경기라면 어떤 경기도 가리지 않고 관람할 정도로 열정적이기도 하다. 지금은 비록 어설픈 실력이지만, KLPGA 대표선수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로 활약하는 게 꿈이다.

케이는 경기 관람하기 외에도 골프 연습하기를 좋아하며, 골프 경기가 펼쳐지는 드넓은 필드와 자연을 사랑한다. 또 새로운 친구 사귀기와 하늘 날기도 좋아하지만, 비 오는 날이나 환경오염이 심한 날은 싫어한다. 경기를 하기 어려운 날이기 때문이다.

때로 비 오는 날이어서 우울해도, 케이가 외롭지 않은 건 친구가 있는 까닭이다. 바로 귀여운 골프 뮤즈, 골프공 '버디(Buddy)'다.

수줍어서 나이는 공개할 수 없으나, 케이의 마법으로 골프공에서 뮤즈로 태어난 건 분명하다. 프로골퍼의 공으로 오랫동안 활약했기에 골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 골프 초보생 케이의 옆에 항상 따라다니며 도움을 주는 친구이자 멘토이다. 케이에게 조언하는 일과 수다 떨기, 카트 타고 드라이브 하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조언 듣기는 싫어하는 다소 깐깐한 성격이자, 'OB(Old boy)'가 아닌, 영원한 'YB(Young boy)'로 남고 싶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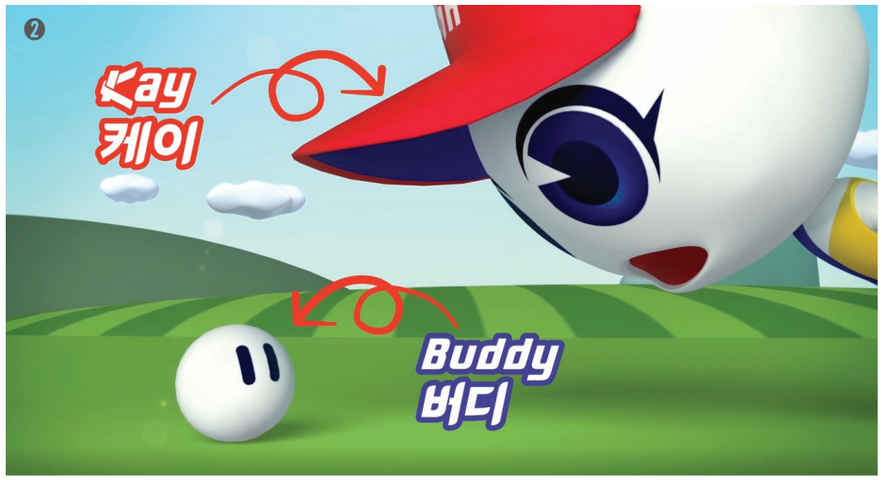
위의 동화 같은 이야기는 바로 KLPGA 공식 캐릭터 케이에 관한 설명이다.

2017년부터 KLPGA 홍보모델로 활약하고 있는 케이와 버디는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골프를 사랑한다. 그 마음이 KLPGA와 같기에, 1978년 출범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는 창립 40주년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❶



❷



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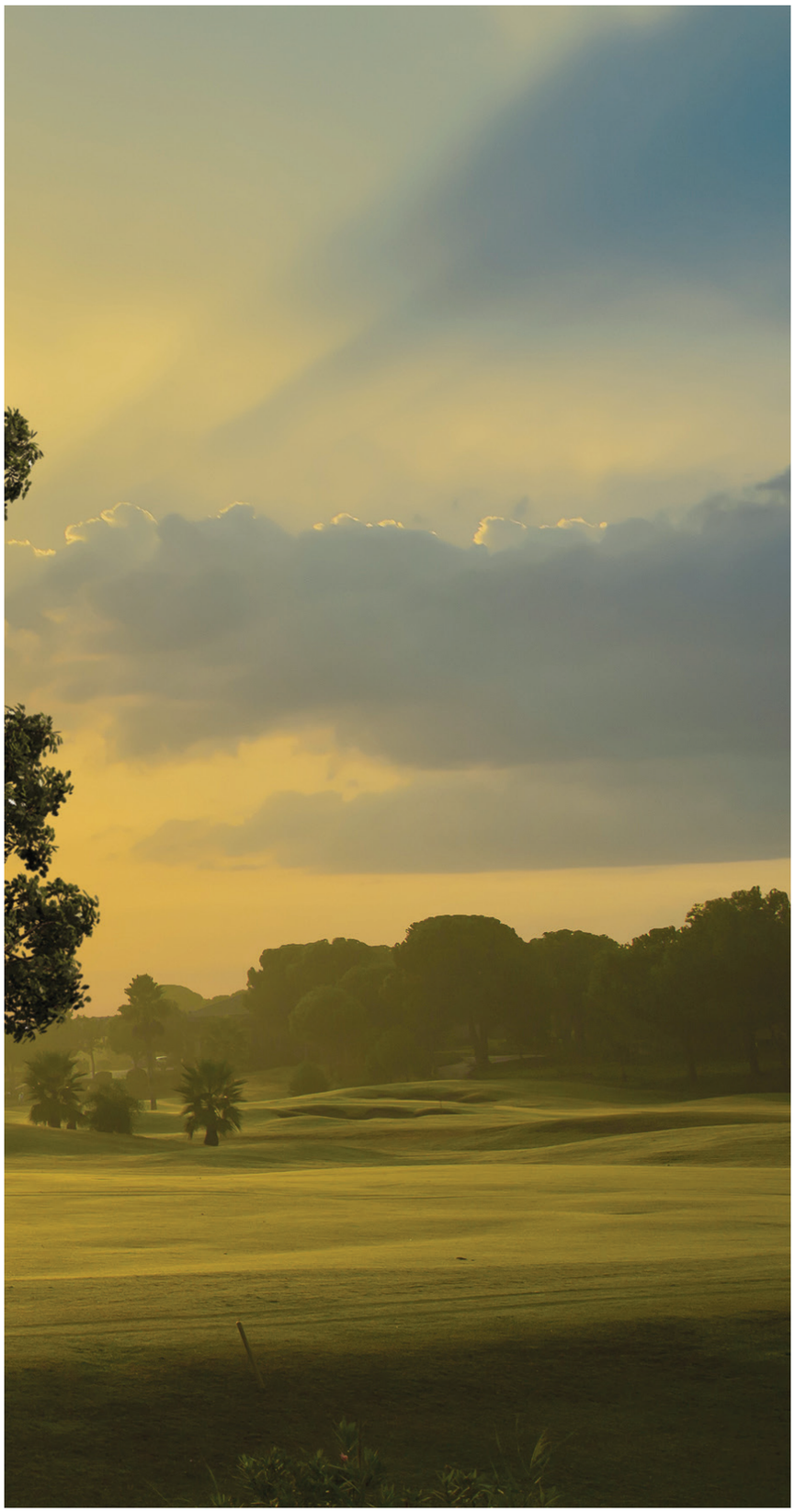


❹



❶KLPGA 공식캐릭터 케이와 버디
❷❸KLPGA 공식캐릭터 광고영상
❹공식캐릭터 3D 애니메이션 영상





ROUND III

KLPGA 12 Stars Interview

01. **김성희**
02. **강춘자**
03. **구옥희**
04. **한명현**
05. **박세리**
06. **김미현**
07. **신지애**
08. **박인비**
09. **박성현**
10. **이보미**
11. **이정은6**
12. **최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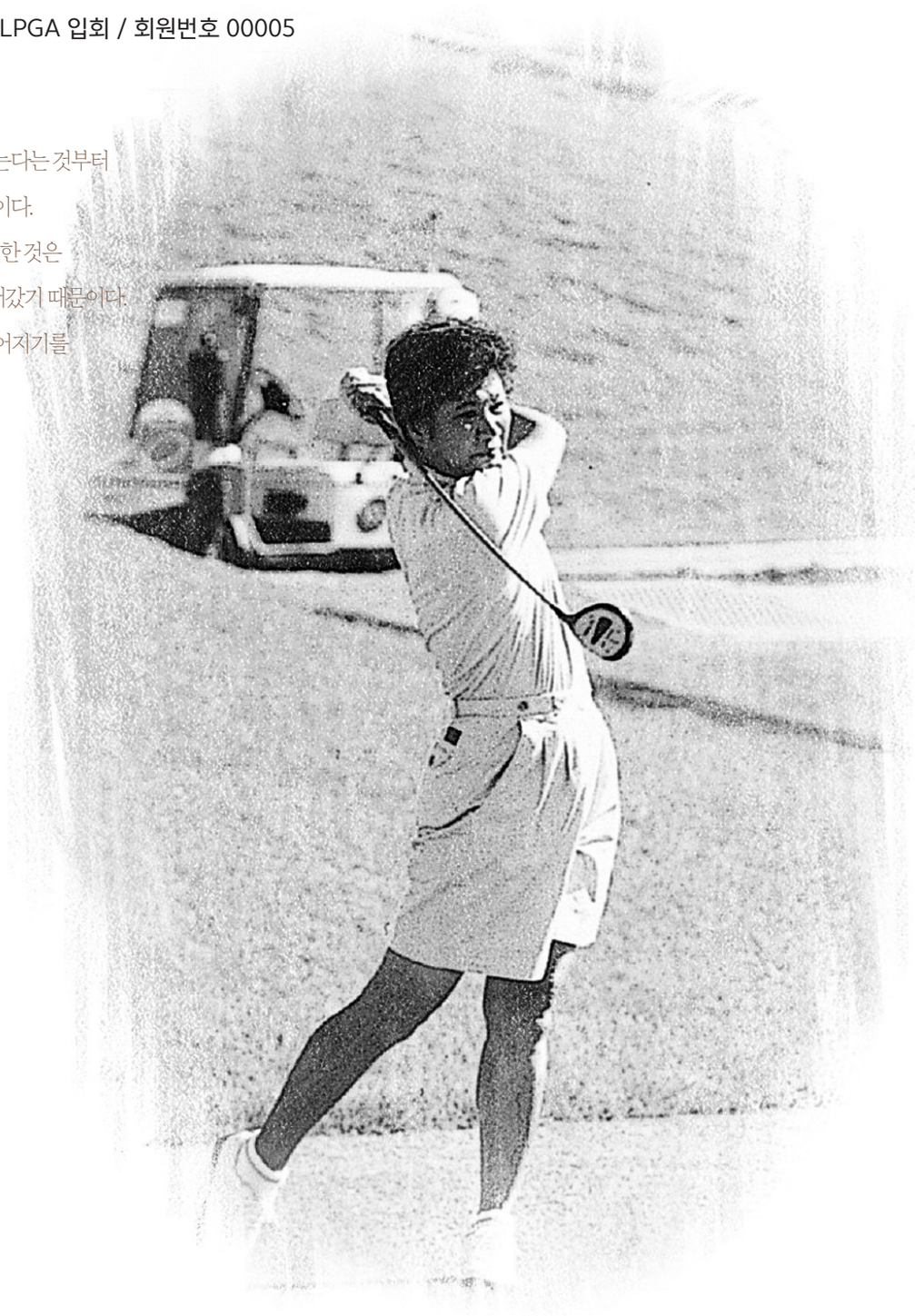


KLPGA 12 Stars Interview **01**

선수와 KLPGA의
아름다운 소통과 교감이 50년, 100년 이어지기를

김성희 KLPGA 초대 회장 / 1978년 KLPGA 입회 / 회원번호 00005

"우리 여자 프로골프 선수들은 온 식구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부터 다른 나라와 다르다. 그건 보이지 않지만 아주 큰 힘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여자 프로골프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우리 선수들이 실력을 연마해서 열정과 도전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소통과 교감이 40년을 넘어 50년, 100년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서울에 가서 여자 프로골프 무대를 만들어야겠다!”

KLPGA의 탄생

KLPGA가 탄생한 때가 1978년인데, 나는 1965년 처음 골프를 시작했다. 지금 어린이대공원 자리에 있던 서울 컨트리 클럽에서 우리나라 골프 역사를 쓰신 연덕춘 프로님과 박명출 프로님께 레슨을 받았다. 그리고 5년 후인 1970년부터 3년 동안 일본 동경으로 골프 유학을 갔는데, 당시 일본 여자 프로골프 무대를 보게 되었다. 그때 이런 생각에 이르렀다.

“여기에 있을 것이 아니고 서울에 가서 여자 프로골프 무대를 만들어야겠다!”

나는 서울로 돌아와 한국프로골프협회 임원들에게 “여자 프로골프도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했다. 하지만 답변은 소극적이었다. “남자 프로들도 대회하기에 궁색한 형편인데 어떻게 여자 프로를 만들겠느냐”는 것이었다.

내 입장은 단호했다.

“어떻게든 만들어만 주시면 제가 모든 걸 책임지고 끌고 나가겠습니다.”

내 말에 당시 한국프로골프협회 박명출 회장께서 마침내 결심을 하셨다.

그렇게 1978년 5월 처음으로 여자 프로골퍼 네 명이 탄생했다. 지금으로부터 꼭 40년 전, 그렇게 KLPGA가 씨앗을 뿌렸으며, 나는 한국프로골프협회 여성프로부 부장으로서 그 감격스러운 과정을 함께 했다.



여자 프로골프 무대의 탄생은 큰 변화였지만 정작 선수가 네 명뿐이니 경기 상대가 없어서 대회 자체를 만들기 어려웠다. 방법은 선수를 더 뽑는 것이었고, 추가로 네 명의 여자 프로골퍼가 탄생했으며, 1등을 한 나 또한 KLPGA 회원번호 5번이 되었다. 이후에도 추가로 선수들을 배출했지만 프로 대회 참가 기회는 매우 적었다.

나는 당시 아모레, 쾌남, 오란씨 등 남자 대회를 후원하는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부탁을 했다.

"여자 프로팀은 두 팀밖에 안 됩니다. 제가 협회의 허락을 받았으니까 대회를 하게 해주십시오."

여성프로부 부장으로서 나는 우리 선수들이 당당하게 협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협회 운영비를 낼 때도 우리 여자 프로골퍼들이 모두 남자 프로골퍼들과 똑같은 금액을 내도록 했다. 그것은 바로 완전한 독립의 의지였다.

독립의 꿈을 이루던 날

KLPGA 독립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여전히 "남자 프로가 있으면 됐지, 무슨 여자 프로를 따로 독립시키느냐"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였다. KLPGA가 독립해서 대회를 연다 해도 외국 선수들이 참가해 상금을 받으면 당시 외환관리법 상 반출을 할 수가 없었다. 문제 해결 방법은 KLPGA를 사단법인으로 독립시키는 것뿐이었다.

나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님의 소개로 당시 문화체육부 박철언 장관을 찾아갔다. 장관실에서 겨우 허락을 받는 데 성공했고, 본격적으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나는 그때 시집 갈 나이였는데, 남자를 만날 시간이나 정신도 없을 정도로 바빴다. 각 골프장의 숙녀회 사모님들에게 협조를 구해 거금 1,400만 원을 모으는 데 성공했을 때는 정말 감회가 남달랐다. 당시에는 차도 없어서 숙녀회에서 일본 차 두 대를 빌렸고, 우리 집 앞으로 선수들을 다 모이라고 한 후 그 차에 태워 대회에 오고가고 했다.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도 독립을 지원했다. "회원도 많아지고 기술도 향상되었으니 독립하는 게 좋겠다"는 게 중론이었다. 나는 협회에 당당히 지원을 요청했다.

"아버지가 딸을 시집보내는 데 현금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협회에서는 3,000만 원을 지원해 주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살 만한 큰돈이었다. 그렇게 문체부 인가를 받고 1988년 2월 한국프로골프협회 여자프로부는 별도의 독립기구로 분리,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새 사무실을 마련했다. 그 작은 사무실은 내 친구 동생의 빌딩이었다. 그리고 1988년 12월 5일, 서울타워호텔에서 창립총회가 열리던 날 내 마음은 떨리고 또 기뻤다. 어렵게 최초의 여자 프로골퍼가 탄생한 지 10년 만에, 역시 어렵게 독립법인 KLPGA로 탄생하는 순간, 나는 초대 회장으로서 KLPGA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다짐했다.

선수와 KLPGA의 아름다운 소통과 교감이 50년, 100년 이어지기를

KLPGA 40주년을 맞아 지난날을 돌아보면 참으로 눈물겹다. 초창기에는 아마추어 선수들이 대회에 나와 우승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는데, 생활을 꾸려야 했던 우리 선수들은 적은 상금으로 레슨을 받기도 어렵고 그린피를 감당하기도 어려웠다. 그런 세월을 딛고, 지금 우리 선수들이 국제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면 참 뿌듯하고 너무 예쁘다.

이제 더욱 큰 길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선수들이 지금 미국 USLPGA에 나가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외국 선수를 국

내에 데리고 와서 대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더욱 성숙시켜야 한다. 그렇게 우리를 알리고, 우리가 세계와 함께 할 때, 진정한 '글로벌 KLPGA'가 될 것이다. 우리 여자 프로골프 선수들은 온 식구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부터 다른 나라와 다르다. 그건 보이지 않지만 아주 큰 힘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여자 프로골프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우리 선수들이 실력을 연마해서 열정과 도전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KLPGA 사무실에 앉아 그 선수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힘도 그 선수들 가족들의 힘 못지않게 크다고 생각한다. 선수가 있어서 비로소 KLPGA가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KLPGA가 있어서 선수가 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아름다운 소통과 교감이 40년을 넘어 50년, 100년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KLPGA 12 Stars Interview **02**

‘아시아 골프 허브’를 넘어
‘글로벌 No.1 투어’를 향해

강춘자 KLPGA 수석부회장 / 1978년 KLPGA 입회 / 회원번호 00001

“창립 40주년을 맞은 KLPGA는 기존 아시아 지역 진출을 강화하고 세계 각국과의 교류 확대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아시아 골프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창립 50년, 100년을 향해, 그리고 ‘글로벌 No.1 투어’를 향해 부단한 도전을 계속할 것이다. 또 사회 전반에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골프 꿈나무와 골프 산업 발전을 이끄는 데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하루 1,000타를 치던 골프장 아르바이트생에서 여자 프로골퍼로

KLPGA 탄생의 서막

KLPGA 회원번호 1번으로서, 여자 프로골프의 40년 전을 생각하면 감회가 깊다.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운동을 했고, 모든 것이 풍부하지 못했다. 나는 운이 좋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뚝섬경마장 아르바이트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 때 한명현도 구옥희도 다 아르바이트를 한 1세대들이었다.

남자프로골프협회가 창립 후 1974년, 일본여자프로골프협회 회장직을 지낸 히구치 히사코 선수가 아시아 여자선수 중에서 처음으로 미국 USLPGA 하와이 투어 토너먼트 우승을 했다. 그 사실이 한국 신문에 난 후 남자프로골프협회에서 각 골프장으로 연락을 해 "여자프로를 육성하라"고 했다. 골프장 도우미를 하다보면 일단 이론적으로 골프를 잘 아니까 우리는 각 골프장에서 연습을 했고, 연습 도중 살아남은 사람들이 우리들이라고 보면 된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마침내 1978년 양주군 로얄 컨트리 클럽에서 남자프로골프협회 매달 원내 경기 대회 때 첫 여자 프로골퍼가 나왔다. KLPGA 40년 역사의 시작이었다. 어려웠던 일은 무수히 많았지만 어려운 과정을 지나 좋은 계기를 만난 것 같다. 하루 1,000타 이상의 연습을 했지만 연습장에서 연습만 하고 정작 필드에는 못 나가던 시절이 지금도 그립다.

남자 협회에서 상금 10%를 배정받던 때를 지나 박세리 선수의 우승까지

프로골프 회원이 30명이 되기 전까지도 따로 여자프로골프협회가 없이 남자 협회 사무실에 더부살이를 했었고, 대회도 남자 대회 할 때 같이 다니는 데 불과했다. KLPGA 초대 회장님이셨던 김성희 현 고문님이 각 골프장 숙녀회 사모님들한테 "여자프로 대회를 해야 한다"고 돈을 걷어서 대회를 열어주셨다. 김성희 고문님께서는 그 당시 성금 지원자 명단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다. 눈물겨운 일이다.

10년 더부살이를 하는 동안 우리 선수들 숫자가 늘어나자 욕심이 생겼다. 남자 협회에서 상금 10%를 우리 몫으로 배정했는데, 당시 여자 프로골프 총상금은 한 대회당 100만 원대였다. 그 와중에 자연스럽게 독립의 의지를 불태웠다. 우리의 뜻을 받아들인 남자프로골프협회 이일환 회장님께서 3,000만 원을 지원해주었고, 그 돈을 들고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15평짜리 사무실 하나를 얻었다.

사단법인이 된 후에도 골프가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절, 일본 선수들이 미국에 가서 우승도 하고 USLPGA 상금 랭킹 1위를 한 적이 있었다. 한국 각 신문에도 그 소식이 대서특필되고 있는 와중에 박세리 선수가 1998년 미국 USLPGA 우승을 했다. 그때 MBC-TV에서 중계를 했는데,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박세리 선수가 우승했던 모습을 중계로 보았던 그 때가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이다. 이를 계기로 '골프를 어떻게 대중화를 시킬까'하는 고민을 많이 했다.

대한민국 여자 프로골퍼 1호, '바나나 소녀'를 아시나요

교포들이 일본에서 산다고는 하지만 항상 마음은 고향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 한국에 와서 가까운 남서울 컨트리클럽을 찾곤 했다. 그중에 신한은행 주주 몇 분이 계셨는데 구옥희가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한국에는 여자골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신기한 생각이 든 모양이었다. 그때를 틈타 "우리도 프로골퍼가 되면 기회가 올 것이라는 기대도 많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정 이야기를 다 했다.

그렇게 일본 프로 테스트 기회가 왔다. 나와 구옥희, 한명현이 일본 요미우리 컨트리클럽에 처음 초청을 받은 것이다. 우리를 초청해준 히구치 히사코는 남편이 재일교포여서 한국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다.

남대문에서 바나나를 보고 침만 흘리던 시절이었는데, 골프장에 가니 식당에 바나나가 널려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먹어도 되나"고 물어보고, 한국에서 구경만 하던 바나나를 무지하게 먹었다. 그때 우리가 바나나를 많이 먹어서 '바나나 소녀'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다.

이후 나와 정길자가 1984년 봄에 프로 테스트에 나가서 합격을 했고, 내가 1등을 했다. 일본에서 활동을 하면서 메이저대회인 한국여자오픈 1회 우승자가 되었다. 1992년부터 일본 생활을 완전히 접고 본격적으로 협회 일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30년이 지났다. 상금 규모는 여전히 일본보다 떨어지지만 행정적인 부분에서나 여러 면에서 자부심 갖고 있는 2부, 3부가 우리에게 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정규투어에 좋은 실력으로 경기에 임한다는 점에서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도 우리를 배워 2부 투어를 만들었다.

'아시아 골프 허브'를 넘어 '글로벌 No.1 투어'를 향해

지금 우리 KLPGA는 예전에 일본에서 배워왔던 것과 같이 우리의 행정을 중국이나 동남아에 전수하고 있다. 특히 중국 시장을 잘 키워서 함께 손을 잡고 가기 위해 10년을 공들였다.

4년 전부터 시작을 했지만 특히 2017년부터 투자를 더욱 많이 하고 있다. 아시아 선수를 국내로 끌어들여서 KLPGA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협회도 키워 나가 아시아에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창립 40주년을 맞은 KLPGA는 기존 아시아 지역 진출을 강화하고 세계 각국과의 교류 확대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아시아 골프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창립 50년, 100년을 향해, 그리고 '글로벌 No.1 투어'를 향해 부단한 도전을 계속할 것이다. 또 사회 전반에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골프 꿈나무와 골프 산업 발전을 이끄는 데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KLPGA 12 Stars Interview **03**

마지막 순간까지 필드에서 후배들과 함께 한 '한국 골프의 전설'

고(故) **구옥희** 전 KLPGA 회장 / 1978년 KLPGA 입회 / 회원번호 00003

"1983년 일본 프로자격증을 획득한 구옥희는 일본 무대에서 한국 여자골프의 전설을 써나갔다.
먼저 1984년 3월 7일 JLPGA 투어 비공식 대회인 미즈노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일본 프로골프대회에서 한국 여자골퍼가 처음으로 우승하는 기록을 세웠다."



JLPGA 대회 2주 연속 우승과 한국인 최초의 USLPGA 투어 우승

고(故) 구옥희 KLPGA 전 회장은 1975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기도 고양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며 골프와 인연을 맺었으며 독학으로 골프를 공부했다. 그리고 1978년 여자 프로골퍼 1호로서 '한국 여자골프 1세대'를 대표하며 우리나라 골프와 KLPGA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1978년 5월 26일 경기도 양주군 로얄 컨트리클럽에서 강춘자, 한명현, 안종현 선수와 함께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프로골퍼'가 된 구옥희는 1981년 3월 1일 일본으로 건너갔다. 한 달 동안 기술연수를 받은 후 구옥희는 마침내 세계를 향한 도전을 시작했다. 구옥희, 강춘자, 안종현, 배성순 등 4명의 선수가 1982년 5월 14일 일본 도쿄 요미우리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10회 세계여자골프 선수권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했다. 이 대회에서 구옥희는 첫날 공동 6위를 기록하는 등 한국 여자골프의 무한한 가능성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1983년 일본 프로자격증을 획득한 구옥희는 일본 무대에서 한국 여자골프의 전설을 써나갔다. 먼저 1984년 3월 7일 JLPGA 투어 비공식 대회인 미즈노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일본 프로골프대회에서 한국 여자골퍼가 처음으로 우승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어 1985년 기분 레이디스 오픈, 토오하토 레이디스 오픈, 토오호쿠 퀸즈오픈 등 3개의 JLPGA 투어에서 우승하며 한국과 일본 골프계를 놀라게 했다. 특히 JLPGA 대회 2주 연속 우승이라는 놀라운 기록은 한국은 물론 일본 골프 역사에도 길이 남았다.

더욱 큰 세계로 눈을 돌린 구옥희는 1984년 일본에서 열린 USLPGA 투어 대회에 일본 프로 자격으로 참가하여 3위를 기록한 후 USLPGA에 진출했다. 그리고 동양인으로서는 일본인 오카모토 아야코에 이어 두 번째로 1985년 10월 18일 USLPGA 프로 테스트에 합격했으며, 1988년 3월 28일 JLPGA에 이어 USLPGA에서 새로운 역사를 썼다. 애리조나 주 피닉스의 문밸리 골프 코스에서 열린 스탠다드 레지스터 더콰이즈 클래식에서 한국인 최초로 USLPGA 투어 우승자가 된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필드에서 후배들과 함께 한 '한국 골프의 전설'

구옥희는 1989년 10월 KLPGA 선수권대회와 1990년 6월 국내 최초의 국제대회인 제1회 서울여자오픈골프대회 등 국내 대회에 적극 참여하여 KLPGA 성장과 발전에 앞장섰다. 협회가 빠른 시일 안에 자립 기반을 갖추려면 국내외 우수 선수들이 모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 또 1999년 12월 4일 창설된 '한일 여자 프로골프 국가대항전'에 매년 주장으로 참석하는 등 한국 여자골프의 수준을 높이는 데 항상 전력을 다했다.

여자골퍼 1세대의 파워를 대표하는 선수로 자리매김한 구옥희는 2002년 9월 15일 JLPGA 선수권대회를 제패, 2주 연속 우승과 통산 21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JLPGA 메이저 대회 3승째를 기록하는 남다른 저력이었다.

2004년 12월 8일 구옥희는 최초로 KLPGA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다. 그리고 그 명예를 개인이 아닌 KLPGA의 명예로 간직하며, 2006년부터 2011년까지 KLPGA 부회장을, 2011년부터 2012년 3월까지 제11대 KLPGA 회장을 맡아 한국 여자골프 발전을 이끌었다.

구옥희는 후배들의 선전과 KLPGA 발전을 더 이상 지켜보지 못한 채 2013년 7월 10일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골프 라운드 도중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바로 후배들을 지도하기 위한 자리였다.

마지막 순간까지 필드에서 후배들과 함께 한 고인을, 그래서 모두는 '한국 골프의 전설'로 기억한다.









KLPGA 12 Stars Interview **04**

최초의 여자 프로골프대회 우승과
제1호 해외 프로선수 자격증 취득

고(故) **한명현** 전 KLPGA 수석부회장 / 1978년 KLPGA 입회 / 회원번호 00002

"한명현은 1982년 일본에 진출, 1983년 4월 JLPGA 프로 테스트를 최초로 통과한 후 3개 월 동안의 현지 적응기간을 거쳐 같은 해 7월 26일 일본 프로자격증을 획득했다. 우리 여자 프로골퍼가 최초로 해외 프로선수 자격을 얻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으며, 뒤이어 구옥희와 강춘자 등으로 이어지는 JLPGA에서의 활약상을 이끄는 촉매제였다."



최초의 여자 프로골프대회 우승과 제1호 해외 프로선수 자격증 취득

고(故) 한명현 KLPGA 전 부회장은 1978년 5월 26일 경기도 양주군 로얄 컨트리클럽에서 탄생한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프로골퍼' 4명 가운데 한 명이다. 한명현은 1978년 10월 13일 남서울 컨트리클럽에서 제21회 프로골프 선수권대회를 겸해 열린 최초의 여자프로골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KLPGA 역사의 새 장을 열었다.

이어 1982년 일본에 진출, 1983년 4월 JLPGA 프로 테스트를 최초로 통과한 후 3개월 동안의 현지 적응기간을 거쳐 같은 해 7월 26일 일본 프로자격증을 획득했다. 우리 여자 프로골퍼가 최초로 해외 프로선수 자격을 얻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으며, 뒤이어 구옥희와 강춘자 등으로 이어지는 JLPGA에서의 활약상을 이끄는 촉매제였다.

1988년 12월 5일에는 서울타워호텔에서 열린 KLPGA 창립총회에서 김성희 초대 회장과 함께 부회장에 올라, 이후 KLPGA 임원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2008년 KLPGA 수석부회장에 취임한 가운데 2009년까지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공동대표직을 함께 맡았으며, 2011년에는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2012년 2월 고인이 된 한명현 전 부회장의 가족의 회고를 통해 고인의 업적을 기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우리나라 여자프로가 되어 이름을 떨치고 싶습니다!"

한명현의 골프 인연은 안양 컨트리클럽에 근무하면서 시작되었다. 18세의 나이로 골프장에 근무하며 골프를 접하고 골프에 더욱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관심은 곧 '여자골프 선수가 되자'는 결심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여자 프로골프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던 시절이라 달리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다. 생각 끝에 한명현은 당시 안양 컨트리클럽 오너였던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에게 직접 부탁을 했다.

"한국에는 여자 골프프로가 없으니 제가 우리나라 여자프로가 되어 이름을 떨치고 싶습니다. 골프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열정을 높이 산 이병철 회장은 직접 골프클럽을 구매하여 안양 컨트리클럽 소속 헤드프로였던 조태운에게 전달하며 지시했다.

"책임지고 양성하라!"

한명현은 회장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손이 닳도록 연습에 매진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여자 프로골프 제1호 챔피언에 등극하게 되었다. 한명현은 은퇴할 때까지 통산 7승을 거뒀으며, 이 가운데 이 우승을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했다. 또 1981년 KLPGA 최초의 공식 홀인원과 1983년 JLPGA 한국 여자 최초의 해외 프로 자격증 획득에 대한 회고를 많이 하곤 했다.

정규투어 마지막 우승은 1995년 9월 소나타컵 SBS프로골프 최강전에서 기록했고, 그만큼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다. 4라운드 합계 유일한 언더파(-2)를 기록하며, 불혹의 나이로 당시 역대 최고령 우승과 함께 2,000만 원이라는 큰 우승 상금을 획득했다.

KLPGA 발전의 밑거름이 된 35년 노력과 열정

한명현은 프로 생활 내내 3kg짜리 샌드백과 돌멩이를 넣은 폐타이어를 끌면서 어드레스 자세로 오르막을 오르는 훈련 등 고된 체력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기복 없는 선수가 되고자 하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고자 한 것이다. 철저한 자기 관리 노력 속에, 챔피언스투어에도 첫 해부터 활약을 하며 후배들의 모범이 되었다.

그 노력과 열정은 KLPGA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2012년 운명을 달리 할 때까지 약 25년 동안 협회 임원으로서 고인이 보여준 노력과 열정을, KLPGA 40주년 창립기념일에 되새겨본다.







KLPGA 12 Stars Interview **05**

선수들을 위해 더 앞장서는 KLPGA의 열정과 도전의 선택을 기대하며

박세리 1996년 KLPGA 입회 / 회원번호 00121

"내 미국 투어 생활이 20년차인데, KLPGA 역사가 딱 그 두 배이다.
그동안 많은 선수들에게는 '업 앤 다운(Up & Down)'도 있었다.
그 여정에 항상 함께였던 KLPGA에게 정말 감사하다.
협회도 선수도 함께 오늘과 내일을 설계했으면 좋겠다.
KLPGA가 선수들을 위해 앞장서서 열정과 도전의 선택을
더 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선배들의 소중한 가르침이 있었기에 내가 있었다

KLPGA의 추억

골프를 늦게 시작한 케이스이기도 해서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고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때 투어와 지금의 투어를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 당시에는 프로들과 후배의 차이가 많이 났다. 예를 들면 선배님들에 대한 존경심, 선배님들을 보는 시선 자체가 지금과는 달랐다. 지금처럼 골프가 활성화가 되거나 대중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다. 지금이야 골프가 대중적이 되고 어린 선수들이나 후배들도 많이 나오고 '프로님'보다는 편안하게 '언니'라는 존칭을 쓸 정도로 많이 편해진 상태다.

아마추어 신분으로 나는 운도 좋았다. 프로님들이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선수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경험이 많지 않았을 때 프로대회에 나가서 큰 가르침을 받은 프로님들이었다. 그렇게 배워가면서 경기를 했다.

첫 우승 당시 아마추어가 프로대회에 나가는 기회가 많지 않은 때였다. 그런데 기회가 왔다. 그때 처음 베스트 스코어를 쳐보았다. 함께 경기를 했던 프로님들은 국가대표 출신인 데다 아시아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따셨던 분들이셨다. 처음 연장전이란 것을 나가보았다. 그 KLPGA 대회에서 처음으로 참 많은 경험을 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더 이슈가 되었다.

미국에 갔을 때 당연히 처음에는 어려움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생활, 문화도 너무 달랐다. 가족이나 친구가 함께 있었던 입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오로지 세계 정상에 대한 욕망만을 가지고 갔었던 것이다. 과정이 힘들었지만 그 힘든 과정이 가져다준 영광이 많았기 때문에, 다행히도 내게는 밸런스가 맞았던 것 같다.

US여자오픈 맨발의 투혼

US여자오픈 때 나도 신인이었고 아직까지 많은 것을 알거나 우승한 경험이 많지 않았다. 메이저대회에 나가서 우승한 것이 첫 번째 우승이었기 때문에 자신감은 많이 생겼지만 그래도 US오픈이라는 대회는 모든 선수가 부담스럽고 욕심나는 대회일 것이다. 경험도 경험이지만, 적응기간을 3년이나 두고 갔을 정도로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컸었던 것 같다.

그렇게 경기에 임했는데 18홀이 끝나고 4라운드가 끝난 후에 연장전을 나가게 되었다. 18홀 연장전도 내게는 처음이었다. 연장에 18홀을 쳐야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18홀에서 끝나지 않고 20홀까지 가서 결정이 났는데, 지금 생각해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당시 해저드에 들어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나한테는 경험이 중요했다. 중요한 순간에 결정하는 시간도 짧았고, 스스로 배우고 싶었다. 그렇게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희박한 가능성 속에서도 작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싶었다. 이런 경험 속에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결정했던 샷이었는데, 지금까지도 선수생활을 하면서 '최고의 샷'이자 '최고의 샷 감각'이었던 것 같다.

우승 후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코리아'라는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터에 내 극적인 US오픈 우승으로 모든 게 달라졌다. '코리아'라는 나라에서 온 20대 초반의 선수인데, 들어보지도 알지도 못한 선수였다. 게다가 당시 한국에는 USLPGA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반향이 더욱 컸다.

지도자의 길

리우 올림픽 때 박인비 선수의 우승 장면이 모두에게 아직도 그대로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그 기억이 감독이었던 내게는 조금 다르다.

선수 때는 관리를 받고 나만 생각하면 그만이었다. 그만큼 어렵고도 더 수월했던 것 같은데, 이제 선수가 아닌, 필드 밖에서 선수를 관리하고 봐주는 입장이 처음이다 보니 굉장히 어려웠다. 워낙 잘 하는 선수들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소통이었다. 선수들이 감독과 같이 있을 때 더 큰 부담을 갖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물론 오랫동안 봐온 선수들이고 후배들이고 친하긴 했지만, 그래도 선수들만의 기대감과 부담감도 많았다. 그런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다.

물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어렵지만, 굉장히 어려운 선배보다는 나눠줄 수 있고 선수들이 기댈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다. 그래서 더 넓은 길을 열어주고 싶고, 그 길을 밝혀주고 싶다.

선수들을 위해 더 앞장서는 KLPGA의 열정과 도전의 선택을 기대하며

KLPGA 선수들과 협회 분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지금의 KLPGA가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니만큼, 더욱 잘 소통하면서 함께 발전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개선되어야 할 점은 바로바로 개선되는 가운데 선수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가치를 지켜가는 마음이 모두에게 더욱 간절하다. 마치 귀한 책을 읽었을 때 마음에 남은 페이지를 여러 번 읽는 것처럼, 그런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KLPGA의 전통이 이어지리라 믿는다. 물론 KLPGA가 지금 선수들을 너무 훌륭하게 잘 이끌어 주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욕심은 없고,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했으면 좋겠다.

내 미국 투어 생활이 20년차인데, KLPGA 역사가 딱 그 두 배이다. 그동안 많은 선수들에게는 '업 앤 다운(Up & Down)'도 있었다. 그 여정에 항상 함께였던 KLPGA에게 정말 감사하다. 협회도 선수도 함께 오늘과 내일을 설계했으면 좋겠다. KLPGA가 선수들을 위해 앞장서서 열정과 도전의 선택을 더 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길을 닦아주신 선배님들의 희생과 그 길을 더 발전시키는 후배님들

김미현 1996년 KLPGA 입회 / 회원번호 00123

"우리나라 여자골프의 저력에는 부모님과 형제자매들, 주변 분들의 희생이 있다. 외국의 서포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또 지기 싫어하는 강한 정신력이 있다. 한참 선배가 되다 보니 내가 어렸을 때 선배님들이 하던 말들이 생각났다. "너네는 참 좋겠다, 좋은 때 태어나서"라는 말이다. 우리 선배님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본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한 환경에서 골프를 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든다."



나는 그냥 골프가 좋았다

골프와의 인연

초등학교 6학년,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는 여자 프로골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그냥 운동이 좋아서 아버지와 함께 시작한 것이다. 학교 다녀와서 공부 안 하고 운동하면서 놀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일 도와주시는 직원 언니들, 알바 그리고 골프장 나가면 캐디 언니들을 만나는 것이 즐거워 골프에 점점 빠졌다. 골프를 배우기 전에 간접적으로라도 접해본 적이 없었고, 부산에 살았기 때문에 대회에 많이 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에 골프를 시작했는데 중학교 때부터 성적이 났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전국 대회에 나가서 성적을 냈고, 중학교 3학년 때 한국여자오픈에 나가서 아마추어 부문 우승, 프로와 다 합쳐서 3등을 했다. 고우순 선수가 우승했던 대회였다. 프로와 아마추어 통틀어 대회 우승을 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프로무대에서의 추억

1996년 KLPGA 프로무대에 등장해 데뷔 후 당시 최단 기간 우승의 기록을 세웠다. 그 첫 우승을 하던 대회 기간 중 비 때문에 마지막 날 경기가 취소되었다. 비가 엄청 쏟아졌는데, 당시 자신감에 넘쳐서 마지막까지 정정당당하게 우승하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지금 같으면 '어차피 1등으로 있는데 취소되라'고 했을 지도 모르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선수로서의 열정만으로 오히려 '취소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었다. 오후 늦게까지 스타트하우스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렇게 취소가 되었고 우승을 했다. 당시에는 자신감도 많았고 겁도 없었다. 뭔가 더 멋있게 우승하고 싶었다.

1996년 우승 후 상금을 받고 시상식까지 한 후 맹장수술을 받으러 갔었다. 대회 둘째 날 경기가 끝나고 숙소로 들어갔는데 날씨가 안 좋았다. 저녁에 해물 종류를 먹은 후 처음에는 그 음식 때문에 식중독이 난 줄 알았는데, 밤새 열이 펄펄 나고 구토를 했다. 아침에도 연습도 잘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배를 움켜쥐고 대회에 나갔다. 신기한 것이, 걸을 때도 배가 너무 쑤시고 아팠는데 볼을 치러 들어가면 별로 아프



지를 않았다. 제일 기억나는 것은 17번 홀 세컨드 샷이 벙커에 빠졌을 때인데, 벙커에 들어가면서 캐디 언니한테 "나 너무 아파서 정말 못 치겠다"고 했다. 캐디 언니는 "그냥 빼내기만 하라"고 했다. 그냥 배앓이 하는 줄 알고 갤러리 분들이 따뜻한 물을 준 기억이 선명하다. 그렇게 시상식이 끝나자마자 병원에 갔더니 맹장이라고 해서 수술을 했다.

1999년 미국에 있을 때도 몹시 아팠던 기억이 있다. 첫 날 너무 잘 친 데다가 '우승 조'에 있어서 포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다. 그때 폭염주의보가 발령 중이었는데, 코스도 중간에 많이 밀려있었다. 나무그늘에서 앞의 팀 경기하는 것을 보고 앉아 있다가 쓰러져 버렸다. 앰뷸런스가 와서 싣고 나갔고, 그렇게 5일 정도 미국 병원에 있었다.

그런 힘은 오로지 정신력에서 나온 것 같다. "운동선수는 포기하면 안 된다"는 아버지의 말씀도 머릿속에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다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다. 요즘 엄마가 "뭐가 그렇게 매일 아프냐고 하냐"고 하면 "어렸을 때 참았던 거 이제 다 아픈가보다"고 한다.

1999년 미국 진출 당시 후원사도 없이 USLPGA 대회에 참가하고, 아버지가 모는 차를 타고 햄버거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투어를 도는 모습이 널리 알려지곤 했다. 부모님은 아무래도 돈 걱정을 하셨겠지만 나는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주 벌어서 다음 주 쓰고 생활을 할 정도'로 투어를 다니기는 했지만 항상 늘 자신감이 있었고 편하게 지냈다. MBC-TV 다큐 프로에 그런 내 모습이 굉장히 불쌍하게 방송된 적이 있다. 그렇지만 그때는 다들 햄버거 먹고 라면 먹고 그랬다. 나는 정말 인복이 많다. 미국에 아는 사람 하나 없이 갔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았다.

갤러리 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건넨 따뜻한 물 한 잔, 햄버거로 끼니를 때워도 항상 응원해주는 팬들이 있어서 나는 행복했다.

겉은 약하지만 속은 단단한 땅콩

나는 '슈퍼 땅콩'이라는 별명이 좋다. 정확히 '슈퍼 땅콩'이다. 예전에는 골프장 그린이 땅콩 모양처럼 생겼었다. "땅콩은 겉은 잘 부서지고 약하지만 속은 단단하고 고소하고 알차다"며 대구 컨트리클럽 우기정 회장님께서 지어주신 별명이다. 대구에 지금도 송암배라는 아마추어대회가 있는데, 우 회장님 윗대 조부님의 호를 따서 '송암배'라고 대회명이 지어졌다. 그 주니어 대회에 나갔다가 인연이 되었는데, 나를 진정한 '슈퍼 땅콩'이 되도록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다.

20년 동안 나는 단지 골프만 한 것이 아니었다

2006년, 3년 9개월 만에 우승을 한 일이 있다. 그 3년 9개월 동안 우승은 없었지만 준우승도 엄청 많이 한 데다 랭킹 4위일 정도로 성적이 좋았는데 언론에서는 우승이 없으니까 '김미현 슬럼프'라고 했고, 준우승을 하면 '또 우승 문턱에서……'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다. 그러다 무려 3년 9개월 만에 우승을 했고, 게다가 메이저급 대회였다. 우승하며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데 그때 눈물이 났다.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가슴이 떨렸고, 오랫동안의 '슬럼프' 보도를 들으면서 서러웠던 마음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다.

2012년 은퇴경기 때 'Thank You, Mi Hyun Kim, We Will Miss You'라는 대형 슬로건이 걸렸다. 그 은퇴경기 때는 정작 슬프지 않았다. 시원섭섭했지만 시원한 게 더 많았다. 아기를 낳은 이후로 아기하고만 있고 싶었다. 그런 와중에 무릎 수술을 하고 재활 기간이 길어지면서 은퇴해야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했는데 "은퇴경기를 하러 나오라"고 하는 것이다. 골프채를 손에서 놓은 지 8, 9개월이 됐었는데 창피하지 않으려고 연습을 해야 했다. 무릎은 수술을 한 상태였고 발목과 무릎에는 테이핑이 되어있었는데, 망신당할 수는 없다는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이 겹쳐서 너무 어렵게 참가한 대

회였다. 그렇게 나간 대회인데 'Thank You, Mi Hyun Kim, We Will Miss You'라는 글을 본 순간 '미국에서 10년 한국에서 10년, 그 20년 동안 단지 골프만 한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에 뭉클했다.

은퇴하자마자 학생들을 가르쳤고, '정말 내 길은 이것이다'라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내 은퇴는 은퇴가 아니라는 마음이었다.

길을 닦아주신 선배님들의 희생과 그 길을 더 발전시키는 후배님들

우리나라 여자골프의 저력에는 부모님과 형제자매들, 주변 분들의 희생이 있다. 외국의 서포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또 지기 싫어하는 강한 정신력이 있다.

한참 선배가 되다 보니 내가 어렸을 때 선배님들이 하던 말들이 생각났다. "너네는 참 좋겠다, 좋은 때 태어나서"라는 말이다. 나 또한 '요즘 친구들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선배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본다. '그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한 환경에서 골프를 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든다.

그 길을 닦아주신 선배님들의 희생 또한 너무나 소중하다. 그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길을 더 발전시키는 후배님들에게도 감사하다. 그런 소중한 전통의 중심에 있는 KLPGA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진심으로 간절하다.



KLPGA 12 Stars Interview **07**

언제나 그랬듯, 선수들과 한국 골프를 지켜 주는 깊은 뿌리가 돼 주길

신지애 2005년 KLPGA 입회 / 회원번호 00458

"올해 서른인 나에게 KLPGA의 역사는 평생 이상의 시간이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한국 골프를 위한 길을 닦아 온 선배님들과 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덕분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운동하며 세계 랭킹 1위를 당당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늘 우직하게, 선수들과 한국 골프를 지켜 주는 깊은 뿌리가 돼 주길 바란다."



관심과 사랑이 커질수록 무거워지는 책임감

골프 입문과 성장

초등학교 6학년 때 골프를 시작했는데, 1998년 박세리 프로님의 우승 장면을 보고 아버지가 결심을 한 것이다. 미국에 '골프 대디'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만큼 아버지들의 열정도 컸다. 딸들에 대한 그런 열정에 불을 붙여준 것이 협회와 수많은 선배들의 역할이었던 것 같다. 우리는 선배들이 깔아둔 길을 따라 간 것뿐이다. 특히 전라남도 시골에서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는데도 골프를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협회와 선배 골퍼들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라고 본다.

프로 데뷔 후 여러 차례 우승을 하고 골프장 밖에서 골프웨어를 입지 않은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게 신기했다. 나는 그냥 나의 꿈을 열심히 쫓아갔는데 그 꿈을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다. 국내에서 경기를 하는데 날씨 때문에 취소된 적이 있었다. 갤러리 수천 명이 경기를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죄송해서 인사도 하고 사인도 해드리려고 나갔는데 갑자기 몰린 인파에 위험해진 적이 있다. 이제는 골프가 인기를 얻으면서 어디서든지 그런 관심과 사랑이 느껴진다. 그럴 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책임이 무겁다는 생각도 한다.

미국에 나갔을 때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언어적인 문제도 있었다. 낯가림이 심한 나를 위해 일부러 첫 해 이후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셨던 것 같다. 무조건 혼자 부딪혀야 했는데, 그때 성격도 많이 달라진 것 같다. 미국 투어를 하면 한국에서도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게 된다. 그래서 인지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 관심들이 부담이 되기도 했다. 지금 13년차가 되었는데, 그 부담감이 조금 그립기도 하다.

지금은 실수를 해도 의연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익숙함이 아쉽기도 하다. 그런 부담스러운 관심이 경기력에는 약이 되기도 한다. 언론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관심이 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담감인데, 쓴소리를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식하는 정도를 선수가 잘 조절해야 하는 것 같다.

잊을 수 없는 순간

처음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60대 평균타수를 만들었던 때와 2008년도에 한국여자오픈 우승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유소연 선수와 연장전까지 갔는데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경기를 했다. 나는 일상에서 비 오는 날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경기장에 있는 동안 만큼은 비를 싫어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날씨와 싸우려 하지 않는다. 내가 견디기 힘든 날씨는 다른 모든 선수에게도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불평할 이유가 없다. 경기는 비가 와도 그대로 공정하다.

유소연 선수와 나 모두 열심히 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빗속에서 유소연 선수 역시 고군분투 하는 것이 그대로 느껴졌다. 7시간 가까이 플레이를 했다. 5월이었지만 비를 맞아서 쌀쌀했는데, 힘들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우승을 했지만, 승패를 떠나서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그 날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KLPGA 40주년 메시지

우리의 저력은 선배 프로님들이다. 나는 그분들의 등을 바라보고 걸은 것 밖에 없다. 내가 골프를 시작한 것도 박세리 프로님의 우승을 본 것이 계기였고, 선배님들이 미국 무대에서, 일본 무대에서 최정상에 서는 것을 보고 우리 목표의 기준 자체가 달라졌다. 선배님들 덕분에 우리 세대의 목표는 "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골프채를 잡는 순간부터 "세계 랭킹 1위가 되는 것"일 수 있었다. 선배님들은 우리가 꿈꾸고 상상할 수 있는 크기를 세계무대로 키워 놓았고, 그들이 한국 골프 자체이며 한국 골프의 저력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언론과 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하고, 일본에서는 프로가 된 만큼 어떤 매너를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집중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선수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와 선수들 간에 친목과 소통에 대한 부분을 가장 신경 쓴다. 그리고 선수들은 경쟁자인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고 힘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동반자들이다. 그런 교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었다. 어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선수를 위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KLPGA라고 생각한다. 덕분에 적응도 더 빨라지고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수들이 앞으로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 협회에서 "같이" 고민하는 것이 보인다.

일본에서 주니어 대회를 하나 하고 있다. 내가 선배들로부터 얻은 것, 협회로부터 대중으로부터 받은 관심과 사랑을 후배들에게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아직 현역에 있고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 때 후배들과 공감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영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후배들과 더 많이 교류하면서 협회와 어린 선수들을 이어줄 수 있는 다리가 되고 싶다. 내 앞으로의 꿈은 이제 더 이상 나만의 꿈일 수는 없을 것 같다.

올해 서른인 나에게 KLPGA의 역사는 평생 이상의 시간이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한국 골프를 위한 길을 닦아 온 선배님들과 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덕분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운동하며 세계 랭킹 1위를 당당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늘 우직하게, 선수들과 한국 골프를 지켜 주는 깊은 뿌리가 돼 주길 바란다.




LPGA

KLPGA 12 Stars Interview **08**

할아버지의 '3대 라운드' 소원과
박세리 선수의 투혼이 나를 골프로 이끌었다

박인비 2008년 KLPGA 입회 / 회원번호 00584

"우리나라 선수들의 가장 큰 저력은 노력이다. 다른 어떤 나라 선수들보다 치열하고 열심히 노력한다. 그런 노력이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 뒤에 묵묵히 헌신한 KLPGA는 지난 40년간 정말 많은 변화 속에 성장했다.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의 40년도 더욱 더 많은 기대를 해본다."



골프와의 인연과 꿈

골프 입문의 계기

나는 1998년 US여자오픈에서 박세리의 맨발 투혼을 보고 골프클럽을 잡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골프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우선 가족들, 그 중에서도 아버지께 찾을 수 있다. 가족들이 모두 너무나 골프를 좋아했고, 특히나 아버지가 골프를 한참 즐겨하셨다. 아버지는 내가 골프 치기를 간절히 바라셨고, 또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3대가 골프 치는 게 할아버지의 소원이었다.

그러던 중 1998년 US여자오픈도 아버지가 중계방송 보는 걸 옆에서 함께 봤다. 그때 박세리 선배님이 우승하는 걸 보고난 후 골프를 시작했다. 맨발로 해저드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TV 등에서 여러 차례 보았고, 골프연습장을 처음 찾았을 때 내 가슴 속에 그 장면이 있었다. 나 말고도 또래 친구들이 그 당시 다른 어느 때보다는 많이 골프를 시작하며 꿈을 키웠다.

골프 입문 2~3개월 후부터, 3대가 라운드하는 할아버지의 소원은 이루어졌다.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이 라운드 자체를 못하는 골프장도 많았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두 분 다 회원인 골프장에서 많이 라운드를 했다. 다른 코스의 경우 주니어선수들이 쉽게 라운드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런 상황도 고려하여 미국으로 눈을 돌렸다. 한국에서 몇 년 골프를 한 후 미국 유학을 떠났으며, 그 이후부터는 미국에서 쭉 골프 유학을 해오며 꿈을 키워갔다.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의 책임감

여자골프 세계 랭킹 1위 랭크와 아시아인 최초 여자 커리어 그랜드슬램 등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지만, 나에 대한 평가가 과분하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이런 내 성과에는 최근 10년간 정말 엄청난 발전을 거듭한 KLPGA 투어가 있었다.

물론 국내 선수들의 실력 향상도 큰 이유가 되겠지만, 또 다른 이유는 한국 여자 프로골퍼들이 USLPGA와 JLPGA 등 세계적인 투어에서 정상의 자리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세계 10위, 20위권에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세계 1위를 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KLPGA 투어에서 통하는 실력이라면 세계적으로 통하는 실력"이라고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더 많은 팬들과 더 많은 스폰서, 더 많은 중계 등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투어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때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낀다. 앞으로 당연히 그러겠지만, 어떠한 목표와 따라와야 할 길을 후배 선수들에게 제시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골프 꿈나무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하는 투혼을 보여준다는 칭찬을 듣곤 하는데, 그건 운동선수라면 가져야할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운동선수이고 프로선수이자 더욱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매 대회 최선을 다하고, 더욱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건 나 말고 모든 선수가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히 우리를 TV로 지켜보고 있는 꿈나무들이 있기에 더욱 더 신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16년 만에 나간 생애 첫 올림픽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올림픽 금메달을 따던 순간이다. 물론 'USLPGA 투어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을 때, 상금왕을 했을 때,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을 때, '명예의 전당'에 입회했을 때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하지만 리우 올림픽은 부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였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시기에 나온 결과이며, 또 국가대표로서 116년 만에 나가는 생애 첫 올림픽이었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는 것 같다.

우리나라 선수들의 가장 큰 저력은 노력이다. 다른 어떤 나라 선수들보다 치열하고 열심히 노력한다. 그런 노력이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 뒤에 묵묵히 헌신한 KLPGA는 지난 40년간 정말 많은 변화 속에 성장했다.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의 40년도 더욱 더 많은 기대를 해본다.


KB금융그룹
PARADISE

KLPGA 12 Stars Interview **09**

시즌 7승 달성과
시즌 최다 상금 기록의 기억

박성현 2012년 KLPGA 입회 / 회원번호 00899

"지금까지 KLPGA의 역사가 되어주신 프로님들에게 깊은 존경을 보내며, KLPGA 덕분에 우리나라 여자골퍼들이 세계시장에서 멋진 활약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KLPGA의 미래를 응원한다."



KLPGA의 역사가 되어주신 프로님들에게 깊은 존경을 보내며

골프 입문과 새로운 도전

아홉 살 때 부모님의 권유로 골프를 시작하게 되었다. 스무 살 때부터 드림투어와 점프투어 경기를 시작했으며, 스물두 살에 정규투어 시드를 받고 본격적으로 투어를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해인 2017년부터 USLPGA 투어에 도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16년에 시즌 7승 달성과 시즌 최다 상금 기록을 달성하는 영예도 누렸다. 그때의 기분은 말 한 마디로 설명할 순 없을 것 같다. 물론 7승을 하는 동안 아쉬운 경기들도 많았지만, 정말 환상적인 2016년이었다. 주위 사람들도 '정말 멋진 한 해'라고 얘기해주었고, 내 스스로 지금까지 자신감을 가지고 골프를 할 수 있었던 중요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6년 한화 클래식이 정말 기억에 남는다. 대회 기간 동안 힘든 과정이 있던 만큼 경기에 더 집중하고자 했고, 결국 우승을 해냈던 대회이기 때문이다.

KLPGA 40주년 메시지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잘 하고 싶은 일이 바로 골프이기 때문이다. 골프에 대한 열정만은 항상 소중히 간직하며, 기본적으로 매 순간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 집중할 것이며, 이제까지 이루어 왔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KLPGA의 역사가 되어주신 프로님들에게 깊은 존경을 보내며, KLPGA 덕분에 우리나라 여자골퍼들이 세계시장에서 멋진 활약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KLPGA의 미래를 응원한다.



KLPGA 12 Stars Interview **10**

KLPGA 곁에는
항상 응원을 해주시는 팬 분들이 있다

이보미 2007년 KLPGA 입회 / 회원번호 00549

"KLPGA 40주년 역사에는 항상 노력하는 협회 관계자, 선후배 프로들,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응원을 해주시는 팬 분들이 있다.
그 힘을 바탕으로 50주년, 100주년까지도 계속해서 쭉쭉 뻗어나갔으면 좋겠다."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

골프 입문과 도전

골프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지금처럼 많은 여자골퍼들이 없었다. 하지만 박세리 프로님이 US오픈에서 맨발 투혼을 보인 이후, "여성도 대담하고 멋진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인식이 변한 듯하다. 나 역시도 '언젠가 저런 플레이를 해야지'라는 각오로 많이 노력했다. 그 이후로 김미현 프로님, 장정희 프로님을 보면서, 좀 죄송하지만, '키가 작아도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JLPGA 무대에서 2015년 시즌 최다 상금 2억 엔을 달성했을 때, 당시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록이라 그냥 스스로도 얼떨떨했다. 다만 매 순간 최선을 다 하고자 노력했고,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어서 기뻤다.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 경기 도중에 힘이 들거나 지칠 때는 나를 위해 물심양면 도와주시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팬 분들을 생각하면 힘이 난다.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는 2010년 KLPGA 투어인 'KB국민은행 스타투어'다. 첫 번째 메이저대회 우승이었고, 정말 많은 갤러리와 팬 분들의 응원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코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유소연 프로와 함께 플레이 할 수 있어서 3박자가 잘 맞았던 거 같다. 마지막 홀 서드샷은 너무 정확하게 핀으로 다가가서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사진처럼 생생히 남아있다.

그리고 가장 힘겨운 순간은 최근이다. 생각처럼 스윙 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성적이 예전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예전의 스윙을 찾아가려 노력하고 있으니 곧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KLPGA 40주년 메시지

돌이켜보면, 가장 보람된 순간은 팬 분들의 모습을 볼 때다. 정말 힘들고 외롭고 두려운 순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의 얼굴 표정과 목소리만 들어도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된다.

나는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KLPGA 대회 방송도 챙겨보고 있다. 후배들의 기량이 예전보다 급속도로 좋아진 거 같아 깜짝 놀라기도 한다. 한국 여자골프가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이슈를 끄는 이유는, 앞서 해외무대로 진출하신 선배 프로님들이 좋은 기량으로 발판을 잘 마련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KLPGA 40주년 역사에는 항상 노력하는 협회 관계자, 선후배 프로들,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응원을 해주시는 팬 분들이 있다. 그 힘을 바탕으로 50주년, 100주년까지도 계속해서 쭉쭉 뻗어나갔으면 좋겠다.



KLPGA 12 Stars Interview **11**

숫자 '6'을 보면
떠올려지는 선수

이정은6 2015년 KLPGA 입회 / 회원번호 01069

"KLPGA 소속 선수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 여자골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다."



골프와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골프 입문과 성장

KLPGA 준회원 자격증(세미프로)을 따서 '레슨 프로'라는 직업을 가질 생각으로 골프를 시작하게 되었다. 아마추어 시절, 국가대표로서 태극마크를 달고 대한골프협회 유자격 대회에서 4승을 하며 골프가 점점 더 재미있어졌고, 2015년에는 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인 및 단체 금메달을 따며 2관왕을 달성하기도 했다. 열심히 연습을 하다 보니 좋은 결과가 나왔고, 프로 전향을 위한 세미 테스트 1위 통과, 점프투어 우승과 정회원 자격 획득, 정규투어 시드 확보 등을 거치는 동안 골프와 하나가 되어갔다.

2017년 18홀 12언더파 60타를 기록하여 14년 만에 KLPGA 최소 스트로크 신기록을 세우고 시즌 4관왕을 달성했을 때, 골프를 하면서 도움을 주셨던 분들에게 보답을 해드린 마음이 들어서 스스로도 기뻤다. 이런 수상에 대한 영광은, 좋은 골프 선수이자 좋은 인성을 가지고자 하는 인간으로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나고 보니, 당시에는 그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 이후에 계속해서 다른 대회에 참가하며 경기를 계속하다 보니 점점 대단한 기록을 세웠음이 실감났고 자부심도 생겼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상금을 받아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을 마련했을 때인 것 같다. 부모님께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KLPGA 회원으로서의 각오

우리나라 선수들은 모두 정신력이 대단하다. 지금까지 국내 여자골프 선수들을 위해, 골프대회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준 KLPGA의 힘도 컸다. KLPGA 소속 선수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 여자골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정은6'라는 이름 때문에 숫자 '6'을 보면 저절로 나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그냥 영어로 '식스'라고 불러주시는 것도 유쾌하다.



KLPGA 12 Stars Interview **12**

선배님들이 쌓아놓은 KLPGA의 위상을 이어갈 수 있는 선수

최혜진 2017년 KLPGA 입회 / 회원번호 01214

"훌륭한 선배님들과 팬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KLPGA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나도 더욱 발전하는 선수가 되어, 선배님들이 쌓아놓은 KLPGA의 위상을
이어갈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고 다짐한다."



국가대표에서 아마추어 우승까지

골프 입문과 성장

어려서부터 운동을 좋아했는데, 골프를 유독 좋아하시던 아버지가 권해주셔서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국가 상비군으로 1년 활동한 뒤 국가대표가 될 수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해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 금메달을 따던 순간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이렇게 국가대표가 되자 각종 국내외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대회 경험이 많이 쌓였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KLPGA 프로무대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고, 2017년에 아마추어로서 우승을 하여 바로 투어에 진출할 수 있었다. 당시 아마추어로서 경기 경험을 쌓으려고 나간 프로대회였는데, 우승까지 하게 되어 스스로 놀라기도 했고 정말 행복했다. '보그너 MBN 여자오픈' 또한 '이미 1승을 하고 난 후이고 아마추어로서 마지막 대회라 잘 마무리하자'는 마음으로 즐겁게 경기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와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KLPGA 40주년 메시지

경기를 할 때면 주변에 신경 쓰지 않고 내 플레이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한다. 주변 환경에 정신이 분산되지 않고 집중력이 높을 때 확실히 성적이 잘 나오는 것 같다.

지금까지 US여자오픈이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잘 이끌어 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실수가 나와서 너무 아쉬웠다.

이런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우리나라 선수의 일원인 게 자랑스럽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항상 열정이 많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식이 크다. 그래서 어디서도 뒤쳐지지 않고 좋은 성적을 내는 것 같다.

이렇게 훌륭한 선배님들과 팬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KLPGA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나도 더욱 발전하는 선수가 되어, 선배님들이 쌓아놓은 KLPGA의 위상을 이어갈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고 다짐한다.





Appendix



1978
2018

01 | 현 임원
02 | KLPGA 역대 회장
03 | Corporate Identity
04 | Emblem
05 | Character
06 | 회원 수 현황
07 | KLPGA 정규투어 현황
08 | 드림투어 현황
09 | 점프투어 현황
10 | 챔피언스투어 현황
11 | KLPGA 연표
12 | 제10대 홍보모델 화보

01 | 현 임원



회장

김 상 열



수석부회장 **강 춘 자**



부회장 **이 영 미**



전무 이사 **김 경 자**

02 | KLPGA 역대 회장



1대, 3대 회장
김성희



4대 회장
성하현



6대, 7대 회장
조동만

1988 | 1989 | 1992 | 1996 | 1998 | 1999

2대 회장
한장상



5대 회장
이관식





10대 회장
선종구



12대 회장
구자용

2004 2009 2011 2012 2015 2016 2017 2018

8대, 9대 회장
홍석규



11대 회장
故구옥희



13대 회장
김상열



03 | Corporate Identity

CI Conce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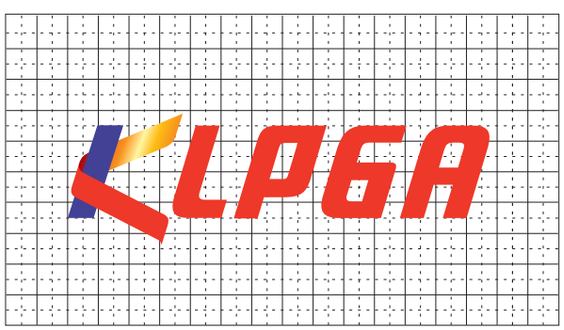
여성과 골프의 공통적 속성이라 할 수 있는 부드러운 섬세함과 힘있는 역동성

KLPGA의 새로운 CI는 무대에서의 상징성과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라는 대표성을 현대적 감각으로 강화함으로써 선수들에게는 자긍심을 고취하고 보다 널리 애호될 수 있는 Lovemark를 지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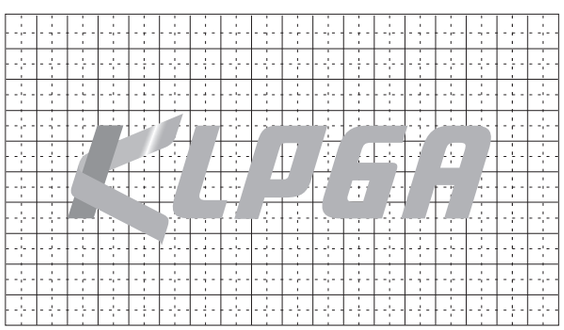
New CI의 표현 주제는 'Silk & Steel'로, 여성과 골프의 공통적 속성이라 할 수 있는 부드러운 섬세함과 힘있는 역동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전체적인 특징은, Red Color를 주색으로 한 영문 Wordmark형으로 여성이 주체임을 암시하는 한편, Korea를 나타내는 'K'에 한국의 정체성을 국제적 감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 Red, Blue, Yellow Color로 적용함으로써 KLPGA만의 독특한 퍼스널리티를 담아내고 있다.

특히, Italic으로 처리된 조형적 역동성과 더불어 Red는 Passion, Blue는 Sportsmanship, Yellow는 세계로 뻗어 나가는 Vision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는 KLPGA, 소속 프로선수, 고객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KLPGA Spirit'을 상징한다.

BASIC MARK



BASIC MARK (Solid)



LOGOTYPE

KOREAN LOGOTYPE | 사단법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ENGLISH LOGOTYPE | *Korea Ladies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

SIGNATURE

KLPGA Korea Ladies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KLPGA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KLPGA Korea Ladies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

BASIC COLOR

MAIN COLOR |

KLPGA Red	KLPGA Yellow	KLPGA Blue
Pantone 2035C	Pantone 7549C	Pantone 2945C
M 92 / Y 95	M 33 / Y 100	C89 / M 89 / Y 6

SUB COLOR |

KLPGA Gray	KLPGA Silver	KLPGA Gold
Pantone 417C	Pantone 877C	Pantone 871C
C 1 / Y 25 / K 65		

04 Embl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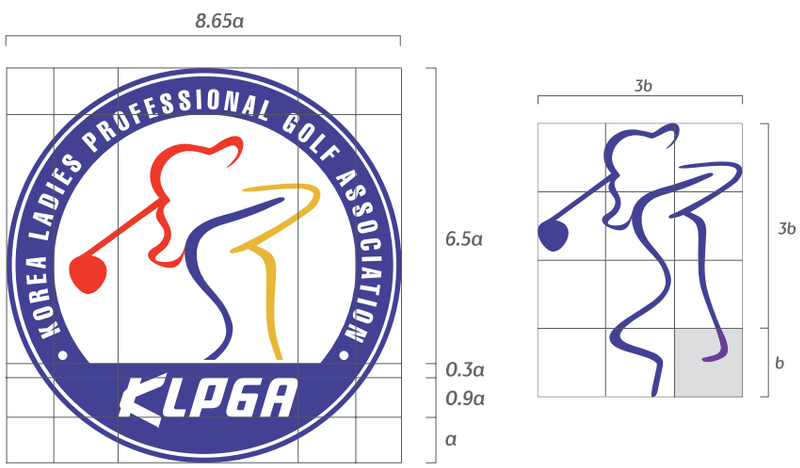
Emblem Symbol & Concept

엠블럼은 KLPGA의 전체 이미지를 포괄적으로 상징하는 시각물로서 CI(Coporate Identity)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상의 도구로서 모든 기회에 언어나 태도로 설명을 다 할 수 없는 콘셉트를 언제 어디서나 전달할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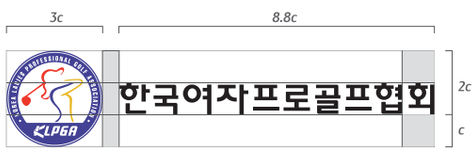
KLPGA 심볼은 골프 선수의 실루엣 라인으로 부드러운 섬세함과 역동성을 표현한다.
Red는 Passion, Blue는 Sportsmanship, Yellow는 세계로 뻗어 나가는 Vision, KLPGA를 상징하는 3색과 스윙 실루엣이 조화롭게 어울려 하나가 되는 KLPGA만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준다.

KLPGA 심볼은 화려한 획과 곡선이 없이 모던하고 깔끔한 느낌을 준다. 이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신뢰받는 협회가 되겠다는 약속을 나타낸다.

BASIC MARK



SIGNATURE





COLOR USAGE


White 바탕에 Full Col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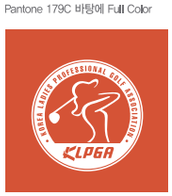

Black 바탕에 Full Color


Grey 바탕에 Full Color


Pantone 179C 바탕에 Full Col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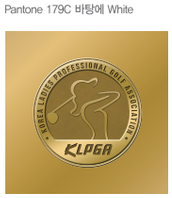

Pantone 660C 바탕에 Full Col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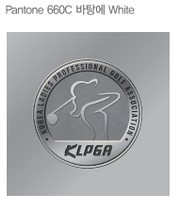

Pantone 7406C 바탕에 Full Col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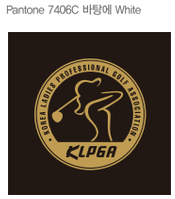

Pantone 179C 바탕에 White


Pantone 660C 바탕에 White


Pantone 7406C 바탕에 White


GOLD 바탕에 GOLD Embossing


SILVER 바탕에 SILVER Embossing


Black 바탕에 금


Black 바탕에 은박

05 Character

호기심이 많은 요정 케이(Kay)



나 이 7살

특 징 요정의 세계에는 처음 자신의 몸에 닿는 물건이 매우 중요하다.
닿는 순간, 그 물건의 요정이 되는 규칙이 있기 때문!!
자신의 임무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던 중 우연히 날아온
골프공에 맞고, 요정의 규칙에 의해 골프의 요정으로 탄생한다.

성 격 밝고 명랑하며 호기심이 많다. 골프 요정이 된 후로는 경기라면
가리지 않고 관람할 정도로 열정적이기도 하다.
지금은 비록 어설픈 실력이지만, KLPGA 대표 선수이자
대한민국 최고로서 활약하는 게 꿈이다.

좋아하는 것 경기 관람하기, 연습하기, 드넓은 필드와 자연,
새로운 친구 사귀기, 하늘 날기

싫어하는 것 비오는 날(경기없는 날), 환경오염

귀여운 골프 뮤즈, 골프공 버디(Bud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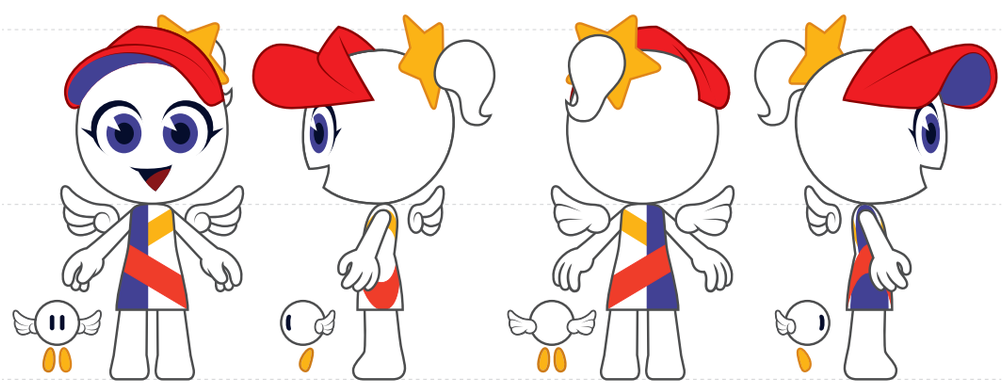
나 이 비공개

성 격 케이의 마법으로 골프공에서 뮤즈로 태어난 버디!
프로골퍼의 공으로 오랫동안 활약했기에 골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 골프 초보생 케이의 옆에
항상 따라다니며 도움을 준다. 케이의 친구이자
멘토로서 큰 역할을 할 예정이다.

좋아하는 것 케이에게 조언하는 것, 수다 떨기,
카트타고 드라이브 하기

싫어하는 것 조언 듣기, OB

BASIC - TURNAROUND



LOGO

Kay 케이 Buddy 버디

Kay 케이 Buddy 버디

Kay 케이 Buddy 버디

Kay 케이 Buddy 버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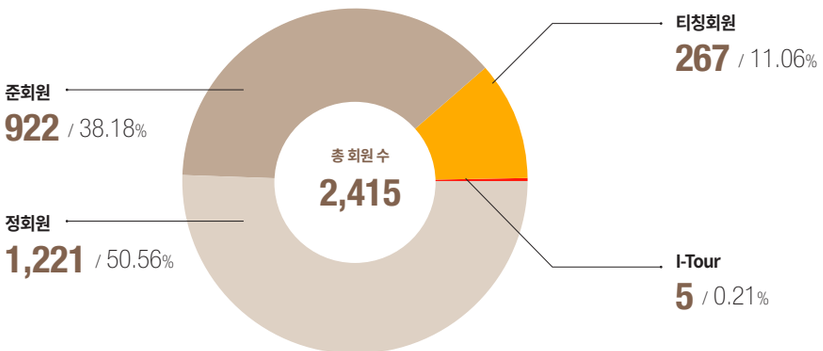
CHARACTER ILLUST

	2D	3D
기본 포즈		
인사, 환영하는 포즈		
방향안내		
골프포즈		
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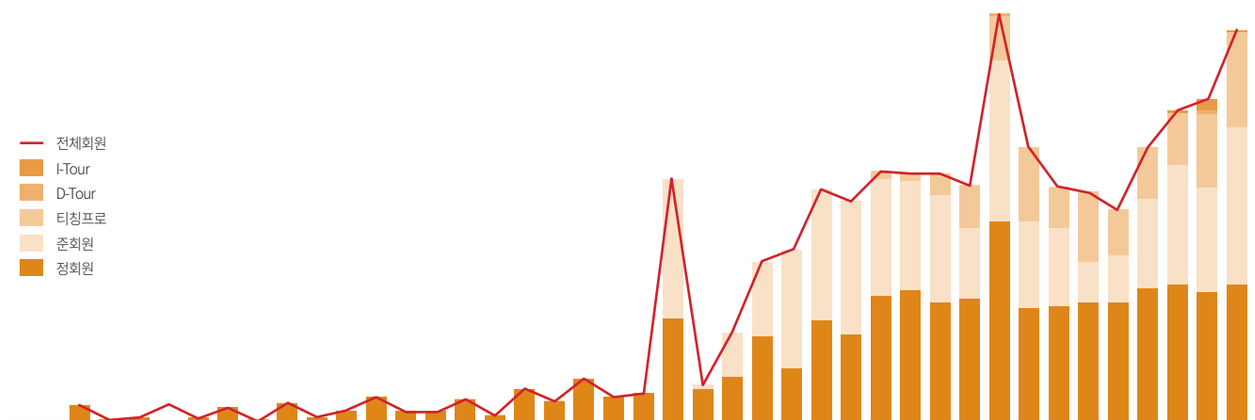
06 | 회원 수 현황

전체 회원 현황 (단위 : 명)

※ 전체 회원 현황은 제명자를 제외한 자료임(2018.04.06 기준)



회원 자격별 신규 입회자 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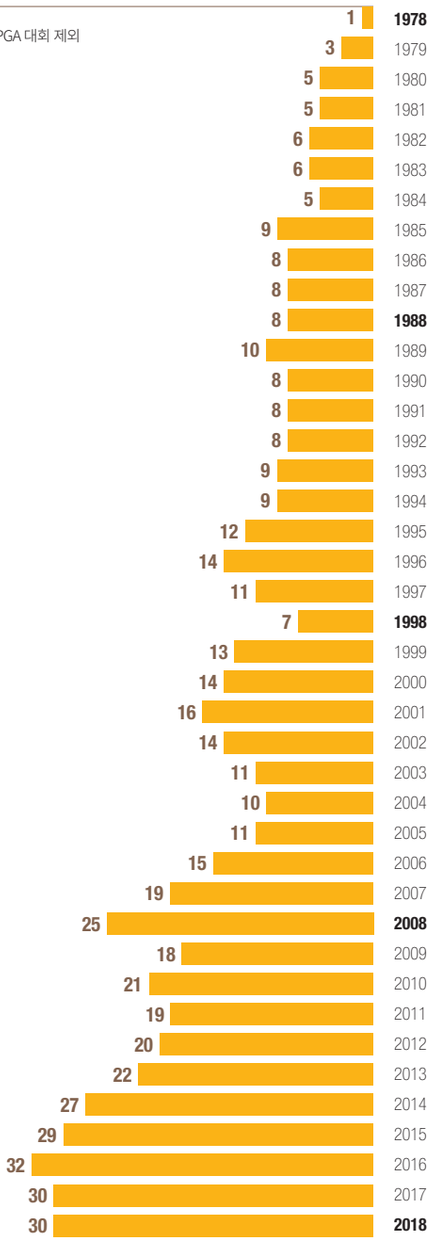


입회연도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정회원	8	1	2	0	2	7	1	9	2	5	12	5	5	11	3	16	10	21	12	14	51	16	22	42	26	50	43	62	65	59	61	99	56	57	59	59	66	68	64	68
준회원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69	2	22	37	59	65	66	58	54	53	35	80	43	39	20	23	44	59	52	78
티칭프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4	11	21	22	37	20	35	23	26	26	36	47
D-Tour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2	0
I-Tour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6	1
합계	8	1	2	0	2	7	1	9	2	5	12	5	5	11	3	16	10	21	12	14	120	18	44	79	85	115	109	124	123	123	117	202	136	116	114	105	136	154	160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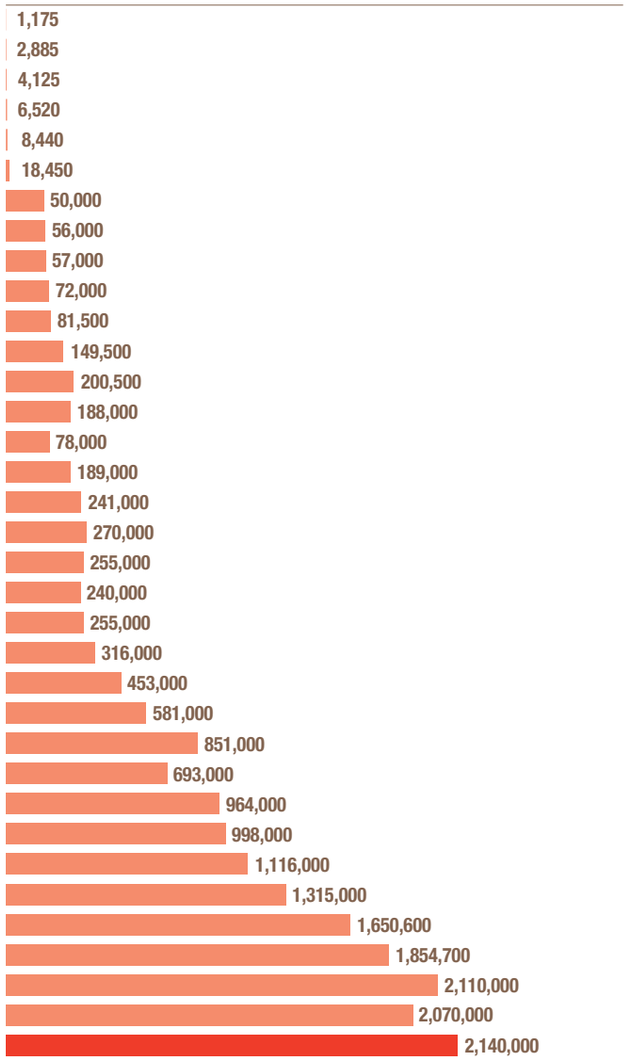
07 | KLPGA 정규투어 현황

KLPGA 정규투어 대회 수 현황 (단위 : 개)

※ 한일 국가대항전, 국내에서 개최되는 LPGA 대회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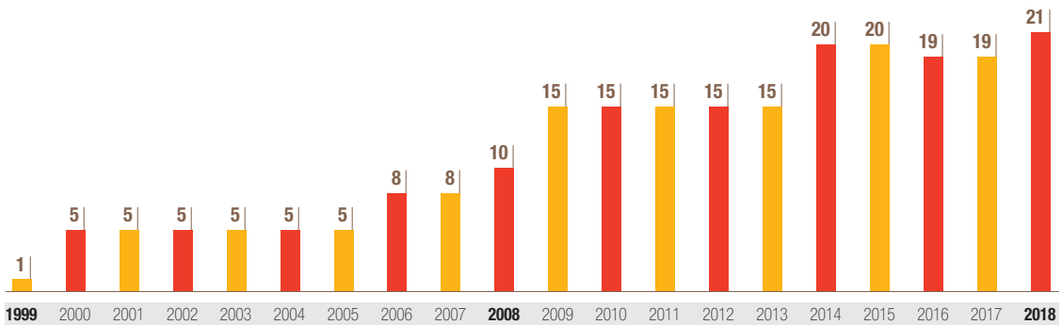
KLPGA 정규투어 상금현황 (단위 : 만 원)



08 | 드림투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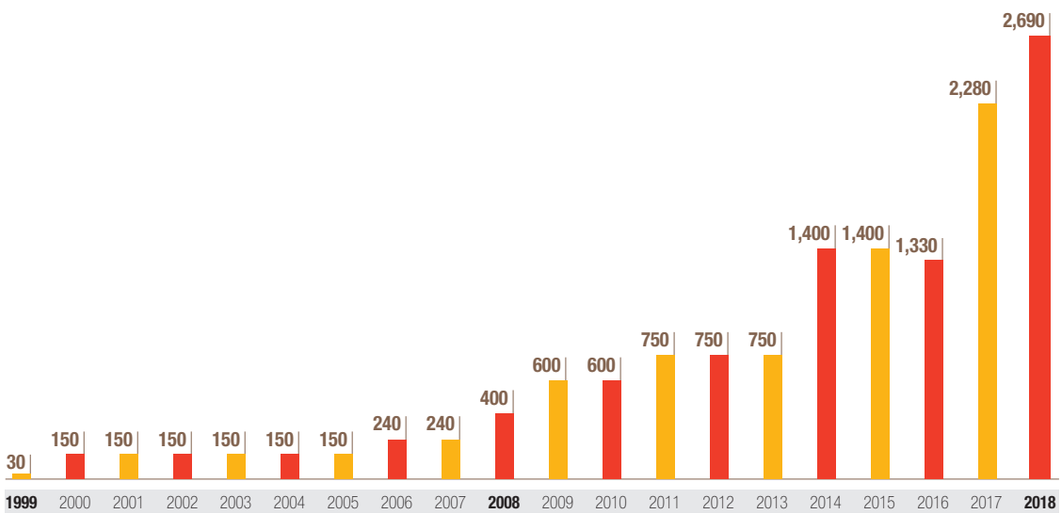
드림투어 대회 수 현황 (단위 : 개)

※ 1999년부터 드림투어 출범, 이벤트성 대회 제외



드림투어 상금 현황 (단위 :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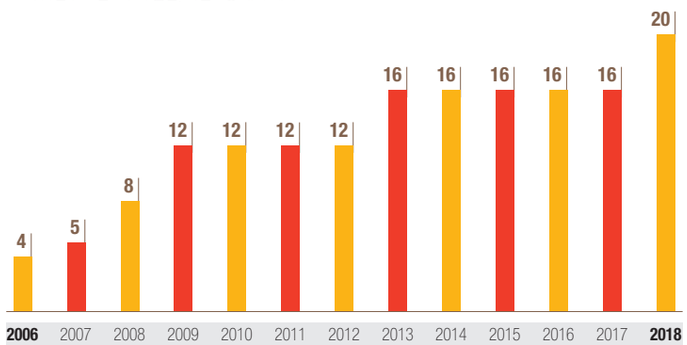
※ 1999년부터 드림투어 출범, 이벤트성 대회 제외



09 | 점프투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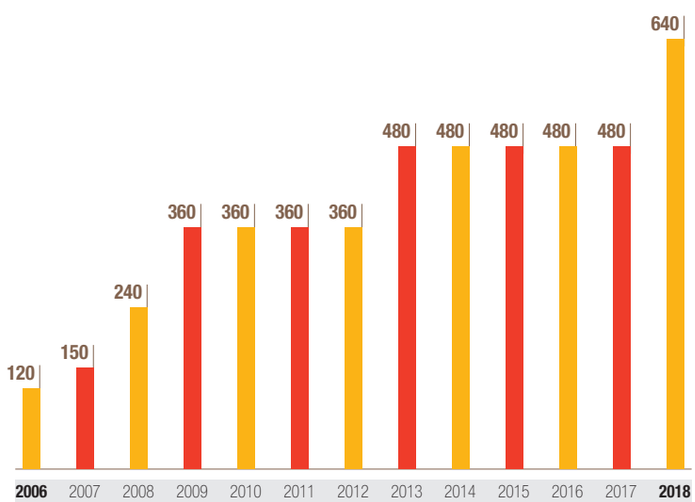
점프투어 대회 수 현황 (단위 : 개)

※ 2006년부터 점프투어 출범, 이벤트성 대회 제외



점프투어 상금 현황 (단위 :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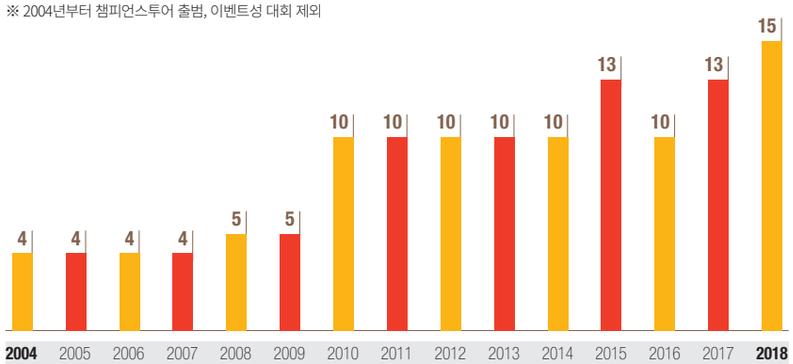
※ 2006년부터 점프투어 출범, 이벤트성 대회 제외



10 | 챔피언스투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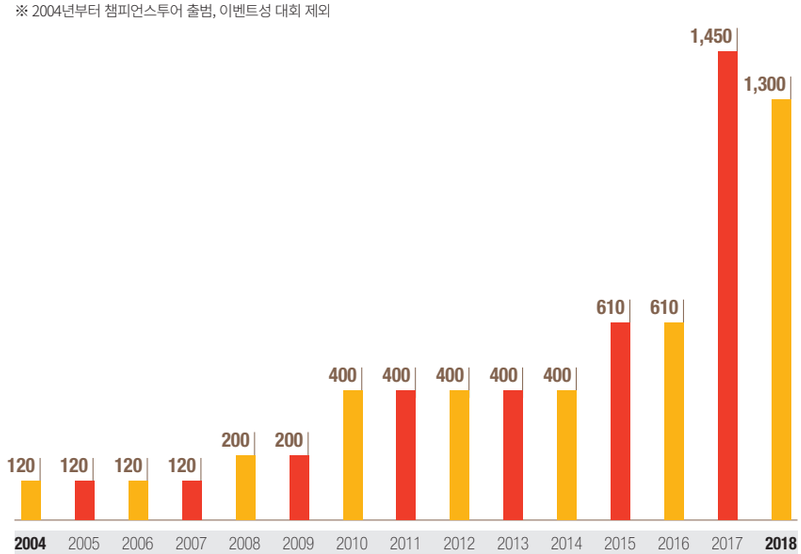
챔피언스투어 대회 수 현황 (단위 : 개)

※ 2004년부터 챔피언스투어 출범, 이벤트성 대회 제외



챔피언스투어 상금 현황 (단위 : 백만 원)

※ 2004년부터 챔피언스투어 출범, 이벤트성 대회 제외



11 KLPGA 연표

1978-87

1978 한국프로골프협회 내 여자프로부탄생
프로 테스트 실시 및 여자 프로골퍼 탄생(8명)
첫 프로골프대회 창설(여자프로골프선수권)

1983 최초 日프로골프 테스트 통과(한명현)

1984 최초 日프로골프 테스트 우승(구옥희)

1985 최초 美프로골프 테스트 통과(구옥희)

1988-99

1988 **김성희 회장(제1대) 취임**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창립
(2월 2일, KPGA에서 분리 / 삼성동 사무실 이전)
최초 美프로골프대회 우승(구옥희)

1990 **한장상 회장(제2대) 취임**
최초 아시아 서키트 참가
최초 기록 모음 제작
최초 국내 자선골프대회 신설
최초 국제대회 개최(서울여자오픈)

1991 문화체육부 등록 - (사)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경기분과위원회 신설

1992 **김성희 회장(제3대) 취임**
논현동 사무실 이전
경기기록 부분 전산 도입

1993 협회내규 제정
프로 테스트 합격자 연수기간 규정 제정
불우이웃돕기 보건사회부 장관상 수상

1994 이사 역할분담제 실시
최초 아시아 서키트 우승(원재숙)

1995 美LPGA 투어 국내 개최(삼성월드챔피언십)

1996 **성하현 회장(제4대) 취임**
협회 소식지 창간

1997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최초 인돌스먼트 억대계약 체결(박세리-삼성아스트라)

1998 **이관식 회장(제5대) 취임**
준회원 선발전 신설(연1회)
박세리 美2개 메이저대회 우승(LPGA챔피언십, US오픈)
대의원제도 도입
박세리 체육훈장 맹호장 수훈
박세리 美LPGA 신인상 수상
최초 협회 대행사 선정(ISE)

1999 **조동만 회장(제6대) 취임**
최초 시드전 제도 도입
최초 준회원대회 개최(강촌사장배)
서초동 사무실 이전
김미현 체육훈장 맹호장 수훈
김미현 美LPGA 신인상 수상
최초 국가대항전 신설(제1회 핀크스컵 한일대항전)
한국여자프로골프 대상 시상식 실시
프로입문 나이제한 철폐
아마추어 시드전 실시(연 2회)
기술분과위원회 신설

2000-09

2000 **조동만 회장(제7대) 취임**
우수프로골퍼 정회원 자격부여(펄신, 박지은)
첫 대의원 총회 개최
드림투어 출범(미사일 드림투어)
골프대회 인터넷 실시간 중계실시
방송 중계권료 체결(SBS 골프채널 44)
LET 레이디스 월드컵 골프대회 참가(강수연, 박현순)

2000
美LPGA 여자월드컵 골프대회 참가(박소영, 이선희)
특별 소비세 폐지(골프장 그린피)

2001
아마추어 시드전 폐지
한국여자프로골프 '한국을 대표하는 일등상품' 선정
프로입문 나이제한 부활(만 17세 이상)
한희원 美LPGA 신인상 수상
이지희 日LPGA 신인상 수상
박세리 美LPGA 5승
(유어라이프 바이타민스 클래식, 롱드럭스 챌린지,
제이미파크로거 클래식, 브리티시 여자오픈, AFLEC 챔피언스)
해외활동 선수들 외화 획득 67억원 돌파
사무실 이전(삼성동)
특별 회원제도 도입(외국국적자 대상)
협회발전기금 및 자선기금 조성(우승자 대상)
준회원 선발전 연 2회 실시
준회원 선발 합격타수 변경(3라운드 249타→243타)
KLPGA 감독기관 변경(문광부에서 강남구청으로 변경)

2002
18홀 최저타 신기록(강수연 62타)
마루한컵 2002 한일 여자 프로골프대항전 우승, 최초 일본 개최
한일전 시청률 골프대회사상 최고 기록
(전국 6.3%, 수도권 7.2%, 부산 12.2%)
해외활동 선수들 외화 획득 87억원 사상 최고 기록
KLPGA TOUR 역대 최다대회 개최
총상금 48억 돌파(CJ나인브릿지 클래식 포함)
이미나 대상시상식에서 최다상 수상
(국내대상, 상금왕, 신인상, 스포츠서울투어상)

2003
日LPGA 메이저대회 3개 모두 석권(고우순, 구옥희)
CNN 10대 뉴스 한국프로골퍼 선정
KLPGA회원 인돌스먼트 최다(61명)
해외 투어 진출선수 최다(美15명, 日8명)
KLPGA회원 500명 돌파(541명)
KLPGA TOUR 최다시간 방송중계(366시간 36분)
美LPGA 투어 국내 개최/(스포츠투데이 CJ나인브릿지 클래식)
아마추어 시드전 재도입
라이센싱 파트너 계약(선생로, 동아회원거래소, 스포츠투아이)

2003
홍보용 캘린더 제작
준회원선발 TEST 이론 및 실기 분리실시
이동수 KLPGA 골프대상시상식 개최
전미정 한국프로골프 최저타수 61타 신기록(남자포함)
박지은 체육훈장 맹호장 수상
농심배 신인왕전 최초 개최
KLPGA 안시현 美LPGA 우승(CJ나인브릿지 클래식)
박세리 성대결 통과 및 TOP 10진입
신입 정회원 교육 부활
박세리 최저타수상(베어트로피)수상
한일전 2년 연속 우승
JLPGA 역대 최다승 기록 이지희(4승)
발전기금 기탁 러쉬(아시아드, 김주미, 안신현, 김영)
해외활동 선수들 외화 획득 105억원 사상 최고
(2002년도 87억원)
풀시드권 명수 규정 변경(40→50명)
산휴제도 시행
준회원선발전 나이 기준일자 규정 변경
(2월 1일→3월 1일 기준)
메이저대회 개최조건 규정 제정
김성희 고문 제1대 초대 회장 규정 변경
드림투어 상금왕 당해연도 잔여대회 KLPGA TOUR 시드권 부여
KLPGA 정규투어 초청제한
(동일 프로에 대하여 상반기 2번, 하반기 2번)
총 60명 이상의 대회만을 상금순위에 인정

2004 **홍석규 회장(제8대) 취임**
KLPGA 사무국 팀제로 조직개편
신은영 회원 첫 골프장 총지배인에 오름
(안성레이크힐스GC/퍼블릭)
박지은 USLPGA 메이저대회 나비스코 챔피언십 우승
박세리 USLPGA 명예의 전당 입회 자격 획득
KLPGA 이동수 시니어오픈골프대회 신설
박지은 美LPGA 베어트로피(최저타수상) 수상
안시현 美LPGA 신인상 수상
KLPGA 공식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한일전 3년 연속 우승

2004
구옥희 KLPGA 첫 명예의 전당 입회
골프토토 6/45 발매

2005
KLPGA 투어 역대 최고 총상금액 기록
(전대회: 51억 / 상금순위대상대회: 30억 6천만원)
한국 골프 역사상 최초 평양오픈 골프대회 개최
(총상금 1억원 / 우승자: 송보배)
KLPGA 첫 해외정규대회개최[삼성 레이디스 마스터즈(싱가포르)]
KLPGA 티칭프로 제도 도입
CJ나인브릿지 클래식 4회 연속 한국선수 우승 이지영
신데렐라로 탄생
미국 FUTURES TOUR - 이선화 올해의 선수상 수상
송보배 KLPGA 국내 대상 2연패
해외 투어 진출선수 총 획득 상금 130억원 돌파
KLPGA 새로운 로고 제작 발표
이선화 USLPGA 퓨처스투어'올해의 선수상'수상
KLPGA 홈페이지 실명제 도입
온라인 회원증명서 및 경기실적 증명서 발급 서비스 실시
신용카드 겸용 회원카드로 변경
드라이버 반발계수 규정 제정

2006
KLPGA 투어 역대 최고 총상금액 기록
(전대회: 62억 2천만 원 / 상금순위대회: 45억 원)
KLPGA 역사상 최초 투어 도입
- KB국민은행 스타투어 4개 대회 / 총상금 11억원
KB국민은행 스타투어 4차대회(상금 5억원)
- KLPGA 세 번째 메이저대회로 승격
KLPGA 첫 중국 정규대회 개최
- 2006 오리엔트 차이나 레이디스오픈(우승: 신지애)
KLPGA 3부 투어(점프투어) 개최
- 4개대회(총상금 1억 2천만원)
KLPGA 회원수 1000명 돌파 - 1007명
(정회원 521명 / 준회원 477명 / 티칭회원 7명 / D-TOUR 회원 2명)
국내 美LPGA 투어 5회 연속 한국선수 우승
- 홍진주 신데렐라로 탄생

2006
美LPGA 투어 - 이선화 올해의 신인상 수상
신지애 KLPGA 대상시상식 5관왕의 영예
(대상, 신인상, 상금왕, 다승왕, 최저타수상)
해외 투어 진출선수 총 획득 상금 149억 원 돌파
KLPGA 명예 홍보대사 위촉 - 개그맨 신동엽, 가수 팀
(본명: 황영민)
KLPGA 방송중계권 계약

2007
KLPGA 투어 역대 최고 총상금액 기록
(전대회: 74억 5천만 원 / 상금순위대회: 55억 원)
KB국민은행 스타투어에 이어 MBC투어 출범
- 4개대회 / 총상금11억 원
KB국민은행 스타투어 1개 대회 더 늘려 5개 대회개최 - 13억원
KLPGA 개막전 중국 상해에서 개최
- 아시아마일즈 빈하이 레이디스 오픈
스포츠토토 기금으로 유소년 체육 활성화 사업 시행
신지애 지난해에 이어 대상, 상금왕, 다승왕, 최저타수상 수상
박세리 美LPGA 투어, KLPGA 투어, 세계골프 명예의전당 동시 헌액
KLPGA 주관방송사 선정 - Xports, J골프
KLPGT(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 주식회사 설립

2008 **홍석규 회장 제9대 회장으로 재추대**
KLPGA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및 KLPGA 4대 비전 선포
KLPGA 30주년 기념화보집 [drama] 발행
KLPGA 투어 역대 최고 총상금액 기록
(전대회: 약 118억 원/ 상금순위대회: 약 87억 원)
KLPGA 투어 역대 최고 대회수 기록
(전대회: 27개 / 상금순위대회: 25개)
단일대회 최고 상금액 경신
(하이원컵 SBS 채리티 여자오픈: 총상금 8억원)
신지애 3년 연속 대상, 상금왕, 최저타수상, 다승왕 수상
서희경 11년 만에 3주 연속 우승 재현
박인비 US여자오픈 우승
신지애 브리티시 여자오픈 우승
신지애 KLPGA 투어 3대 메이저대회 석권하며 그랜드슬램 달성
KLPGA 투어 포털사이트 네이버로 온라인 생중계 시작

2008

KLPGA-LET 공동 주관 대회 국내에서 최초 개최
(세인트포 레이디스 마스터즈)
가수 이은하 KLPGA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

2009 — **선종구 회장(제10대) 취임**

하이트컵 챔피언십 KLPGA 제4대 메이저대회로 승격
KLPGA 드림투어 및 점프투어 대회수 증가
(드림투어 5개대회 증가 총 15개 / 점프투어 4개대회 증가 총 12개)
올바른 응원 문화 캠페인 전개
KLPGA 2010년도 캘린더 제작
KLPGA/KLPGT 공식 홈페이지 새롭게 분리 오픈
KLPGA 연예 홍보단 정식 출범
KLPGA 제1대 홍보모델 선정(김보경, 김하늘, 김혜윤, 나다예, 문현희, 서희경, 유소연, 윤채영, 최혜용, 홍란)
KLPGA 위너스클럽 신설
(입회자: 김현지, 이보미, 이정은5, 이현주)
한일국가대항전 한국팀 3년 만에 우승 차지(5승 2무 3패)
KLPGA 경기분과위원회 고충남 경기위원장 선임
KLPGA 도핑테스트 첫 실시
(3개 대회: 하이원리조트컵 SBS 채리티여자오픈, LG전자 여자오픈, KB국민은행 스타투어 그랜드파이널)
서희경 KLPGA 투어 대상, 상금왕, 다승왕, 최저타수상 4관왕 차지
신지애 美LPGA 투어 상금왕, 신인상 수상
송보배 日LPGA 투어 신인상 수상
지은희 US여자오픈 우승
송보배 일본여자오픈 우승

2010-17

2010

정회원 및 준회원 선발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
(연간 정회원 총 61명, 준회원 총 109명 선발)
KLPGA 회장배 여자아마골프선수권대회 개최
박세리 체육훈장 최고등급 청룡장 수훈
신지애 롤렉스 월드랭킹 1위 등극
신지애 KLPGA 명예의 전당 헌액 포인트 채워 최연소 입회 예약(2015년 입회)

2010

최나연 美LPGA 투어 상금랭킹 1위 및 베어트로피(최저타수상) 수상
안선주 日LPGA 투어 한국인 최초 상금왕, 신인상 동시 수상
이보미 KLPGA 대상, 상금왕, 다승왕, 최저타수상 4관왕 차지
KLPGA 공식 온라인 웹진 발행
KLPGA 공식 페이스북과 트위터 운영
KLPGA 시니어투어 대회수 증가
(5개 대회 증가 총 10개 대회 개최)
KLPGA 제2대 홍보모델 선정(김하늘, 서희경, 안신애, 유소연, 윤채영, 이보미, 이혜인, 임지나, 최혜용, 홍란)
KLPGA 이벤트성 프로암 역대 최다 48개 대회 개최
(공인료 수익 1억1천만원)
KLPGA 메이크어위시 재단으로부터'뉴 위시 파트너'상 수상
2010 KLPGA 유소년 골프클리닉 행사 진행
(상반기-양수진, 하반기-이보미)
KLPGA 교육분과위원회 구성 및 서아람 위원장 위촉
KLPGA 경기분과위원회 김광배 위원장 위촉

2011 — **구옥희 회장(제11대) 취임**

KLPGA 3대 홍보모델 선정 발표(김하늘, 김자영2, 김혜윤, 안신애, 양수진, 유소연, 윤채영, 이보미, 이정민, 홍란, 홍진주)
KLPGA 프리미엄 골프매거진'LUNA GOLF'발행
기아자동차 KLPGA 신인상 및 홀인원 2년간 공식 후원
드림투어 총상금 5천만 원으로 인상
KLPGA 상벌분과위원회 구성 및 김희정3 위원장 위촉
KLPGA 일본여자프로골프협회 위로서한과 함께 성금 5백만엔 전달(일본 후쿠시마 강진/원전 사고)
유소연 US여자오픈 우승
J골프, SBS골프 KLPGA 공동주관방송사로 선정(2011~2013)
IB스포츠 KLPGA 공식마케팅 대행사로 선정(2011~2013)
최나연 사임다비 LPGA 말레이시아 우승
(한국계 美LPGA투어 100승 달성)
2011 KLPGA 유소년 골프클리닉 행사 진행
(상반기-심현화, 하반기-김하늘)
김하늘 KLPGA 투어 대상, 상금왕, 다승왕 3관왕 차지
서희경 美LPGA 투어 신인상 수상
안선주 日LPGA 2년 연속 상금왕 수상

2012 **구자용 회장(제12대) 회장 취임**

정규투어 아마추어 우승자 특전 변경
KLPGA 4대 홍보모델 선정 발표(김자영2, 김하늘. 김혜윤, 문현희, 심현화, 안신애, 양수진, 윤채영, 정연주. 홍란)
2012 KLPGA 유소년 골프클리닉 행사 진행
(상반기-김자영2, 하반기-김하늘)
특별공로상 및 투어공로상 신설
골프존 2년간 KLPGA 공식 상금순위 스폰서 협약 체결
KLPGA 교육분과위원회 구성 및 박인혜 위원장 위촉
KLPGA 선수분과위원회 이정연 위원장 위촉
KLPGA 입회 특전 및 실기평가 면제 규정 개정
전미정 KLPGA투어 영구시드권 획득
박세리 10년만에 국내투어 우승
김하늘 2년연속 상금왕, 양제윤 대상 수상
박인비 美LPGA 투어 상금왕 수상
전미정 日LPGA 투어 상금왕 수상
유소연 美LPGA 투어 신인상 수상
日LPGA 투어 총 35개 대회 중 한국인선수 16승 합작
3년만에 개최된 한일전에서 한국팀 우승
(역대전적 6승 2무 3패)
2013년도 KLPGA투어 개막전, 대만에서 개최

2013 KLPGA 5대 홍보모델 선정 발표(김자영2, 김하늘, 김혜윤, 양수진, 양제윤, 윤채영, 장하나, 허윤경, 홍란)
KLPGA 재능기부 프로젝트'Do Dream With KLPGA Golf Camp 2013'개최
박인비 63년만에 美LPGA투어 메이저대회 3연승 달성
KLPGA, KLPGT 홈페이지 통합
KLPGA Members 매거진 발행
KLPGA 창립 35주년 기념, 전 회원에게 기념품 발송
제11대 구옥희 회장 별세
고 구옥희 회장 체육훈장 맹호장 추서
멤버스 아카데미 실시
장하나 KLPGA 투어 대상, 상금왕, 다승왕 3관왕 차지
박인비 美LPGA 투어 상금왕 2년연속 수상, 한국인 최초로 올해의 선수상 수상
한국인 선수 美LPGA 10승, 日LPGA 11승 합작

2014 KLPGA, 경기 시간 단축과 출전 선수 확대를 위해 정규투어 2부 티오프제 실시
정규투어 22개 대회에서 27개 대회로 증가
드림투어 15개 대회에서 20개 대회로 증가
드림투어 차전별 상금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증액
드림투어 및 점프투어 역할 재정립을 통한 참가자격기준 변경
KLPGA 경기분과위원회 정창기 경기위원장 위촉 및 전문경기위원제도 시행
정규투어 코스세팅 가이드라인 제공 및 그린 스피드 공지
전담 의무팀 전 경기로 확대 파견 및 안전사고(응급) 매뉴얼 작성 및 배부
KLPGA 6대 홍보모델 발표(김세영, 김자영2, 김하늘, 김효주, 안신애, 양수진, 윤채영, 장하나, 전인지, 허윤경)
KLPGA 공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공개
김효주 KLPGA 역대 최초로 단일 시즌 상금액 12억 원 돌파
KLPGA 로고송 공개 및 통화연결음 서비스 시행
KLPGA, 골프 대중화와 올바른 골프문화 형성 위한 3편의 캠페인 영상 공개(You are the best gallery, 팬과 하나되는 KLPGA, KLPGA 로고송 함께부르기)
김효주 美LPGA 투어 메이저대회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비회원 자격으로 우승
체육인재육성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백규정 美LPGA 투어 '2014 LPGA 하나·외환 챔피언십'에서 비회원 자격으로 우승
김효주 역대 세 번째로 한 시즌 메이저대회 3승 석권
KLPGA-E1 시니어 챔피언십 개최
한일 여자 프로골프 국가대항전 2014, 한국팀 우승
(역대 전적 7승 2무 3패)
정회원 1,000명 돌파(2014년 7월)
김효주 KLPGA 투어 대상, 상금왕, 다승왕, 평균타수상 4관왕 차지
안선주 日LPGA 투어 올해의 선수상, 상금왕, 평균타수상 수상
KLPGA 회원 美LPGA 9승, 日LPGA 14승 합작

2015 정규투어 27개 대회에서 29개 대회로 증가
정규투어 총상금 약 185억 원,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
시니어투어 10개 대회에서 13개 대회로, 총상금 4억원에서 6억 1천만 원으로 증가
전체투어 78개 대회(정규29개, 드림20개, 점프16개, 시니어13개), 총상금 200억 원 최초 돌파
KLPGA 인터내셔널 퀄리파잉 토너먼트 최초 시행
KLPGA 7대 홍보모델 발표(고진영, 김민선5, 김자영2, 김혜윤, 안신애, 양수진, 윤채영, 전인지, 허윤경, 홍란)
KLPGA 캠페인 영상광고 3편 제작, 공개 (KLPGA 사회공헌활동, KLPGA 로고송 함께 부르기, 함께해요 KLPGA)
KLPGA 중계 해외 커버리지 확대 (일본, 태국, 대만, 말레이시아, 홍콩, 호주 등)
KLPGA 2015 시즌 미디어데이 첫 개최
KLPGA와 SBS가 함께하는 드림위드버디 조성기금 약 1억5천만 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
KLPGA와 E1, 네팔 대지진 구호 성금으로 2천만 원 기부
KLPGA 유소년 사업 확대("KLPGA To You" 엘리트 멘토링, 골프키즈단, 다문화 골프교실 등)
KLPGA-삼천리 꿈나무 대회 첫 개최
KLPGA 골프키즈단 창단 및 활동 진행(연3회)
KLPGA 대학(원)생 객원마케터 최초 시행
신규운영장비(블랙박스, 그린경도 및 수분 측정기) 최초 도입
날씨 정보 프로그램 YTN웨더에 신설
투어 갤러리 1천명 대상으로 성향 분석 조사 실시 (관람만족도, 소비행동, 특성 등)
4개 투어(KLPGA, JLPGA, LET, ALPG)대항전 "더퀸즈" 최초 개최
박인비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ANA 인스퍼레이션,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US여자오픈, 브리티시 여자오픈)
전인지 최초로 단일 시즌 한 · 미 · 일 메이저대회 동시 석권(KLPGA: KB금융 스타챔피언십, 美LPGA: US여자오픈, 日LPGA: 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 살롱파스컵)
김세영 美LPGA 신인상 수상
이보미 日LPGA 투어 대상, 상금왕, 평균타수상
이보미 日LPGA 투어 최초로 한 시즌 상금 2억엔 돌파, 일본남녀투어 통틀어 최다상금 신기록 수립

2015 전인지 KLPGA 투어 대상, 베스트 플레이어 트로피, 최저타수상, 다승왕, 해외특별상, 상금왕 수상
신지애 KLPGA 명예의 전당 헌액
박인비 · 안선주 KLPGA 투어 영구시드권 획득
KLPGA 회원 日LPGA 17승, 美LPGA 15승 합작

2016 정규투어 29개 대회에서 32개 대회로 증가
정규투어 총상금 약 211억 원,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
KLPGA 시니어투어, 챔피언스투어로 명칭 변경
전체투어 76개 대회(정규 32개, 드림 19개, 점프 16개, 챔피언스 10개), 총상금 24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30억 원 증가
KLPGA 인터내셔널 퀄리파잉 토너먼트 확대 시행 (5개국 20명 선수 참가, I-투어 회원 5명 입회)
KLPGA 2016 윈터투어 첫개최(한국투자증권 챔피언십 with SBS, 더달랏 at 1200 레이디스 챔피언십)
KLPGA 중계 해외 커버리지 확대(미주지역)
경기분과위원회 룰 전문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 (KGA, R&A level 3 레프리 스쿨 파견)
KLPGA 8대 홍보모델 발표(고진영, 김민선5, 김자영2, 김해림, 김혜윤, 박결, 박성현, 윤채영, 조윤지, 홍진주)
KLPGA 캠페인 영상광고 2편 제작 및 공개 (더 큰 즐거움, KLPGA / KLPGA 사용법)
팬 매거진 KLPGA Premium 창간
KLPGA 공식 블로그, 포스트, 페이스북 등 각종 SNS를 통한 콘텐츠 다양화 및 팬과의 소통 확대
공식스폰서 및 마케팅 파트너 신규 유치 (발렌타인 대상포인트, 티업비전 상금순위 등)
드림위드버디 조성기금 약 1억 6천만 원으로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완공, 청송군 지역아동센터 준공
2016 KLPGA-올포유 자선골프대회 개최(굿네이버스 2천만 원 자선기금 전달/누적 자선기금 574,963,340원)
KLPGA 동계 봉사활동 확대 시행(센터 6곳 방문, 기관당 1천만 원 상당의 후원금과 물품 지원)
KLPGA 재능기부, 꿈나무 육성 사업 및 골프환경조성 확대(유소년 골프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 진행, 골프키즈단 전국 투어 형태로 확대 진행, 지원 학교 2개로 확대)

2016

KLPGA 회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확대 시행(회원 인문, 소양, 외국어 교육 활성화 / 구인구직 업무협약 체결 등)
4개 투어(KLPGA, JLPGA, LET, ALPG)대항전 '더퀸즈 presented by 코와' 결승전 7승 1무로 우승(vs JLPGA)
박성현 시즌 7승 달성과 함께 단일 시즌 최다 상금 기록 경신(시즌 상금 약 13억 3천 3백만원)
박성현 KLPGA 투어 상금왕, 다승왕, 최저타수상 수상
김보경 KLPGA 최다 출전 기록 경신
리우 올림픽 감독 박세리와 금메달 수상자 박인비 특별상 수상
박인비 리우 올림픽 여자골프, 금메달을 획득하며 골든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
전인지 미국 남녀 메이저대회 72홀 최소타 기록(21언더파 264타) 경신
전인지 美LPGA 역사상 두 번째로 신인상과 베어트로피(최저타수상) 동시 수상
이보미 日LPGA 투어 대상, 상금왕, 평균타수상 수상
이보미, 이지희 KLPGA 투어 영구시드권 획득
전미정 日LPGA 투어 24승 달성하며 고(故) 구옥희의 한국인 최다승(23승) 기록 경신
KLPGA 회원 日LPGA 17승, 美LPGA 11승 합작

2017 **김상열 회장 제13대 KLPGA 회장 취임**

정규투어 30개, 총상금 207억 원으로 개최
정규투어 한화 클래식 메이저대회 승격, 메이저대회 4개 → 5개로 증가
정규투어 5년 이상 후원사 19개, 10년 이상 후원사 11개로 증가
정규투어 최종라운드 방송시간 변경
(기존: 12시~17시 → 변경: 11시~16시 / 메이저: 10시~16시)
드림투어 21개 대회, 총상금 22억 8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개 대회 10억 원 증가
드림투어 총상금 5억 원의 역대 최고 규모의 호반건설 챔피언십 개최
챔피언스투어 100회 대회 진행(챔피언스오픈 1차전)
챔피언스투어 13개 대회, 총상금 14억 5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8억 4천만 원 증가
전체투어 80개 대회(정규 30개, 드림 21개, 점프 16개, 챔피언스 13개), 총상금 249.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4억 원 증가
4개 투어(KLPGA, JLPGA, LET, ALPG)대항전 '더퀸즈 presented by 코와' 준우승(vs JLPGA)

2017

KLPGA 인터내셔널 퀄리파잉 토너먼트 첫 해외(태국) 개최
KLPGA 9대 홍보모델 발표(고진영, 김지현, 김해림, 박결, 배선우, 오지현, 이승현, 장수연, 허윤경, 홍진주, 'KLPGA 캐릭터 케이')
KLPGA 캠페인 영상광고 2편 제작 및 공개
(1편: KLPGA 캐릭터 광고 영상/2편: 주말엔 일상탈출)
KLPGA 공식 캐릭터 케이 공개, 제9대 KLPGA 홍보모델로 활동
KLPGA 웹툰 신규 제작
KLPGA 갤러리 참여형 이벤트 스탬프 투어 신설
드림위드버디 조성기금 1억 6천6백4십만 원으로 청송군지역아동센터 착공(2018년 6월 완공예정)
2017 KLPGA-올포유 자선골프대회 개최
(굿네이버스 2천만 원 전달/누적 자선기금 594,963,340원)
KLPGA 동계 봉사활동 시행(센터 5곳 방문, 기관당 1천2백만 원 상당의 후원금과 물품 지원)
회원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전문성 강화
(인문소양, 외국어교육, 취업 및 골프역량, 문화교양)
이정은6 18홀 최소 스트로크 기록 경신(12언더파 60타,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 2라운드)
이정은6 KLPGA 투어 대상, 상금왕, 다승왕, 최저타수상 수상
박인비 KLPGA 명예의 전당 입회
K-10클럽 신설(초대 입회자: 김보경, 김혜윤, 윤슬아, 홍란)
최혜진 아마추어 신분으로 KLPGA 투어 2승 달성
(1999년 임선욱 이후 아마추어 2승 처음)
정일미 역대 최초 3년 연속 챔피언스투어 상금왕 수상
KLPGA 회원 日LPGA 13승, 美LPGA 15승 합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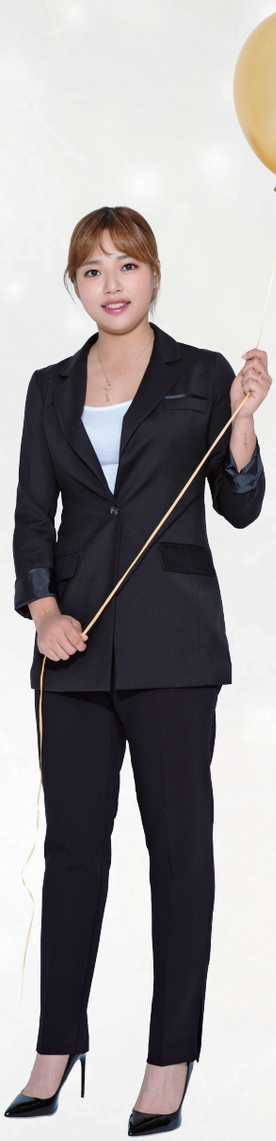
12 | 제10대 홍보모델 화보



김 자 영2



김 지 현



김 혜 선2



박 결



박 민 지



배 선 우



오 지 현



이 승 현



이 정 은6



장 하 나



케 이



40th

Global NO.1 KLPGA

since 1978



편찬 후기

KLPGA의 영광의 40년사, 'KLPGA 창립 40주년 기념 책자'를 드디어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책자 제작 업무는 무척이나 힘겹고 어려웠지만 그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40년간의 긴 발자취와 많은 분들의 업적을 책 한 권에 녹여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사사 제작이 큰 부담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40주년을 맞은 오늘날, 지금까지 KLPGA가 지나온 길을 다시 되돌아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과거 기사를 샅샅이 찾아보고 창고에 있는 옛날 사진들을 모두 펼쳐놓고 검은 먼지를 마시며 쓸만한 사진을 골라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며 지난 40년을 꼼꼼히 살펴보니 그 면면은 자랑스러운 역사와 감동의 순간으로 가득했습니다. 지금의 KLPGA가 있기까지 달려온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회원과 골프를 사랑하는 관계자분들이 있었음을, 그리고 그 에너지가 지금의 KLPGA를 만들어냈음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료수집과 검토, 집필과 감수 등 편찬과정에서 많은 회원과 직원, 관계자분들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40년의 역사는 더욱 빛을 낼 수 있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한 권의 책이 50년, 100년 앞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에 친절한 이정표 역할을 하기 바라며, 누구보다 소중한 KLPGA의 가족 모두와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KLPGA 40주년 기념 책자'를 바칩니다.

2018년 5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사사편찬위원회 일동

KLPGA 40년사 편찬 조직

편찬 위원회

김상열 회장

김성희 초대 회장

강춘자 수석부회장

이영미 부회장

김경자 전무이사

감수위원

안성찬 골프 전문기자(이투데이신문)

오학열 골프 전문기자(브릿지경제신문)

정대균 골프 전문기자(파이낸셜뉴스)

최명식 골프 전문기자(문화일보)

편찬TF

김남진 KLPGA 국장

박진우 KLPGA 팀장

김의주 KLPGA 과장

기획총괄

김의주 KLPGA 과장

사진자료

박준석 KLPGA 공식 사진기자

편찬에 도움을 주신 분들

제작 (주)**유니크플러스**

사업책임 **전미옥**

총괄기획 **차희연**

기획마케팅 **강문천**

기획진행 **이정희**

집필 **박철우 임효정 박가인**

교정교열 **박상락 강신애 김이화 안보영**

아트디렉터 **이현우**

디자인 **최근영, 박수빈**

촬영 **이명철**



40th Anniversary
Korea Ladies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40년사

since 1978

발 행 인 김상열
발 행 일 2018년 5월 11일
발 행 처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KLPGA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85길 13 송석빌딩 6F, 8F
02-587-2929 / www.klpga.co.kr

기획/디자인 ㈜유니크플러스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108 KM빌딩 4층
02-2140-1114 / www.unps.co.kr

인 쇄 ㈜금명문화사

비매품
93690
9 791186 392256
ISBN 979-11-86392-25-6